



제10회
국내학술
심포지엄

코리안의 민족공동성과 통일인문학

2012.3.31 [토]

13:00~18:00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과학관 301호

개회

사회 : 김종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개회사 : 김성민(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

제1부 | 코리안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정진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발표 1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

발표 2 재일 조선인의 민족정체성과 경계인 김익현(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발표 3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와 민족의 평등한 유대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종합토론 이상훈(대진대 철학과),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제2부 | 코리안의 분단의식과 통일한반도의 미래가치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발표 4 고려인의 탈분단의식과 상호신뢰성 회복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발표 5 재일조선인의 분단의식과 동북아의 평화 박종성(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발표 6 탈북자들의 분단의식과 통합적 가치 김종근(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종합토론 서유석(호원대),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프로그램】

등 록 13:30~13:00

개회식 13:00~13:10

사회 : 김종근(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개회사/김성민(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
- 축 사/김진규(건국대학교 총장)

제1부 코리안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13:10~15:25)

좌장 : 정진아(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발표 1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 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발표 2 재일조선인의 민족정체성과 경계인 / 김익현(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발표 3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와 민족의 평등한 유대 /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종합토론

이상훈(대진대 철학과),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휴 식 15:25~15:45

제2부 코리안의 분단의식과 통일한반도의 미래가치(15:45~18:00)

좌장 :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발표 4 재러 고려인의 탈분단의식과 상호신뢰성-공동번영이라는 두 가지 흐름

/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발표 5 재일조선인의 분단의식과 동북아 평화 / 박종성(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발표 6 탈북자의 분단의식과 통합적 가치 / 김종근(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종합토론

서유석(호원대),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발표집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NRF-2009-361-A00008)

차 례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9
/ 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재일조선인의 민족정체성과 경계인	27
/ 김익현(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와 민족의 평등한 유대.....	41
/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재러 고려인의 탈분단의식과 상호신뢰성-공동번영이라는 두 가지 흐름...	61
/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재일조선인의 분단의식과 동북아 평화	89
/ 박종성(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탈북자의 분단의식과 통합적 가치	109
/ 김종곤(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제1부 코리안의 민족정체성 조사 · 연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재일조선인의 민족정체성과 경계인

김익현(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와 민족의 평등한 유대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교수)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박민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1. 들어가며 :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와 고려인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이 논문은 통일인문학연구단에 의해 2010년 9월부터 기획되어 실시되고 있는 ‘민족공통성연구프로젝트’ 중 고려인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러시아의 연해주(296명)와 사할린(30명)에 거주하는 한인 총 326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직접대면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011년 4월 예비조사, 5월 설문문항검토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 시기에는 현지 조사자와의 협의¹⁾ 및 현지 사정에 맞게 문항 내용 일부를 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는 고려인의 정체성 일반, 통일-분단의식, 트라우마(trauma), 생활풍속과 문화를 묻는 100개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구별에 있어서 거주지, 출생지, 나이, 성별, 세대구분, 지역구분(도/농), 주거형태, 가족구성, 학력, 거주기간 등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여타의 항목구분에선 중요한 결과와 경향성, 특징 등이 보이지 않았지만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에선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주-강제이주-재이주’라는 고려인의 경험과 역사가 설문조사 결과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의 구분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등을 주요 분석변수로 삼았다.

표1 조사대상자 (단위 : %)

전체	출생지						연령대						성별			국적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북한	기타	무응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	여	무응답	러시아	기타	무응답	
사례수	326	27	40	257		1	1	19	55	77	53	52	70	151	173	2	298	5	23
연해주	90.8	96.3	37.5	98.4		100.0	100.0	100.0	83.6	92.2	98.1	88.5	88.6	92.7	89.6	50.0	93.3	100.0	56.5
사할린	9.2	3.7	62.5	1.6					16.4	7.8	1.9	11.5	11.4	7.3	10.4	50.0	6.7		43.5

표1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은 조사대상자의 국적은 대다수가 ‘러시아’였으며 약 10%정도가 ‘무응답’이나 ‘기타’였는데, 이들은 아마도 무국적자로 보여진다는 점이다.²⁾ 또한 출생지 구분에서 북한, 무응답, 기타 항목이 있었는데, 표본수가 적기에 이하의 분석에서는 아예 제외하였다. 또한 중복응답과 무응답 역시 실질적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한계점이 보인다. 우선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 거주 한인들을 표본수가 상당히 차이가 난

1) 현지 설문조사는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의 김발레라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담당했다. 블라디보스토크 북부에 있는 우수리스크(Ussuriisk)에는 러시아 연해주지역 ‘조선족회관’과 ‘한국어교육원’이 있어,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 한국과 가장 친밀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 이는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이 다시금 연해주로 귀환 당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국적회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연구물에 따르면 ‘현재 약 3-4만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김인성, 「러시아 한인사회를 통해 본 러시아정부의 다문화정책」, 한국민족연구논집 43권, 2010, 73쪽 이하.

다. 연해주와 사할린 거주 한인들의 답변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할린 지역 거주 한인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작기에 그러한 차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본수가 중앙아시아 출생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전체적인 여론 역시 중앙아시아 출생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대의 구분에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10대와 20대의 표본수가 적었다. 따라서 세대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되는 경향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2) 고려인 설문조사의 의미와 글의 목표

이제까지의 코리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는 혈연, 언어, 생활양식과 풍속 등의 요소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측정하는 방식, 또는 반대로 이들에게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부여하며 동질성의 해체와 이질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두 방향 모두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갇혀 코리아인 디아스포라의 고유한 의미와 특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와는 달리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수행한 지난 2011년도의 재중 조선족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민족 vs. ‘탈민족(디아스포라)’의 패러다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코리아인 디아스포라의 ‘이중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전히 그들의 민족정체성은 나름의 방식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나아가 코리아인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방식에서 ‘민족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고려인’인가?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연구에 있어서 고려인이 차지하는 의미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으로 1863년부터 시작된 제정러시아로의 고려인 이주역사는 한(조선)민족 이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주에는 한(조선)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코리아인 디아스포라의 특수한 성격을 찾는 시도에서 고려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둘째, 코리아인 디아스포라는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극복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때 고려인이 겪었던 혹독한 강제이주와 재이주는 거주국에서의 다양한 변화와 적응, 저항과 극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거가 되고 있다. 셋째, 비슷한 의미에서 고려인들은 한(조선)민족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거주 지역의 문화에 대한 동화과정을 경험하였기에, 민족적 공통성과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고려인은 다양한 민족과의 마주침 및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경험한 집단이다. 그렇기에 고려인은 미래 통일한반도를 구성하는 모델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 집단이다.³⁾

따라서 이 글은 고려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코리아인 디아스포라의 고유한 이중정체성이 고려인에게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중정체성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머리에서 규정되고 규정하는 정체성 인식이 아니라, 그들의 감각적 신체와 정서에 각인된 정체성은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려인 정체성의 고유한 특성이 코리아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미래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 확고한 국가정체성과 탈경계적인 민족정체성의 사이에서

1) 기존 고려인 연구의 한계와 이중정체성 확인

고려인은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 거주 고려인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아이훈조약’과 ‘베이징조약’ 이후 1938년 10월 러시아

3) 고려인은 2010.12.31.을 기준으로 러시아에 약 210,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에 약 170,000명, 카자흐스탄에 약 100,000명, 키르기스스탄에 약 18,000명 등이 분포돼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총 523,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2011년도 재외 동포현황> 참고. 또한 사할린에는 대부분 1939-1945년 일본이 징용해 당시 일본 지배하에 있던 남부사할린에 강제 이주시킨 15만 한인 가운데 종전과 함께 송환되지 못하고 잔류한 30,000여명 한인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연방의 행정단위로 편입된 연해주는 구소련으로의 조선인 이주가 최초로 이루어진 지역일뿐더러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역이기 때문이다.⁴⁾ 또한 한반도에서 연해주로의 이주,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다시 연해주로 재이주라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역사상 가장 희귀한 고려인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적 장벽으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구소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고려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앞선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한계를 갖는다. 예컨대 핏줄과 한글 사용에 대한 확인, 귀속감여부 확인, 조국과 민족관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동질감 또는 이질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만 귀결된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고려인의 지난한 경험들 속에서 자리 잡게 된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로 이어지게 된다.⁶⁾

하지만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수행한 ‘민족공동성프로젝트’ 중 하나인 재중 조선족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에서 이미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특수한 ‘인지적 정체성’을 확인한 바 있다.⁷⁾ 간략히 말해 인지적 정체성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구성되는 정체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갖는 인지적 정체성에는 거주국을 통해 습득된 ‘국가정체성’과 본국의 뿌리와 혈연을 바탕으로 한 ‘민족정체성’이라는 두 간극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컨대 ‘조국’과 ‘모국’을 동시에 묻는 질문방식과 그 이유, 더불어 스스로의 민족 호칭을 묻는 질문을 통해 해외 한인들이 스스로 생애해내는 정체성은 말 그대로 고유한 이중정체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인에게 동일한 이중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중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적 성격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이중정체성은 고정된 형식인 것일까? 고려인에게도 재중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조국’과 ‘모국’, 그리고 그것을 택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표1 “내 ‘조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모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선택 국가	조국	모국
러시아	86.8	21.8
조선(북조선)		9.5
한국(남한)	2.5	15.3
한반도	0.9	36.2
러시아와 한반도	7.7	15.0

- 4) 현재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공식적인 집계는 어렵다. 다만 현지 한인 단체의 조사를 바탕으로 유추하면 약 25,000-30,00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윤인진 외,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출판부, 2010, 145쪽
- 5) 한인의 연해주 이주의 단계 구분은 연구자들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① 제1기: 1863-1884년 국교수립까지, 조선에서 한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한 시기이다. ② 제 2기: 1884년-1893년까지, 이 시기에는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농민 이외에 상인과 노동자가 이주민에 포함되었다. ③ 제 3기: 1893년-1910년 한일합방까지, 이 시기에는 연해주로의 망명민이 크게 늘어났다. ④ 제4기: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시기, 일제의 억압과 핍박을 피해 또는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이주시기이다. 이송호 외,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2004, 30쪽 이하. 이와 비슷하게 고려인 역사학자인 김계르만은 한인 이주를 ‘자연침투 현상’과 진정한 의미의 ‘이주’로 구분하여야 함을 지적한다. “한인들이 대규모로 원래의 조국을 버리고 또 다른 조국을 찾아 러시아로 흘러 들어온 현상은 일본의 통치시기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으며 한일합방 이후 그 규모는 더욱 커졌다.” 김계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166쪽 이하.
- 6)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 재러 고려인에 대한 연구물은 학위논문 40여편, 학술논문 120여편, 단행본 130여편 등이다. 여기서 정진아는 재러 고려인에 대한 대체적인 연구경향에 담긴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한인이 아닌 철저히 한국 중심적이라는 점’, 2. ‘출신지역별 정체성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3. ‘거주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1945년 이후 사할린 사회의 변화, 소련의 민족정책 속에서 형성된 한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이다. 정진아,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연구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민족연구 제 38집, 2011, 408-411쪽 참고.
- 7) 박영균,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제 9회 공동 국내 심포지엄 자료집, 2011, 60쪽 이하.

표1을 살펴보면 자신의 조국을 '러시아'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자 중 86.8%로 1위, '러시아와 한반도'를 택한 비율이 7.7%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결과만 놓고 따져봤을 때, 조국을 묻는 질문의 결과는 자신의 거주국인 중국을 조국으로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재중 조선족의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⁸⁾ 하지만 모국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선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조국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수가 대답한 '러시아'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 '한반도'를 선택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36.2%, '러시아' 21.8%, '남한' 15.3%, '러시아와 한반도' 15%, '북조선' 9.5%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선 '조국'을 묻는 질문에는 '러시아'의 선택비율이 높다는 점, 반대로 '모국'을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를 모국으로 선택한 비율이 36.2%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조국을 묻는 질문에서 선택비율은 0.9%) 즉 그들이 생각한 조국은 대체적으로 '러시아'로 귀결되고 있지만, 반대로 모국은 '한반도'로 수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조국'과 '모국', 그리고 '한반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표2 “조국을 선택한 이유”, “모국을 선택한 이유” (단위: %)

조국선택/모국선택	조국선택이유						모국선택이유					
	전체	거주지		출생지			전체	거주지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29.1	22.3	96.7	74.1	80.0	16.7	12.6	11.8	20.0	33.3	25.0	8.6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50.3	55.4		14.8	10.0	60.3	12.3	13.5			2.5	15.2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7.7	8.1	3.3	3.7	7.5	8.2	66.3	64.9	80.0	63.0	67.5	66.1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9	1.0				.8	2.5	2.7		3.7	2.5	2.3
나를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1.5	1.7				1.9	1.5	1.7				1.9
중복응답+무응답	10.5	11.5		7.4	2.5	13.1	4.9	5.4			2.5	5.8

표2처럼 '조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29.1%,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50.3%, 즉 '태어나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내 선조의 뿌리',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비율은 도합 8.6%에 불과하다. 이러한 답변비율을 보면, 고려인이 생각하는 조국은 '내가 태어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국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자신의 모국을 택했던 이유에 대해 66.3%가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반면, '태어나고+살고 있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은 24.9%로 줄어들고 있다. 모국을 규정하는 것에는 다른 지역, 예컨대 재중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특징이 강하게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조국은 '내가 태어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이자 모국은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인 셈이며, 이때 전자는 국가정체성과 연결되며 후자는 민족정체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은 우선 '내가 태어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서 '조국'='러시아' vs.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서 '모국'='한반도'라는 이중정체성의 모습으로 파악될 수 있다.⁹⁾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조국선택비율과 조국선택이유는 확실하게 한 곳으로 수렴되는 형식을 보이고 있지만 모국선택비율과 모국선택이유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냄을 고려하면, 그들의 이중정체성은 확고한 '국가정체성' vs. 탈경계적인 '민족정체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탈경계적인 민족정체성이란 단순히 현재 남한 또는 북조선과 같이 구체적인 하나의 나라로 수렴되는 민족정체성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고려인의 민

8) 또한 이러한 답변비율은 다른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슷하다. “자신의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러시아 53%’, ‘중앙아시아 33%’, ‘남한 6.3%’, ‘북한 3.2%’순으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임채완/전형권, 『제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58쪽 이하.

9)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심현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족적 소속은 한민족이나 국민은 러시아인으로 설 수 밖에 없는 한인들의 이중적 지위를 이해해야만 한다.” 심현용, 「고려인의 신이주와 NGO의 역할- 연해주와 불고그라드-」,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1집, 2007, 18쪽

족정체성이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특징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나라와 연결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근원적 고향과 연결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와 연관된 모국 선택답변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확인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탈경계적 민족정체성은 거주지와 출생지에 따른 비교 분석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강제이주와 재이주를 겪지 않았고,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 이주해 와 한 곳에만 오래 머물렀던 사할린 거주 한인들¹⁰⁾에게 ‘조국’이든 ‘모국’이든 양쪽 모두는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전해질 수 없는 공간이다.(표2참조) 이것은 사할린 한인들의 ‘강제징집’이라는 거대한 체험과정에 영향을 받은 강한 뿌리의식이 만들어낸 ‘본국지향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그들이 선택한 모국은 ‘남한’, ‘조선’(각각 56.7%, 20%)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한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고려인들에게는, 특히나 중앙아시아 출신 연해주 거주자에게 그들의 민족정체성이란 곧 강제이주와 재이주라는 고된 경험들이 만들어낸 ‘현실지향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거주국과의 동화를 오랜 시간 강하게 경험하였기에 구체적인 하나의 나라로서 모국의 의미는 잊혀졌으며, 그 대신 전승된 기억 속의 근원적 고향으로서 ‘한반도’를 중요시했다. 따라서 그들의 모국은 ‘남한’과 ‘조선’(각각 10.1%, 7.4%)보다는, ‘한반도’, ‘러시아-한반도’처럼(각각 40.1%, 16.3%) 한반도적 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2) 확고한 국가정체성과 탈경계적인 민족정체성의 사이에서: ‘고려인’ 정체성으로의 변화

이처럼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은 확고한 국가정체성(조국=태어나고 살고 있는 곳) vs. 탈경계적 민족정체성(모국=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이중정체성(dual-identity)의 특성을 갖는다. 이때 이러한 이중정체성의 특징은, 예컨대 재중 조선족의 이중정체성과는 달리, 확고한 국가정체성은 동일하지만 민족정체성은 구체적인 하나의 나라가 아닌, 잊혀진 기억 속의 한 지향점인 ‘한반도’로 수렴되는 민족정체성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중정체성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변화되지 않는 형태로 전승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연해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족교육의 강화, 다양한 민족과의 마주침, 상이한 정치/경제적 제도를 경험, 연해주 개발과 관련해서 남한과의 만남, 강제이주와 재이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추체험 등이 분명히 어떤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3. “자신이 속한 민족의 호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전체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 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러시아 고려인	70.6	69.9	76.7	51.9	65.0	73.5	31.6	83.6	66.2	69.8	75.0	72.9
한민족	0.3	0.3				0.4		1.8				
조선민족												
고려인	27.6	28.0	23.3	44.4	30.0	25.3	63.2	14.5	32.5	28.3	25.0	24.3
중복응답	1.5	1.7		3.7	5.0	0.8	5.3		1.3	1.9		2.9

표3을 살펴보면 고려인의 이중정체성의 의미 및 변화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민족호칭을 70.6%가 ‘러시아-고려인’, 27.6%가 ‘고려인’이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 ‘한민족’ 또는 ‘조선민족’이라는 답변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자면,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큰 요인으

10) 사할린 한인 구성은 대체로 3부류로 나뉘 볼 수 있다. 1. 일제 강점기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남쪽에서 징용되어온 사람들인 ‘원주 한인’ 2. 1946년부터 1948년에 걸쳐, 북한에서 소련 극동 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들 중 사할린으로 보내진 사람들인 ‘북한 파견 근로자’ 3. 한인들 가운데 소련 당국이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파견한 사람들인 ‘소련계 한인’들이다. 조정남, 「북한의 사할린 한인 정책」, 민족연구 제 8호, 2002, 188쪽 이하. 이들 모두는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단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로 작동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국=러시아’, ‘모국=한반도’라는 이중정체성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20대를 제외하면 40대 이하부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신의 민족호칭을 ‘고려인’으로 선택한 답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해주가 출생지인 조사대상자 중 44.4%가 자신의 민족호칭을 ‘고려인’이라고 답변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37년 시행된 강제이주를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려인이 대부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연해주 출생이 가능한 사람은 대부분 1937년 이전 출생자이거나 1990년대 재이주 이후에 출생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이걸 고려하고 연령별 구분을 봤을 때 10대의 경우엔 63.2%가 자신의 민족 호칭을 ‘고려인’이라고 답변한 사실과 맞아 확률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즉 전체적인 경향성을 따져보았을 때, 1990년대부터 진행된 재이주를 전후로 연해주에 새롭게 정착하게 된 40대 이하의 고려인을 중심으로 자신의 민족 호칭을 ‘고려인’이라고 칭한 비율이 ‘러시아-고려인’이라고 칭하는 비율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앞서 질문과 연관선상에 판단했을 때, 고려인이 갖는 인지적 정체성의 고유한 특징이 발견된다. 앞서 세대가 확고한 ‘조국’과 탈경계적인 ‘모국’의 갈림길에서 이중정체성을 형성했다면, 이들은 이제 독자적인 ‘고려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려인’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우선 확인가능하다.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69.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조선)반도의 민족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9.2%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고려인’이라는 민족호칭(70.6%)은 아마도 ‘러시아 내 살고 있는 소수민족’과 연결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불확실할뿐더러 ‘고려인’이라는 답변의 의미는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민족호칭을 각각 ‘러시아-고려인’과 ‘고려인’으로 칭한 응답자만을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해보았다.

표4.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선택이유	자신의 민족호칭	
	‘러시아-고려인’	‘고려인’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87.0	27.8
남과 북의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3.5	8.9
한반도(조선반도)의 민족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0.4	31.1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1.3	3.3
나는 러시아인과도,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과도 정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3.0	23.3
중복응답+무응답	4.7	5.5

이 결과 ‘러시아-고려인’을 선택한 87%가 그 이유에 대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러시아-고려인’이라는 민족호칭에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고려인’을 선택한 응답자 중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뭇 결과가 달라진다. 그들이 자신들을 ‘고려인’이라고 칭한 까닭은 ‘한(조선)반도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1%로 1위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7.8%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고려인’이라는 민족호칭에는 한(조선)민족 및 한(조선)반도와의 연관된 의미가 보다 강하게 작동한다.

따라서 앞서 질문과 연관선상에서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강제이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탈경계적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한다면, 40대 이하의 연령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이주라는 안착을 통해 이전 세대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한(조선)민족 및 한(조선)반도와의 연결을 통해 모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려인’이라는 민족호칭은 한(조선)민족 및 한(조선)반도와의 동일성의 차원에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닐 듯하다. 왜냐하면 ‘고려인’이라고 자신의 민족호칭을 답변한 23.3%가 그 이유에 대해 ‘러시아와 한반도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아마도 1990년도 한/소 수교를 시작으로, 1993년 중앙아시아로부터 러시아로의 재이주, 1990년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한기업의 러시아로의 진출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고려인의 전승된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한반도는 이제 생생한 미주침을 통해 구체적인 실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대한 ‘망각의 역사’가 ‘재접촉의 경험’로 변화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경험들 모두는 단순히 한(조선)민족 및 한(조선)반도와의 동질감만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150여년동안 잊혀졌던 한반도는 그 변화된 시기만큼이나 커다란 낯설음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은 한(조선)민족과의 ‘같은면서도 구분되는’ 독특한 위치 속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¹¹⁾ 결과적으로 말해 이러한 답변은 독특한 ‘고려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들에게도 ‘국가’ vs. ‘민족’이라는 이중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국’과 ‘모국’의 구분으로 연결되는데, 이와 같은 고려인의 이중정체성은 확고한 국가정체성과 탈경계적인 민족정체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둘째, 그러한 이유는 고려인의 고난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들이 경험한 이주-강제이주-재이주¹²⁾는 강한 현실지향성을 만들어냈으며, 또한 그것은 국가정체성은 러시아로, 민족정체성은 기억속의 한(조선)반도라는 뿌리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셋째, 하지만 한(조선)민족과 한(조선)반도와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정체성이 40대 이하 연령대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한(조선)민족과의 동일성 차원에서의 민족정체성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들은 러시아인과도 다르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과도 다른 자신들만의 고유한 의미인 ‘고려인’을 민족적 호칭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3. 고려인의 신체적 정체성: 일상적 삶에서 전승된 요소들

1) 일상적 친숙함을 느끼는 집단과 중요함을 느끼는 집단

어떤 한 민족이 느끼는 정체성에는 인지적 정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체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언어, 풍속, 문화 등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민족의 공통적 요소들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전승되기보다는 현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어가면서 각각의 신체에 각인된다. 이렇듯 언어, 풍속, 문화등과 같은 요소들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 변용되어가면서 습관처럼 몸과 마음에 새겨진 정체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신체적 정체성’의 의미이다. 고려인의 몸과 마음에 각인된 신체적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물었다.

표1. “일상적인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눌 친구는 누구입니까” (단위: %)

	연령대							연령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민족	1.5	5.3	3.6		1.9	1.9		0.9		1.8		1.9	1.9	
동족	23.9	5.3	9.1	27.3	28.3	25.0	32.9	27.3	5.3	7.3	32.5	26.4	28.8	42.9
민족과 상관없음	71.8	89.5	83.6	70.1	67.9	71.2	62.9	71.2	94.7	90.9	67.5	69.8	69.2	55.7
중복응답+무응답	2.8		3.6	2.6	1.9	1.9	4.3	0.6				1.9		1.4

11) 그렇다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제 그들이 말하는 ‘고려인’ 정체성은 과연 어떤 형태를 지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인의 신체적 정체성과 정서적 정체성을 다루는 3장과 4장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2) 소비에트러시아의 극동지역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은 소비에트에 거주하는 민족 중 강제이주를 경험한 최초의 민족이었다. 이 강제이주는 1937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크게 당시 중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한 대외적 정책의 일환, 추후 조직화된 한인들에 대한 두려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인력난 해결과 개발을 위해 등등이 꼽힌다.

표1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이민족’ 1.5%, ‘동족’ 23.9%, ‘민족과 상관없음’ 71.8% 순으로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보자면, 고려인의 일상적인 삶은 같은 핏줄인 동족에게보다는 핏줄과 상관없이 친숙함을 느낀다. 그런데 일상적 삶의 친숙성은 단순히 외적인 친숙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인의 내면적인 친숙성을 묻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 선 질문과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앞 선 질문의 답변비율과 동일하게 ‘이민족’ 0.9%, ‘동족’ 27.3%, ‘민족과 상관없음’ 71.2%순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고려인이 갖는 외적 친밀함과 내적 친밀함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떤 특징을 찾자면 고려인의 일상적 삶은 거주국과 밀접히 연관될 뿐더러 나아가 탈민족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¹³⁾ 이와 같은 경향성은 연령대가 내려올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타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질문에 61.7%가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고려인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정체성은 단지 거주국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일까? 즉 그들의 신체적 정체성은 거주국 중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표2. “나에게 중요한 집단은 어디입니까?” (단위:%)

	전체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친족 모임	51.8	33.3	52.5	53.7
학교 또는 직장	2.5		5.0	2.3
종교기관	6.7	7.4		7.8
친목단체	23.9	37.0	30.0	21.8
없음	5.2	3.7	10.0	4.7
중복응답	9.8	18.5	2.5	9.7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나에게 중요한 집단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다. 답변을 살펴보면, 앞 선 경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 질문에 51.8%가 아마도 모임의 구성원이 대부분 같은 민족이었을 ‘친족모임’을 꼽고 있는 반면, 타민족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학교 또는 직장’을 선택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이것은 고려인에게 그들이 느끼는 친숙함과는 상관없이, 일상적 삶에서도 중요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집단은 바로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다.

고려인이 일상적인 친교를 나누는 집단은 거주국에서의 적응 및 생존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집단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이 일상적인 친교집단보다 더 중요한 집단으로서 같은 민족을 꼽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컨대 ‘강제징집’과 ‘강제이주’와 같은 경험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해주 출생보다 사할린 및 중앙아시아 출생의 고려인들에게 민족의 중요함을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 고려인은 민족의 중요성을 보다 깊게 체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려인들은 생존 및 적응과 연관된 집단만큼이나 어떤 중요함을 내포하는 집단으로서 민족을 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자각해왔다.¹⁴⁾

그런데 한(조선)민족은 오랫동안 하나의 종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혈연, 문화, 생활풍습과 같은 민족적 공통요소의 강한 기반을 갖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의미에서 그러한 민족적 공통요소 역시 고려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핵심은 과연 민족적 공통요소들을 고려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민족적 공통요소들 중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인의 신체에

13) 비교하자면, 재중 조선족의 경우엔 일상적인 친교를 묻는 질문에 59.9%가 ‘동족’으로, 34.0%가 ‘민족과 상관없음’이라고 답했으며,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에 대한 질문에는 ‘동족’을 59.9%, ‘민족과 상관없음’을 36.4%로 꼽았다. 박영균,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건국대 통일인문학 연구단 제 9회 공동 국내심포지엄 자료집, 2011, 76쪽.

14)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민족 정체성은 인종적, 역사적, 문화적 범주에서 ‘조상 대대로 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충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통일문제 연구 제 14권 제 2호, 2002, 37쪽.

각인되어 전승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2) 고려인의 신체에 각인된 민족정체성: 혈연과 문화

표3. “민족적 정체성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가?” 단위(%)

	전체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혈연	30.4	31.8	16.7	14.8	15.0	34.2	15.8	32.7	36.4	18.9	34.6	31.4
문화	33.1	34.1	23.3	44.4	25.0	33.5	47.4	38.2	33.8	37.7	32.7	21.4
역사	4.3	4.4	3.3	3.7	5.0	3.9		9.1	3.9	5.7	1.9	2.9
생활풍속	15.0	14.5	20.0	18.5	20.0	14.0	10.5	5.5	14.3	17.0	25.0	15.7
언어	8.0	6.4	23.3	7.4	22.5	5.8	5.3	5.5	3.9	11.3	1.9	17.1
중복응답	9.2	8.8	13.3	11.1	12.5	8.6	21.1	9.1	7.8	9.4	3.8	11.4

표3을 살펴보면 혈연, 문화, 역사, 생활풍속, 언어와 같은 요소들은 분명 신체에 각인되어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화’(33.1%)과 ‘혈연’(30.4%)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반면 ‘언어’와 ‘역사’는 단지 각각 8%와 4.3%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신체적 정체성이 고난과 적응이라는 경험을 통해 신체에 각인된 민족적 공통요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고려인의 오랜 경험과정 끝에 이어져 온 신체적 정체성은 결국 ‘혈연’과 ‘문화’가 가장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싫든 좋은 내가 한(조선)민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40.8%가 ‘같은 핏줄’이라고 답변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의든 타의든 거주국에서의 동화를 깊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고려인의 처지를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고려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라는 근원적 경험은 그들의 정체성 일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중앙아시아로의 이주에서 고려인이 취할 수 있는 적응방식은 어찌하면 한글과 같은 것을 지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인의 신체에는 민족적 공통요소들 중 언어와 같은 요소들은 각인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바뀐 상황에서도 혈연은 가장 쉽게 신체에 각인될 수 있는 요소였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문화 역시 끊임없이 변용되어가면서 몸과 마음에 각인될 여지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고려인의 신체에 새겨진 정체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민족과의 전면적인 만남과 적극적인 적응을 필요로 했던 중앙아시아 출생의 고려인에게 ‘혈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그에 비해 연해주 14.8%, 사할린 15.0%) 및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문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60대 21.4%, 50대 32.7%, 40대 37.7%, 30대 33.8%, 20대 38.2%, 10대 47.4%)에서도 알 수 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민족 중심의 설문조사는 단순히 ‘한글’이라는 한민족의 ‘기표’만을 가지고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¹⁶⁾ 그것도 단순히 유무관계만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인의 신체적 정체성은 바로 그러한 기표의 유무관계가 아닌 그들의 신체에 각인된 민족적 공통요

15) 이렇게 ‘문화’에 대한 강조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앞서 인지적 정체성과의 연결관계 속에서 파악할 때 보다 이해하기 쉬워진다. 즉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들은 전승된 기억 속의 한반도가 아닌 구체적인 실감으로서 한반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감의 내용이 곧 ‘한반도의 문화’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16) 따라서 언어 사용의 유무만을 가지고 민족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결과일뿐더러 그들의 신체적 정체성을 단순히 언어만으로 축소시키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려인들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과는 달리 민족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조사 결과 러시아 고려인들의 한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와 같은 결론들이 일반적이다. 최영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민족교육의 실태와 지원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31집, 2004, 141쪽.

소가 존재했음 보여주며, 이것들을 끊임없이 변용시키고 전승시켜왔던 사실 역시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의 험난한 역사와 경험 속에서 잃어버렸지만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해 그들의 신체에 깊이 각인되었던 민족적 공통요소는 분명 존재했으며 이것들이 바로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표4. “밥상에 꼭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복을 입는다면 언제인지 모두 표기해주세요”,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① 김치의 필요성		② 한복을 입는 날(중복응답)		③ 관혼상제	
매우 그렇다.	32.5	안 입는다.	57.1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18.4
그렇다.	54.6	특별한 행사	33.1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한다	70.9
아니다.	6.4	명절 때	6.4	그럴 필요가 없다	10.1
상관없다.	6.4	가족모임	2.1	무응답	0.6
		무응답	1.5		
		일상적으로	0.6		

위의 표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김치가 꼭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고려인의 약 87.1%가 ‘있어야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며,(매우 그렇다+그렇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이니까’라고 대답한 21.4%보다 ‘입맛에 맞고 몸에 좋으니까’라는 대답이 도합 42.8%로 더 높게 나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김치의 우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일상적 삶 속에서 신체에 각인된 민족정체성이 있으며, 전승될 수 있었던 요소들이 고려인의 신체적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었다는 증거이다. 즉 고려인은 언어는 그들의 험난한 경험 속에서 비록 잃었지만, 김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유지시켜 왔으며, 또한 의식적으로가 아닌 신체에 새긴 방식으로 전승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복을 입는 날”,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절 쇠는 날”을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분석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한복은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인의 약 41%가 입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사에서 누구나 입어야 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하고 있다. 즉 한복은 민족의식과 연결된 의미를 갖는다고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방식으로 입게 되는 옷을 의미한다. 나아가 관혼상제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반드시+가급적)고 답변한 비율이 89.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 관혼상제가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줄뿐더러 여전히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첫째, 고려인의 신체적 정체성에는 전승되기 힘들었던 ‘언어’가 아닌, 그들의 혹독한 동화과정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 체화된 ‘혈연’과 ‘문화’가 가장 커다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들의 민족정체성은 나름의 영역에서 여전히 유지, 전승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이유는 이것들이 거주국에서의 영향을 가장 덜 받았을 요소들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변용되어 보존될 수 있었던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그와 같은 의미에서 김치, 한복, 관혼상제 역시도 고려인의 신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4.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 민족적 자긍심의 의미

1) 고려인이 느끼는 ‘다름’의 정서

정서적 정체성은 단순히 ‘조국’과 ‘모국’을 떠올리는 정체성 또는 ‘한글’을 쓴다거나 ‘한복’을 입는다는 것과 연결된 정체성은 아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을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또한 신체에 각인된 관습적인 정체성

이 아닌, 심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생기게 되는 결과물이 바로 정서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서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업은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과반수 이상이 거주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여기며 한글과 한복에 대한 이용은 많이 사라진 반면, 그들의 가치관은 주로 민족적 특성을 따르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한민족으로서 높은 긍지를 지니며 살고 있다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한 민족적 긍지에 대한 강조는 어쩌면 본국중심적인 프레임에 갇혀 그들을 우리 멋대로 그려내는 ‘공상’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거주국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체험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감정적 반응과 대응, 나아가 가슴 속으로 체화된 민족적 의식과 감정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서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고정불변한 ‘선체험적-탈경험적’ 요소를 찾는 작업이 아닌, 거주국에서 경험한 차별과 고난 그리고 이에 대한 적응이나 저항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가지게 되는 독특한 ‘후체험적-경험구성적’ 결과물을 찾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서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한반도, 특히 남한과의 동질적 요소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국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은 후에 형성된 정서와 감정의 변화양상 및 특징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인지적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갖는 정서적 정체성은 항상 거주국뿐만 아니라 본국과의 ‘다름’에 대한 정서로부터 시작된다.

표1. “러시아 내의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단위: %)

	전체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항상 느낀다	7.4	8.1		11.1	5.0	7.4		7.3	6.5	7.5	11.5	7.1
가끔 느낀다	50.3	51.0	43.3	37.0	50.0	52.1	47.4	38.2	49.4	50.9	61.5	52.9
느끼지 못한다	42.3	40.9	56.7	51.9	45.0	40.5	52.6	54.5	44.2	41.5	26.9	40.0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에는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 특히 ‘재중 조선족’과 유사하게 ‘다름’에 대한 정서가 존재한다. ‘다름’을 느끼는 정서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인의 고된 3번의 이주경험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다름의 감정은 다른 민족 보다는 커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한 재중 조선족의 답변율이 약 85%라는 점과 비교할 때 고려인의 다름에 대한 느낌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런데 “러시아는 러시아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6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하며, “나는 러시아에서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42%가 ‘있다’고 대답하며(아래 표2참조), “너희 나라로 돌아가와 유사한 소리를 한번쯤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39.9%가 ‘들어본 적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들에게 차별의 경험은 그리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의 경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다름의 느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결과는 자신들의 극복과 저항의 경험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소비에트인으로 성공한 한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민족적 자긍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17) 박영균,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제 9회 공동 국내 심포지엄 자료집, 2011, 65-66쪽. 이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할린 지역은 오히려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느낌: 43.3% vs. 못느낌: 56.7%). 세대별 구분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낮은 세대로 진행할수록 느끼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50대 약 73%, 40대 약 58%, 30대 약 55%, 20대 약 45%, 10대 약 47%)

18) 강제이주로 인해 갑자기 낮은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게 된 고려인에게는 주어진 적응방식이 많지 않았다. 그들은 소비에트의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이고, 성공한 소비에트인이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적응방식이었

즉 고려인은 자신들의 이주의 역사에서 다양한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소수민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다르다는 느낌은 배제와 차별, 억압으로 야기된 상대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며 또한 이민족에 대한 충돌과 배척으로 연결되는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2. “러시아에서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 적이 있다.” (단위: %)

	전체	거주지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있다	42.3	41.6	50.0	44.4	57.5	39.7
없다	55.8	56.8	46.7	55.6	40.0	58.4
무응답	1.8	1.7	3.3		2.5	1.9

1860년대 차별과 배제로부터 시작된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은 1937년 강제이주와 1990년 대 재이주라는 극복과 적응의 경험을 통해 단순한 아픔과 좌절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능동적이고 가치 있는 지향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소수민족으로서 연해주 고려인의 사회적 대우를 묻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러시아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4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¹⁹⁾ 따라서 거주국에서서 극복과 적응의 경험이 만들어낸 감정은 타민족에 대한 차별적이고 상반된 정서가 아니라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평등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거주지와 출생지 구분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답변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제이주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중앙아시아 출생의 한인들이 오히려 차별의 경험이 많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사할린 거주 한인과 사할린 출생 한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차별받아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39.7% vs ‘50%’, ‘57.5%’로 차별받았다는 답변률이 중앙아시아 출생 고려인에게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질문에서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표3. “타민족 사람과 만날 때 내가 고려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까?” (단위: %)

	전체	거주지		출생지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알리고 싶다	69	72.0	40.0	59.3	50.0	73.2
감추고 싶다	0.3	0.3				0.4
상관없다	30.7	27.7	60.0	40.7	50.0	26.5

표3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9%가 ‘알리고 싶다’, 30.7%가 ‘상관없다’, 오직 0.3%만이 ‘감추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다른 여타의 설문조사와 같이 고려인의 ‘자긍심’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나 중앙아시아 출신의 답변율이 다른 지역 출생자들보다(73.2% vs. 59.3%, 50%) 높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 출신 한인들의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경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반으로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이 갖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서는, 고려인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에서 동일하게 내놓고 있듯이 고려인이 갖는 자긍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인이 갖는 정서적 정체성의 특성을 단순히 자긍심에서만 요약할 수 있을까? 이제 고려인이 보여주는 ‘자긍심’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 이윤기, 『연해주와 한민족의 미래』, 오름, 2008, 114쪽 이하.
19) 임채완/전현권,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58쪽

2) 고려인이 보여주는 ‘자긍심’의 의미

표4. “내가 고려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매우 자랑스럽다	21.2	23.3		18.5	5.0	23.7	36.8	9.1	28.6	18.9	26.9	15.7
자랑스럽다	61.3	58.4	90.0	55.6	75.0	59.9	36.8	67.3	57.1	58.5	55.8	74.3
그렇지 않다	3.4	3.7		7.4	2.5	3.1	5.3	3.6	2.6	1.9	5.8	2.9
전혀 그렇지 않다	.3	.3				.4				1.9		
생각해본 적이 없다	13.8	14.2	10.0	18.5	17.5	12.8	21.1	20.0	11.7	18.9	11.5	7.1

“고려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82.5%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질문에 대한 재중 조선족의 답변에선 89.6%가 자랑스럽다고 말한 비율을 고려할 때,²⁰⁾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의 특징을 단순히 ‘자긍심’으로만 요약해선 안 될 듯하다. 왜냐하면 30대를 제외하면 세대가 내려올수록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율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극복과 저항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앞서 얘기한 인지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강조되었던 독특한 ‘고려인’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연결시켜 봐야할 필요성이 생긴다.

표5. “고려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거주지			출생지			연령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우리는 찬란한 문화(한글, 옷, 음식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8	25.2	11.1	25.0	15.6	24.7	28.6	38.1	25.8	26.8	9.3	19.0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66.9	65.3	81.5	70.0	81.3	64.7	57.1	54.8	65.2	65.9	79.1	71.4
월드컵 4강 신화, 한강기적(고도경제성장)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1.1	1.2				1.4		2.4	3.0			
약소민족이지만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5.2	5.0	7.4		3.1	6.0		4.8	4.5	4.9	9.3	4.8

결과만을 놓고 살펴보면,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비율이 23.8%인 반면,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비율이 6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자면 고려인은 ‘문화’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인의 강제이주 이후 그들의 성격적 특징을 말하자면 소비에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다. 이는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의 기본적 특성은 유형의 문화에 대한 강조보다는 그들의 지난한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강한 성실함과 근면함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이러한 강조는 고려인만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극복과 저항의 경험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이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40대 이하 세대로 넘어올수록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찬

20) 박영균,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제 9회 공동 국내 심포지엄 자료집, 2011, 69쪽

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랑스러운지를 묻는 질문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생각해본 적 없다'라는 답변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도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고려인이 느끼는 자긍심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인의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그들의 자긍심은 '성실함'과 '근면함'을 주 내용으로 한다. 1937년의 강제이주를 가장 가깝게 체험했으며, 1990년대의 재이주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50대 이상의 연령대에게 '성실함'과 '근면함'은 어쩌면 그들의 극복과 적응의 경험이 표현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거주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필요했을 성실함과 근면함이 자신들의 자긍심이었을 것이다.

반면 1937년의 강제이주와 1990년대의 재이주 역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을 40대 이하의 연령대에게 자긍심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들은 전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한(조선)민족과 직접적인 마주침을 통해 한(조선)민족과의 문화적 공통성을 자긍심의 추가된 내용으로 삼기 시작한다.²¹⁾ 이러한 경향성은 앞선 2장에서 독특한 '고려인' 정체성을 강조했던 인 지적 정체성의 변화내용과도 연결된다.

다시 말해 재이주 이후 본국과의 필연적인 마주침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한반도와의 연결지점이 커지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그들은 이제 한(조선)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그들의 자긍심의 또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른 세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월드컵과 경제신화'에 대한 답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한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알기 위해 노력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한류열풍 때문에'라는 답변율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²⁾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특징을 갖는다. 첫째,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도 역시나 '다름'의 정서는 존재한다. 둘째, 하지만 이 다름의 정서는 서로 배척하고 충돌하는 정서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은 강한 민족적 자긍심으로 표현될 수 있다. 넷째, 그런데 40대 이하의 연령대로부터 고려인의 자긍심은 그 내용적인 구분에서 따져보면 민족적 성실함과 근면함과 함께 한(조선)민족의 문화에 대한 강조로 추가되기 시작한다. 다섯째, 따라서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의 특징은 강한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조선)민족과의 연결지점에서 발생한 공통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추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5. 통일을 위한 민족적 자긍심의 공유

이렇게 보자면 고려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바로 '민족적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강제이주-재이주를 경험을 통해 고려인들은 독특한 '고려인'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혹독한 거주국에서의 적응과정 속에서도 민족적 공통요소를 잃지 않고 간직했으며, 그것들과 연관해서 적응과 극복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려인의 민족적 자긍심을 이해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한(조선)민족과의 동질성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자긍심이 아니다. 오히려 고려인의 민족적 자긍심은 자기 다른 나라에서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쌓았던 고려인의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그 위에 한(조선)민족과의 구체적인 마주침 속에서 '문화'라고하는 민족정체성의 요소가 추가된 형태의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긍심은 '고려인'의 150여년간의 고된 역사와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배제의 경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극복과 저항의 경험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정을 낳았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근본적인 성격을 찾는 작업에서 우리들은 그들 각각이 모두

21) 이러한 이유는 재이주의 특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연해주 재이주 동기는 크게 네 가지, 즉 거주국의 민족주의문제, 교육문제 및 직업문제, 귀소욕구로 대별할 수 있다. 윤인진 외,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출판부, 2010, 138쪽. 그런데 이중 교육문제와 직업문제는 재이주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의미로서 택한 경우라는 것이다. 이송호 외,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2004, 72쪽. 그

22) "한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알기 위해 노력한 계기는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한류열풍 때문에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답변율은 50대 13.5%, 40대 15.1%, 30대 15.6%, 20대 27.3%, 10대 31.6%로 증가하고 있다.

경험한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억압, 극복과 저항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러한 경험은 긍정적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한 고려인의 민족적 자긍심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준다.

첫째, 고려인이 보여주는 민족적 자긍심으로부터 우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기존의 우리들의 관점을 버리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연대와 유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감정적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미래의 진정한 한반도 통일은 남북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 퍼져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모두를 매개할 수 있는 장소이자 사건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반도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운명공동체(community of fate)’의 역할이 부여된다. 이것은 “서로 이질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로 원하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공통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공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갈등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²³⁾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래의 한(조선)반도 통일은 서로 이질적인 기원들을 갖는 이들의 아픈 경험과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기존의 감정적 토대는 단순히 ‘불쌍하다’와 ‘안타깝다’라는 우월적인 감정이었다. 이럴 경우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고된 경험과 역사만을 경험한 집단으로 규정되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역시도 상대적인 우월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거주국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본국에서의 차별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²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민족적 동질성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위계적인 방식으로 민족적 자존감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조선)민족 전체가 아닌, 지금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민족적 자긍심을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주입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한계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하다. 진정한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대안제는 과도한 민족의식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자제하며, 민족적 동질성을 요구하는 우월적인 모습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평화로운 연대와 소통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모든 민족 구성원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성을 취해야만 한다.

둘째, 고려인의 민족적 자긍심은 그동안 한(조선)민족이 경험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민족적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정서적 토대로서 작동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에는 우선적으로 남북한을 포함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상처들을 어루만져야 한다. 비단 남북한만이 아니라 해외 각지에 퍼져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외세의 지배와 전쟁의 경험이 낳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외세의 지배와 억압, 전쟁과 분단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민족적 트라우마를 남겼을뿐더러, 민족적 패배의식을 각각의 민족구성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놓았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민족적 패배의식이 만든 민족적 자존감의 훼손은 통일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감정적 토대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지속될 수 없을뿐더러 지속시켜서도 안 되는 감정이다. 분명 통일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때만, 따라서 민족적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민족적 자존감을 다시금 재생시킬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물론 민족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특히 남과 북에서 익히 보왔던 방식의 민족적 자존감 회복 노력은 단순히 자신들의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오히려 남은 북에 대한, 북은 남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부터 형성된 대결구도적인 자긍심의 강조가 전부였다. 따라서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각각의 거주국에서 이뤄놓은 민족적 자긍심을 민족구성원 모두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50여년의 고된 역사를 통해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오히려 그러한 아픔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고려인의 민족적 자긍심은 한(조선)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아픔에 대한 커다란 치유력을 보여줄 수 있다.

고려인이 스스로 형성한 정체성과 가치관은 우리가 확인했듯이 능동적, 적극적,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강한 자긍심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고려인에게 찾아볼 수 있었던 민족적 자긍심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기본적 태도로, 나아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고 규정하는 감정적 토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대

23) ‘운명공동체’의 의미는 헤르만 판 귄스텐(Herman. V. Gunsteren)의 개념으로부터 차용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택광 외, 『무엇이 정의인가』, 마티, 2011, 237쪽에서 인용.

24) 남한에서의 차별에 대한 경험과 내용을 묻는 질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가 31.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부터 비로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진정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 마치며: 연구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것들의 각기 다른 특징을 짚막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려인의 인지적 정체성에서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vs. ‘민족’이라는 이중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젊은 연령대에게서는 러시아인과는 다르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과는 ‘같지만 다른’ 독특한 ‘고려인’ 정체성이 인지적 정체성의 틈새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전승된 기억 속의 근원적 고향으로서가 아닌 구체적인 실감으로서 한(조선)반도를 재접촉한 고려인들이 이 연결고리로부터 만들어낸 정체성이다.

고려인의 신체적 정체성에는 ‘언어’와 같이 그들의 이주 경험 속에서 전승될 수 없었던 요소가 아닌, 일상적 삶에서의 신체적 각인을 통해 전승될 수 있었던 ‘혈연’과 ‘문화’가 가장 커다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민족정체성은 나름의 영역에서 여전히 유지, 전승되고 있다. 다만 고려인의 신체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존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었던 요소들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은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마찬가지로 ‘다름’의 정서로부터 출발한다. 다만 이 다름의 정서는 서로 배척하고 충돌하는 정서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의 정서적 정체성의 특징은 강한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조선)민족과의 다양한 미주침에서 발생한 민족의 문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민족공통성을 연구하는 기본적 인식틀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차이들을 이질성의 틀로서 거부하지 않고 코리안의 공통성으로 포괄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단순히 혈연, 언어, 가치, 소속감, 민족관, 생활양식, 풍속 등의 요소를 통해 한(조선)반도와의 동질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겪었던 문화적 변용을 한민족이 갖는 공통적 요소와 자산으로 흡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때,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을 인지적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과 같이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단순한 동질성의 측정을 넘어서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 고려인이 자신의 역사와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낸 다양한 정체성의 변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며, 둘째,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동질성의 측정방식을 벗어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의 민족적 공통성을 찾는 작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글의 의미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 한(조선)민족 각각의 구성원들이 보여준 다양한 문화적 변용과 경험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민족에 대한 ‘본질주의적 패러다임’과 ‘남한중심적인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그들 나름의 정체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코리안 디아스포라 각각의 정체성을 한(조선)민족의 ‘민족공통성’으로 연결시키고 접합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글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인 재러 고려인은 연해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출생자는 27명, 사할린 출생자 40명에 불과하며 다수인 257명이 중앙아시아 출생자라는 점, 또한 거주지 균형과 연령별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²⁵⁾ 또한 북한 지역 출생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 연해주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연해주로 귀환한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에 이 설문조사의 전체적인 결과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의 답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고려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 글은 정확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는 주장을 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또한 실증적 조사를 기초로 하곤 있지만 어느 정도 이론적 가설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1차 설문조사를 토대로 2차 심층면담조사가 이루어져야 보다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

25) 특히나 설문조사에 반영된 사할린 거주 한인의 표본수 30명에 불과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사할린 한인동포는 식민지 체제와 냉전 체제의 역사적 결과로 생긴 특수한 정치사회적 현실의 산물이다.” 김성중,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0집, 2006

다. 앞으로 제 2차 심층면담조사와 다른 지역 코리안 디아스포라와의 비교분석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윤기 외, 『연해주와 한민족의 미래』, 오름, 2008
윤인진 외,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출판부, 2010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이송호 외,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2004
김계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임채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이택광 외, 『무엇이 정의인가』, 마티, 2011

2. 논문

-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통일문제연구 제 14권 제 2호, 2002, 37쪽
정진아, 「연해주 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연구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민족연구 제 38집, 2011
조정남, 「북한의 사할린 한인 정책」, 민족연구 제8호, 2002
심현용, 「고려인의 신이주와 NGO의 역할- 연해주와 블고그라드-」,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1집, 2007
김성중,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0집, 2006
박영균,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제 9회 공동 국내심포지엄 자료집, 2011
김인성, 「러시아 한인사회를 통해 본 러시아정부의 다문화정책」, 한국민족연구논집 43권, 2010
최영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민족교육의 실태와 지원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31집, 2004

재일조선인의 민족정체성과 경계인

김익현(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들어가며: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와 재일조선인 설문조사

본 논문은 통일인문학연구원 민족공통성연구프로젝트 수행 결과들 중의 하나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설문조사는, 2011년 3월, 일본 현지를 방문해 설문조사 파트너를 알아보고, 현지 재일조선인과 설문조사 진행 방법, 설문지 문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했으며, 동년 8월~9월, 일본 현지 조사 파트너와 설문지 문항, 조사 방법 등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동년 10월~12월, 일본 현지에서 일본 소재 재일조선인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NGO센터’ 도쿄 사무국 김봉양 사무국장이 10여 명의 조사인력과 함께 진행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주로 도쿄,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 중 1945년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올드 커머’(old comer)와 그 후손들, 316명이다. 설문조사는 가능한 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되었다. 316명 중 293명은 직접 대면 조사를 했고 23명은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보내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회수한 316부의 설문지 중 2부는 자료분석의 대상으로 문제가 있어 314부만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표1 주요 분석 변수

출생지	전체	나이	전체	국적	전체	민족학교경험	전체
일본	93.0	10대	7.0	한국	80.6	경험 있음	33.4
한국	5.1	20대	17.8	조선	8.0	경험 없음	65.6
식민지조선	1.3	30대	22.6	일본	11.1	무응답	1.0
무응답	0.6	40대	19.1	무응답	0.3		
		50대	12.4				
		60대 이상	20.4				
		무응답	0.6				

표1에서 보듯, 설문자료 분석시 출생지, 나이, 국적, 민족학교 경험 등을 주요 분석 변수로 사용했다. 이는 주요 분석 변수들에 따라 재일조선인의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과값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별, 학력, 직업, 세대, 거주지역, 결혼유무, 가족형태, 가족구성, 거주기간,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은 의미 있는 결과값이나 추세를 드러내지 못해 분석 변수에서 제외시켰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그 동안 통일인문학연구원에서 논의된 다양한 주제, 즉 차이와 공통성, 분단트라우마, 분단의 이비투스, 민족공통성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려는 데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과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괄하는 통일론을 정립하려는 데 있다.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 전치사 dia(=over)와 동사 spero(=to sow)를 어원으로 하는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흩어짐, 즉 이산, 특히 민족 이산을 뜻하는 용어다.¹⁾ 따라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분산을 뜻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의 핵심쟁점은 디아스포라를 혈통과 문화적 동질성을 근거로 같은 민족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혼종성, 잡종성을 근거로 민족 간 경계를 허무는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전자는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본질주의적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해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입장 모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전자는 거주국의 사회, 정치적 환경에 제약을 받아 관습, 언어 그리고 혈연 등의 전통적 민족정체성의 지표라 할만 것들을 일정부분 변용시키고 재구성해온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후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특수성, 이를테면 민족적 상처를 과소평가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 대 탈민족, 본질

1)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5쪽.

주의 대 해체주의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두 가치를 함께 사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다양하게 변용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다중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변용된 형태로 민족정체성은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는 작업이 유효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괄하는 새로운 통일론 정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일조선인²⁾의 민족정체성이 어떻게 변용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인지적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 정서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지적 정체성 – 경계인으로서의 재일조선인

1) 조국과 모국 –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인지적 정체성은 상징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 구성원들의 신체에 आरो새겨지는 것이다.³⁾ 그렇지만 개인은 국가의 상징체계 속으로 전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자기 나름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재중조선족이건 재러고려인이건 모든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조국과 모국이 다른 이중정체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의 경우는 다른 점이 있다. 물론 재일조선인 젊은 세대의 경우도 8-90%는 일본학교에 다니면서 국가적 기획 하에서 일본 국민으로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제도 교육의 장에서 일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 후 재일조선인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 스스로가 재일조선인 혹은 재일한국인임을 의식하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렇게 정체성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은 거주국의 상징자본에 의해 형성된 인지적 정체성으로부터 빠져나와 그것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의 경우에는 민족정체성이 국가정체성을 밀어내면서 조국과 모국이 일치하게 된다.

여기서 잠시 조국과 모국의 구분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조국과 모국은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일치하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국과 모국이 구분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그 구분이 그것이 사용되는 사회의 언어 의미체계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조국이나 모국을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 이유를 물어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체계 내에서 조국과 모국 개념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설문에서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물었으며, 모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물었다.

표1 내 조국/모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국가	조국	모국
일본	16.9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1	2.5
대한민국	22.3	40.4
조선반도	29.9	43.9
일본과 조선반도	20.4	8.0
중복응답	5.4	1.3
무응답	1.0	0.6

2) 오늘날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구식민지 출신자들의 후손들이다.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해 우리 민족은 모두 일본에 편입되어 일본국적자가 되었다. 해방 후 재일동포는 일본국적이면서 외국인이라는 모호한 상태로 방치되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주권을 회복한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일본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미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동포는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적었다. 아마도 여기서 조선은 남북 어느 국가가 아니라 조선반도 출신이고 조선민족의 일원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 후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국적을 한국으로 고친 사람이 늘면서 현재 조선적은 한국적의 약 1/10 정도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약 30만명 정도가 귀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피에르 부르디외, 『실천이성』, 김용권 옮김, 동문선, 118-119쪽.

그 결과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재중조선족의 경우, 조국이 중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91.9%, 한반도 관련 장소라고 답한 비율이 8.1%였고, 모국이 중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24.9%, 한반도 관련 장소(북조선 36.0%, 한반도 23.9%, 남한 8.8%, 중국과 한반도 2.4%)라고 답한 비율이 75.1%였다. 이에 비해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재일조선인의 경우, 조국이 일본이라고 답한 비율이 16.9%, 한반도 관련 장소라고 답한 비율이 83.1%였고, 모국이 일본이라고 답한 비율이 3.2%, 한반도 관련 장소라고 답한 비율이 96.8%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중조선족의 경우는 조국(국가정체성)과 모국(민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지만, 재일조선인의 경우 조국과 모국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해 재중조선족과 재일조선인 각각의 ‘조국 선택 이유’와 ‘모국 선택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중조선족의 경우, 조국 선택 이유에 대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가 58.9%,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가 14.5%인 반면, 모국 선택 이유에 대해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가 61.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재중조선족은 조국이라는 개념을 ‘태어나 살고 있는 곳’ native place의 의미로, 모국이라는 개념을 ‘조상들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⁴⁾

그러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재일조선인의 경우는 조국 선택 이유에 대해 ‘내 선조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가 39.2%, 모국 선택 이유에 대해서도 ‘내 선조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가 67.5%로, 조국과 모국 모두 선택이유로 ‘내 선조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일조선인의 경우, 조국과 모국이 일치하고 선택이유도 일치한다. 그만큼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상징자본에 의해 형성된 인지적 정체성, 즉 국가정체성에 대해 저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조국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

조국선택이유	전체	조국선택				
		일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조선반도	일본과 조선반도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15.6	60.4		11.4	2.1	10.9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4.1	18.9				3.1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39.2		30.8	62.9	69.1	12.5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20.4	7.5	53.8	17.1	20.2	31.3
나를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1.3	5.7				1.6
중복응답	16.9	7.5	15.4	7.1	6.4	39.1
무응답	2.5			1.4	2.1	1.6

그러나 일본이 조국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경우는 조국과 모국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일본이 조국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 64.2%가 대한민국, 18.9%가 조선반도, 9.4%가 ‘일본과 조선반도’를 모국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불과 5.7%만이 일본을 모국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조국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답한 이유를 물었더니 60.4%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18.9%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라고 답하고 있고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비율은 0%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태어나 살고 있는 곳’을 조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일본이 조국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경우, 조국과 모국, 즉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대한민국과 조선반도를 조국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의 경우, 대한민국과 조선반도를 모국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각각 85.7%와 87.2%로, 조국과 모국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재일조선인의 경우, 조국과 모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재중조선족과는 달리 조국을 국가정체성을 알아보는 지표로, 모국을 민족정체성을 알아보는 지표로 간주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4) 박영균, 「재중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심리적 토양」, 통일인문학연구단 제9회 국내심포지엄 자료집, 2011.

그래서 재일조선인의 경우는 국적과 조국/모국의 상관관계 속에서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재일조선인에게서는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불일치,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약한 국가정체성과 강한 민족정체성의 불일치, 즉 이중정체성이 나타난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재일조선인은 국적에 따라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 조선적을 가진 조선인, 일본국적을 가진 일본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선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북조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적이라고 한국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한국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국적을 택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역시 기본적으로는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로부터 벗어나 일본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시민으로서 누릴 것은 누리자는 의도에서 귀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일조선인에게 국적은 그렇게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표3 국적별 조국/모국 선택

조국선택	국 적				국 적		
	한국	조선	일본	모국선택	한국	조선	일본
일본	15.4		40.0		3.2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8	24.0			1.6	12.0	2.9
대한민국	24.5	8.0	17.1		45.1	4.0	34.3
조선반도	30.8	52.0	5.7		42.7	72.0	31.4
일본과 조선반도	20.6	8.0	28.6		6.3	4.0	22.9

그러나 재일조선인의 경우 국가정체성에 비해서 민족정체성은 대단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재일조선인은 조국이든 모국이든 조선반도를 선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표3에서 보듯, 국적으로 한국, 조선, 일본 중 어디를 선택했든 조국과 모국으로 조선반도를 선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를테면, 한국국적의 경우, 자신의 조국으로 조선반도를 택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고 조선적의 경우도 조선반도를 택한 비율이 52.0%로 가장 높다. 일본국적의 경우 조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고, 조선반도가 5.7%로 가장 낮지만, 일본과 조선반도 28.8%를 더할 경우 34.5%에 달한다.

또한 모국선택의 경우에도, 한국국적자는 모국으로 대한민국 45.1%에 이어 조선반도 42.7%를 선택하고 있지만, 일본과 조선반도 6.3%를 더할 경우 49%에 달하며, 조선적자는 조선반도 72.0%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고, 일본국적자는 대한민국 34.3%에 이어 조선반도 31.4%를 선택하고 있지만, 일본과 조선반도 22.9%를 더할 경우 54.3%에 달한다.

이는 재일조선인이 국적이 무엇이든 분단된 조국이나 모국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 된 조국이나 모국에의 강한 귀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에게 조선반도는 분단되기 전의 온전한 과거의 나라이자 또한 상상 속의 미래의 통일 한반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국이나 모국을 조선반도, 즉 상상 속의 하나 된 조선으로 삼는 것은 거주국과 국적 그리고 조국-모국이 분단된 데서 오는 스스로의 정체성 균열을 메우고 심리적 당혹감을 해소하는 하나의 심리적 해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강한 민족정체성은 재일조선인이 조국/모국 선택의 이유로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39.8/68.4%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자신의 종족적 뿌리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첫째 재일조선인의 경우 조국과 모국이 일치하는 것은 일본의 상징자본에 의해 형성된 인지적 정체성에 대해 민족정체성이 강력하게 저항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국과 모국으로 조선반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어느 한 쪽이 아니라 통일 한반도를 조국/모국으로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계인과 호칭

재일조선인의 경계인으로서의 특성은 그들의 약한 국가정체성에서 잘 나타난다. 약한 국가정체성으로 인해 그들은 일본이든 대한민국이든 북조선이든 어느 특정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적이든 조선적이든 일본국적이든 그들에게 국적은 삶의 편의성 때문에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조국과 모국 선택에 있어서도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조선반도’, ‘일본과 조선반도’를 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와 ‘일본과 조선반도’를 조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50.3%, 모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51.9%이다.

특히 조국으로 ‘일본과 조선반도’를 선택한 비율이 20.4%에 달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일본의 머저리티와 더불어 살면서도 완전히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뿌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경계인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과 조선반도’가 조국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그렇게 답한 이유에 대해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31.3% 선택하고 있다. 내 정신과 문화를 일본과 조선반도 어느 한 쪽에 귀속시키지 않는 그들의 경계인으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경식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재일조선인이 왜 경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재일조선인을,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적 결과로 구종주국인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이라고 규정한다. 재일조선인이 ① 에스니시티 일반과는 달리, 본국을 가진 정주외국인이라는 점, ② 이민과 그 자손 일반과는 달리, 그 정주지가 다름 아닌 구종주국이라는 점, 이 두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다. 덧붙여 재일조선인은 ③본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④그 본국(특히 북한)과 일본이 분단되어 있는, 횡적으로도 종적으로도 분단된 존재이며, 그러한 분단선을 개개인의 내부에까지 보듬어 안아야 했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이렇게 ‘횡적으로도 종적으로도 분단된 존재’, 어느 한 쪽에 귀속될 수 없는 경제적 존재이기에 재일조선인은 어느 국가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차별과 배제 및 기민의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경계인이기에 재일조선인은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폭력에 대해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으며, 국가와 민족의 어긋남을 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자신의 속한 집단의 호칭과 관련하여 재일조선인의 경계인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자.

표4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호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호칭	
재일조선인	26.1
재일한국인	43.3
한민족	2.2
조선민족	3.5
조선인	1.9
한국인	3.2

표4를 보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호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3.3%가 ‘재일한국인’, 26.1%가 ‘재일조선인’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호칭을 ‘재일조선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39.0%가 ‘조선반도의 민족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25.6%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를 택하고 있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호칭을 ‘재일한국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48.5%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18.4%가 ‘나는 일본인파도 조선반도에서 사는 사람들과도 정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라고 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재일조선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이라는 명칭이 지닌 차별과 편견의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민족적 귀속감을 가지고 있기에

5)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옮김, 돌베개, 2006, 150쪽.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호칭으로 재일조선인을 선택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강한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저항적 경계인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일한국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호칭이 일본 사회에서 갖는 차별과 배제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단순히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이너리티로서, 그리고 일본인과의 조선훈도에 사는 사람들과도 정서적으로 다른 경계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일조선인’은 역사성과 차별에 대한 저항성이 깃들어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고 ‘재일한국인’은 ‘일본 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 바람⁶⁾이 깃들어 있는 단순히 일본에 사는 마이너리티라는 의미가 강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자료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 민족학교 경험 유·무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44.8%가 재일조선인을, 26.7%가 재일한국인을, 민족학교 경험이 없는 경우 52.4%가 재일한국인을, 17.0%가 재일조선인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민족학교에서의 민족사 교육, 민족주체성 교육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국을 조선훈도라고 한 사람의 경우 자기가 속한 집단의 호칭으로 ‘재일조선인’ 45.7%을, 모국을 조선훈도라고 한 사람의 경우, ‘재일조선인’ 39.1%을 1위로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학교 경험과 더불어 민족적 귀속의식이 강할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호칭으로 재일조선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첫째, 약한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재일조선인은 어느 국가에도 강한 귀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계인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둘째,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호칭으로 ‘재일한국인’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3. 신체적 정체성: 언어, 생활풍습, 그리고 일상의 삶

민족정체성은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 구성원들에게는 국적이 무엇으로 인지되든, 타민족과 다르다고 느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지적으로 확인되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공통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신체와 마음속에 각인되어 파편화된 형태로나마 일상 언어나 생활풍습의 형태로 일상적인 삶 속에 끼어든다.

표5 싫든 좋든 스스로를 조선민족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체	나 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314	22	56	71	60	39	64
정서적인 공감대	15.9	9.1	12.5	22.5	16.7	10.3	17.2
같은 언어	7.6	31.8	3.6	2.8	6.7	7.7	9.4
비슷한 생활풍습	19.1	22.7	28.6	15.5	15.0	20.5	17.2
타민족과 의 만남을 통해 차이를 느껴서	8.9	9.1	10.7	16.9	5.0		4.7
같은 핏줄	21.0	13.6	14.3	14.1	33.3	25.6	23.4
비슷한 사고방식에서	4.8	4.5	3.6	5.6	6.7	5.1	3.1
중복응답	16.9	4.5	19.6	16.9	15.0	15.4	21.9
무응답	5.7	4.5	7.1	5.6	1.7	15.4	3.1

표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싫든 좋든 스스로를 조선민족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재일조선인은 21.0%가 ‘같은 핏줄’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고 그 뒤를 ‘비슷한 생활풍습’ 19.1%, ‘정서적인 공감대’ 15.9%가 있고 있다. 언어나 생활풍습 같은 생활문화적 요소보다 핏줄 같은 자연적 요소가 민족정체성 형성에

6)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옮김, 돌베개, 2006, 119쪽.

있어서 다른 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같은 핏줄’ 이외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생활문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생활문화적 요소가 자연적 요소보다 더 중시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것을 연령별로 좀 더 분석해 보면, 40대 이후에서는 핏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40대 이전에서는 핏줄이 비중이 낮게 나타나며, 생활문화적 요소들 사이에서도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싫든 좋든 스스로를 조선민족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40-60대의 경우, 같은 핏줄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40대 33.3%, 50대 25.6%, 60대이상 23.4%), 그 비율이 10-30대(10대 13.6%, 20대 14.3%, 30대 1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때 40-60대의 경우, 혈연적 정체성이 재일조선인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40-60대의 경우, 그만큼 핏줄로 인한 민족적 차별이 일본 사회로부터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대해 10-30대의 경우, 같은 핏줄을 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10대의 경우 ‘같은 언어’ 31.8%, 20대의 경우 ‘비슷한 생활풍습’ 28.6%, 30대의 경우 ‘정서적인 공감대’ 22.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10-30대의 경우, 핏줄 같은 자연적 요소보다는 언어, 생활풍습, 정서 같은 문화적 요소가 민족정체성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90년대 이후로 재일조선인들 사이의 결혼이 10%에 불과하고 일본인들과의 결혼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핏줄의 섞임으로 혈연적 민족개념은 점차 약화되고 문화적 민족개념이 재일조선인 젊은이들 사이에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6 한복/김치/관혼상제/부모공양/부모공양의 책임

한복		김치		관혼상제		부모 봉양		부모 봉양의 책임	
안 입는다	47.1	매우 그렇다	12.7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3.2	매우 그렇다	10.5	자녀	62.4
특별한 행사	41.7	그렇다	24.2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한다	61.6	그렇다	58.9	국가	5.4
무응답	6.1	아니다	40.8	그럴 필요가 없다	34.1	그렇지 않다	29.0	사회	20.7
일상적으로	3.3	상관없음	21.0	중복응답	0.3	중복응답	0.3	중복응답	9.6
추석/설날	1.9	중복응답		무응답	1.3	무응답	1.3	무응답	1.9
가족모임	1.0	무응답	1.3						

표6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중에 자신의 신체에 각인되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몇 가지 것들을 살펴 본 것이다. 한복을 입는 날을 묻는 질문에 41.7%가 특별한 행사에 한복을 입는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한복을 입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행사에서 누구나 입어야 하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24.5%)이 가장 높았다. 즉 재일조선인중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특별한 행사 때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복을 입는 것이다.

‘밥상에 꼭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36.9%(‘매우 그렇다’12.7%+‘그렇다’24.2%)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그리고 ‘밥상에 꼭 김치가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위가 ‘맛있어서’33.6%, 2위가 ‘입맛에 맞으니까’32.8%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맛있는 것도 입맛에 맞으니까 맛있는 것이므로 66.4%라는 수치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체에 체화된 신체적 정체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다.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64.3%(‘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3.2% +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한다’ 61.1%)가 관혼상제의 전통풍속을 지켜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부모를 꼭 자녀가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9.4%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으며, 부모봉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2.4%에 달하고 있다. 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에서 부모봉양을 중시하고 그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한민족이 중요시해 온 효 관념이 재일조선인의 삶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복, 김치, 관혼상제, 부모공양 및 그 책임 등과 같은 생활-문화적 요소들은 일상적 삶 속에 녹아들어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신체에 각인되어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7 집에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전체	나 이						민족학교 경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험있음	경험없음
조선어	1.9	9.1	1.8	1.4	3.3			1.0	2.4
일본어	81.2	59.1	92.9	84.5	81.7	89.7	70.3	73.3	85.0
섞어 쓴다	15.6	31.8	5.4	14.1	13.0	10.3	23.4	25.7	10.7

그런데 일상적인 삶을 통해 형성되는 민족정체성은 삶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변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재일조선인은 전체적으로 81.2%가 일본어, 15.6%가 ‘섞어서 쓴다’를 선택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일본의 동화정책과 민족학교의 쇠퇴의 영향으로 그리고 마이너리티로서 주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술적 차원⁷⁾에서라도 일본어 사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그리고 민족학교 경험 유무에 따라 민족정체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10대 31.8%와 60대 23.4%의 ‘섞어 쓴다’의 비율이 20대-50대(5-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50대는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일본어의 전면적 사용이 불가피했겠지만, 10대와 60대는 사회활동보다는 가족이나 같은 민족의 친한 친구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민족학교 유경험자의 ‘섞어 쓴다’ 25.7%가 민족학교 무경험자의 ‘섞어 쓴다’ 10.7%보다 높다. 이것은 민족학교에서 조선어로 이루어진 교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연령별로 그리고 민족교육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민족정체성은 변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정체성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확인될 수 없으며, 삶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중층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사회 환경의 변화가 민족정체성의 해체를 낳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문화접촉과 변용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유대 혹은 민족적 귀속감은 끊임없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첫째, 신체적 정체성은 한복, 김치, 부모봉양 등의 생활문화적 요소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신체에 체화된 것으로 민족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 삶 속에서 형성되는 신체적 정체성은 삶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변용될 수 있으며 언어가 민족정체성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4. 정서적 정체성

1) 수동적 정서와 능동적 정서정서적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타민족과 ‘다르다’는 느낌을 전제로 한다. 재일조선인의 경우, ‘일본 내 기타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항상 느낀다’가 22.3%, ‘가끔 느낀다’가 61.3%, 따라서 둘을 합할 경우 ‘느낀다’가 83.6%에 달한다. 이 결과를 조국선택이나 모국선택과 교차분석해보면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된다.

7) 김태영, 『저항과 극복의 갈림길』, 강석진 옮김, 지식산업사, 2005, 181-2쪽.

표8 일본 내 기타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가?

선택	전체	조국 선택					모국 선택				
		일본	북조선	한국	조선반도	일본과 조선반도	일본	북조선	한국	조선반도	일본과 조선반도
항상 느낀다	22.3	5.7	46.2	21.4	36.2	15.6	40.0	12.5	18.1	26.1	16.0
가끔 느낀다	61.3	50.9	53.8	55.7	58.5	73.4	40.0	87.5	56.7	65.2	60.0
느끼지 못한다	16.2	43.3		22.9	4.3	10.9	20.0		25.2	8.0	24.0
무응답	0.3				1.1					0.7	

이를테면, 조국/모국을 조선반도라고 답한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 혹은 일본과 조선반도라고 답한 사람들보다 다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⁸⁾ 조국을 조선반도라고 답한 사람들의 94.7%가 모국을 조선반도라고 답한 사람들의 91.3%가 다름을 느끼고 있었다. 조국이나 모국을 인지적으로 조선반도라고 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름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은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는 상상 속의 미래 통일반도를 진정한 조국/모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민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정서적으로 더 예민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을 조국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56.6%, 일본을 모국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80%가 다름을 ‘느낀다’(항상+가끔)고 답한 것은 인지적으로 조국이나 모국을 일본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일본과 더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지적 정체성의 수준에서는 자각되지 않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서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다름에 대한 느낌은 두 가지 정서, 즉 수동적 정서와 능동적 정서로 전화될 수 있다. 수동적 정서는 다른 집단과 다르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타자로부터의 차별, 소외, 무관심을 통해 체험하는 정서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타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섭섭함 등으로 나타나며, 기쁨보다는 슬픔을 동반한다. 이에 비해 능동적 정서는 다름을 자신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체험하는 정서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긍심, 당당함, 용기 등으로 나타나며, 기쁨을 동반한다. 그럼 재일조선인은 다름을 어떻게 체험하는 것일까?

표9 차별의 경험과 그 내용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 적이 있다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면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무엇인가	남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남한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다른 민족에 비해 일본인에게 부정적 감정이 있는가		
			있다	없다	무관심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있다	70.7	민족적 편견과 무시	52.7	있다	38.9	무관심	9.8	매우 그렇다	11.5
없다	27.7	취업과 임금 등 경제적 차별	21.2	없다	60.2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37.4	약간 그렇다	32.8
중복응답	0.6	정치적 권리의 제약	10.4	무응답	1.0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	1.6	그렇지 않다	33.4
무응답	1.0	문화적 우월주의와 갈등	2.7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태도	30.9	전혀 그렇지 않다	19.7
		중복응답	9.5			기타	5.7	중복응답	0.3
		무응답	3.6			중복응답	13.0	무응답	2.2
						무응답	1.6		

8) 조국/모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사례수가 너무 적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의 표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70.7%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면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52.7%이 ‘민족적 편견과 무시’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 자료를 보면, 재일조선인의 일본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았고 차별과 배제가 매우 심각했으며 그 차별과 배제가 민족적 차원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학교 경험 있는 사람의 경우 76.2%,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68.8%가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다 차별에 더 예민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족학교 경험이 있든 없든 다수의 재일조선인이 차별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수동적 정서를 유발시킨다. 이는 ‘다른 민족에 비해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3.3%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

또한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재일조선인은 차별, 소외, 무관심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러한 체험 ‘없다’가 60.2%로 많지만 그러한 체험 ‘있다’가 38.9%로 10명중 4명이 차별을 체험했다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그리고 차별의 내용으로 1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37.4%, 2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태도’30.9%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는 같은 민족임에도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라는 수동적 정서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재일조선인은 이중으로 다시 말해 일본인으로부터도 같은 민족인 남한사람으로부터도 차별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의 차별은 그들만의 독특한 민족정체성 형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2) 능동적 정서와 문화적 자긍심

재일조선인이 일본과 남한으로부터의 차별, 소외, 무관심을 통해 다름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고 그러한 체험이 여러 가지 수동적 정서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재일조선인이 전적으로 수동적 정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표10 조선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전체	민족학교경험		자신의 민족 호칭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매우 자랑스럽다	13.1	17.1	11.2	17.1	12.5
자랑스럽다	49.7	60.0	44.2	53.7	43.4
그렇지 않다	7.3	3.8	9.2	6.1	8.1
전혀 그렇지 않다	1.6	1.0	1.9	1.2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2.9	15.2	26.7	15.9	32.4
중복응답	1.3	1.0	1.5		1.5
무응답	4.1	1.9	5.3	6.1	2.2

표10에서 보듯, ‘조선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자랑스럽다’가 62.8% (‘매우 자랑스럽다’13.1% 포함), ‘그렇지 않다’가 8.9%(전혀 그렇지 않다1.6% 포함)로 자신이 귀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긍심은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수치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조선인이라는 것이 천형처럼 느껴졌을 식민지 종주국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차별과 멸시를 감안하면 낮은 수치라고만 볼 수는 없다. 어쨌든 이러한 자긍심은 민족학교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55.4%에 비해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7.1%에게서, 그리고 조국/모국을 일본34%/40%, 대한민국 58.5%/55.1%, 일본과 조선반도60.9%/52%라고 답한 사람에 비해 조선반도라고 답한 사람75.5%/71.7%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집단호칭을 ‘재일한국인’이라고 한 사람55.9%에 비해 ‘재일조선인’이라고 한 사람70.8%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민족학교에서의 주체적 민족의식 교육이 정서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의 비율이 22.9%로 상당히 높다

는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의 기표인 ‘조선인’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설문대상자의 62.8%가 자랑스럽다고 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긍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다. 55.1%가 ‘우리는 찬란한 문화(한글, 옷, 음식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28.3%가 ‘약소민족이지만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재일조선인의 자긍심의 원천이 민족문화이며 그들의 자긍심이 문화적 자긍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민족적 정체성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30.3%가 언어를, 17.2%가 혈연을, 14.6%가 생활풍속이라고 답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각과 아쉬움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10대의 45.5%가 언어라고 답함으로써 평균치를 높이고 있는데 아마도 설문대상자들 중 10대의 민족학교경험이 59.1%로 그 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혈연의 비율이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비해 높고 생활풍속이 낮은 이유는 일본 정부에 의한 문화말살정책의 영향으로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혈연 밖에 없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수가 26밖에 안 되지만,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의 경우, ‘조선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 30.8%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기 때문에’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찬란한 민족문화에 기인하는 문화적 자긍심은 강하지만, 분단을 민족의 수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자긍심은 민족의 정서적 정체성 구성의 주요요인일 뿐만 아니라 타민족과의 관계에서 능동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실제로 ‘타민족 사람과 만날 때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72.9%가 ‘알리고 싶다’(감추고 싶다 4.7%, ‘상관없다’ 18.8%)고 답하고 있다. 어쨌든 재일조선인의 정서적 정체성에는 수동적인 요소와 능동적인 요소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적 요소와 능동적 요소 모두 강한 민족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일본과 남한으로부터의 차별, 소외, 무관심은 부정적 감정이나 섭섭함과 같은 수동적 정서를 유발시킨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은 그러한 수동적 정서에 머물지 않고 한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 즉 문화적 자긍심에서 출발하는 능동적 정서를 통해 수동적 정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동적 정서는 한민족의 문화를 다른 민족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게끔 함으로써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5. 정체성의 다중적 분화과 고통의 연대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은 한반도의 분단, 한반도(남과 북)와의 관계, 한반도와 거주국 일본과의 관계, 일본 사회의 차별과 배제 및 동화의 영향으로 다중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를테면 한반도 지향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통일조선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으며,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국국적 혹은 조선적을 지닌 채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재일지향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일본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일본인들이 누리는 지위와 권리를 향유하려는 일본지향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다중적 성격은 탈민족, 탈정체성의 징표로 간주될 수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재일조선인은 정체성의 다중적 분화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배제 및 동화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생기는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차별과 고통으로부터 생기는 강한 민족정체성은 재일조선인만의 특징은 아니다. 모든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차별과 고통 속에서 거주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전술적 필요성에 따라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변용시켜 나간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은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차별과 배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 사람들이다. 그들의 거주국은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단일민족 신화로 무장한 식민지 종주국 일본이 아닌가? 재일조선인의 강한 민족정체성도 결국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차별과 고통에 대한 역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차별과 고통으로 벗어날 것인가?

서경식의 다음과 같은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 국적을 가진 내가 이 책에서 ‘조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셨기 때문이고 일본인들이 그 말을 가장 차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단된 두 ‘국가’의 어느 한 쪽이 아닌, 분단을 넘어선 하나의 ‘민족’에 속하는 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민족’은 ‘혈통’이나 ‘문화’나 ‘민족혼’처럼 소위 ‘민족성’이라는 실체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민족’은 고통과 고뇌를 공유하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지향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나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민족성’이라는 관념에서가 아니라 역사와 정치상황이라는 하부구조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⁹⁾ 서경식의 논지는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식민과 분단의 상처와 고통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들 사이의 상호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수용하면서 식민과 분단이 가져다준 상처와 고통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표11 일제가 남긴 상처와 문제 그리고 일제에 대한 생각

역사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	일제가 한민족에게 남긴 문제	일본인 때문에 고생한 역사에 대한 생각			
일본	63.7	남북분단	51.6	결코 용서 안됨	11.5
미국	14.3	외세의존	7.6	진정으로 사죄할 경우 용서	16.2
소련	3.8	경제적 가난	7.6	용서하되 잊지 말자	62.1
중국	3.2	전통문화의 단절	11.8	불행한 과거 잊자	5.4
		이산	8.6		

표11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재일조선인은 63.7%가 ‘일본’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51.6%가 ‘남북분단’, 11.8%가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8.6%가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이라고 답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본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0%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고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면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2.7%가 ‘민족적 편견과 무시’라고 답하고 있다. ‘일본인 때문에 고생했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4%만이 ‘불행한 과거이므로 잊자’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상처와 고통은 부정적으로 작동하여 적대를 낳기도 한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가?’에 대해 44.3%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공통의 정서가 부정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승화되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일본인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되갚아주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81.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재중조선족의 경우(‘그렇다’61.6%)와는 다른 모습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게 억울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90.8%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것은 재중조선족이 복수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재일조선인은 그러한 수동적 정념을 내면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 때문에 고생한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2.1%가 ‘용서하되 잊지 말자’를 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식민과 분단의 상처와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으면서도,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고 상처와 고통을 승화시켜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재일조선인의 미래지향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일조선인이 품고 살아

9)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옮김, 돌베개, 2006, 10-11쪽.

가는 상처와 고통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일제 식민지 지배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식민-분단, 식민-이산, 이산으로 인한 전통문화의 단절과 훼손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의 치유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비단 재일조선인만의 과제가 아니다. 일제 식민에 기인하는 상처와 고통은 한민족 전체의 상처 및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처를 공유하고 있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들의 연대, 즉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대에서 재일조선인은 연대의 동력이자 구심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은,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는 달리, 식민지 중주국 일본의 내부에서 차별과 배제 및 동화론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강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능동적으로 극복해 온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나가며: 연구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재일조선인의 민족정체성을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지적으로는 확인될 수 없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 즉 일상의 삶 속에서 내면화된 신체적 정체성과 인지되기보다는 느껴지는 정서적 정체성이 재일조선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재일조선인 연구는 조국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 타민족과의 결혼에 대한 생각, 한글의 사용여부,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한다면 어디를 응원하겠는가 등의 물음을 통해 얼마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민족정체성의 유지와 해체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지나 해체가 아니라 변용이다. 즉 그들이 거주국 일본의 차별과 배제의 정책과 문화에 저항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민족정체성의 변용시키고 재일조선인들만의 특유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해 왔고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일조선인의 변용된 민족정체성은 민족정체성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족역량은 다양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양하게 변용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민족변용역량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일부인 재일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일조선인들 중 일본국적자의 표본수가 적었다는 점에 있다.¹⁰⁾ 대체로 일본국적자는 재일조선인 전체의 1/3을 상회하고 있고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그 점을 설문조사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것이 민족공통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한계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표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국적 재일조선인 대부분이 일본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차별과 고통 속에서 변용된 민족주체성을 확인하는 데는 일본국적자의 표본수가 적다는 것이 연구결과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재일조선인의 민족정체성을 변용과 변용에 의해 형성되는 민족공통성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및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괄하는 통일론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10) 재일동포 - 재외동포현황2011년 통계(2010.12월 기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재외국민합	시민권자	재외동포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461,627	96,146	20,362	578,135	326,671	904,806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와 민족의 평등한 유대*

이병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 교수)

1. 들어가며: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와 탈북자 조사

1) 설문문항 개요

이 글은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11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6일부터 1월28일까지 실시되었다. 1:1 대면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회수율은 99%였으며, 설문자 중 1명은 응답하였으나 답변이 충실치 않아 제외하였다. 탈북자 대상 설문지는 2011년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정체성, 통일인식, 트라우마, 생활문화를 묻는 101개 문항으로 구성된 민족공통성 설문조사를 기초로 탈북자의 특성에 맞게 97문항으로 조정하였다.

표 1에서 보듯 응답자 대부분은 2000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이들이며, 특히 2006년 이후 입국자가 7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탈북자들의 입국 현황과도 일치한다. 탈북자들의 입국통계를 보면 2006년부터 2000명을 넘어섰다.¹⁾ 20대와 40대에 치중되어 있어 연령별 균형은 맞추지 못했으나, 이 역시 2006년 이후 젊은 층의 탈북이 증가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54명, 여성이 53명이었다. 탈북 여성비율이 2002년 이후 절반을 넘어서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2011년까지 70% 대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설문조사의 성별균형은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여성탈북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 104명, 농촌 4명으로 도시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나올 때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학력과 직업은 그 다양성에 비해, 적은 표본 때문에 의미 있는 분석 변수가 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탈북자 설문조사에서 주요한 분석 변수는 “남한 입국연도”와 “성별”이며, 이 두 변수에 따라 각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1. 연령별 남녀 비율 및 남한 입국연도

	전체	남	여	남한 입국연도		
				2006년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10대	1.8	0	3.8	0	2.6	
20대	37.6	50.0	24.5	37.9	39.0	
30대	16.5	11.1	22.6	6.9	20.8	
40대	25.7	24.1	26.4	34.5	23.4	
50대	10.1	7.4	13.2	10.3	7.8	66.7
60대이상	7.3	7.4	7.5	10.3	5.2	33.3
무응답	0.9		1.9		1.3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자유이주민’, ‘북한이주민’ 등 탈북자를 일컫는 다양한 용어는 탈북자 정체성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이 글에서는 비록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통일부, 2012.2월 기준)>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남(명)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여(명)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합계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여성비율	56%	63%	67%	69%	75%	78%	78%	77%	76%	70%

2) 글의 목표

탈북자 문제에서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탈북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다. 시대적 상황이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탈북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시대적 상황에 따라 탈북자는 다양하게 호명되었는데, 이는 탈북자 관련법의 공식명칭에서 잘 드러난다. 탈북자 관련법의 공식명칭에서 드러나듯 탈북자에 대한 호칭은 ‘월남귀순자’에서 ‘월남귀순용사’로, 또 ‘귀순북한동포’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변해왔다. 그 배경에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냉전시기 한국정부의 탈북자 우대정책은 남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이데올로기적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90년대 전후 탈냉전,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대량 탈북 시기에 이르러 체제경쟁이 의미를 상실하면서 탈북자는 체제경쟁이 아니라 정착지원의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다른 한편,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도 탈북자는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중국이나 제3국에 거주하는 해외 탈북자에 대한 규정으로 흔히 ‘난민’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디아스포라’로 규정하기도 한다.²⁾ 또 남 입국 탈북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같은 동포라는 민족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소수자나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도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가 중국과 제3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이주민과 유사하다는 전제 아래 최근 탈북자 연구경향은 민족문제라는 기존 틀이 아니라 다문화의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³⁾ 다른 한편, 국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를 포괄하여 인종, 종교, 정치상의 박해, 전쟁, 궁핍 등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난민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분단상황에서 생겨났다는 점에서 제2의 실향민으로 규정하기도 한다.⁴⁾ 이처럼 국내 탈북자와 해외 탈북자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은 탈북자의 정체성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 가운데 특히 ‘민족-탈민족’ 시각의 대립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내 탈북자의 정체성 이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민족주의적 입장은 ‘코리안’의 혈통과 문화적 동질성을 근거로 ‘디아스포라’를 같은 민족으로 이해하려는 반면, 탈민족주의적 입장은 문화적 혼종성을 지닌 ‘디아스포라’를 근거로 ‘코리안’의 민족적 동질성을 해체하는 존재로 이해한다.⁵⁾ 마찬가지로 혈연, 언어 등의 민족적 동질성을 근거로 탈북자를 한 핏줄을 타고 난 동포이며 유구한 전통을 공유한다는 민족 담론의 틀 안에서 조망하는 관점이 한편에 있다. 탈북자 정체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담론은 다문화주의다. 탈북자에 대한 민족주의적 이해를 비판하면서 인종적, 문화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문화주의의 맥락에서 탈북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탈북자 이해에서 나타나는 두 대립적 경향은 민족을 특징짓는 혈연, 언어, 생활 문화 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는 탈북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과 연구 그리고 정책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탈북자는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남 주민과 차이가 있고 또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단 이전까지 같은 민족으로써 역사적 뿌리가 같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탈북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민족이어서 우리가 적극 도와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회문화적 소수자여서 평등한 시민으로 대해야 할 대상인가?

이 글은 우선 국내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체험적 신체적 정서적 차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탈북자 정체성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북 체제 체험-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신변불안 체험- 남 입국 후 체험 등 탈북자가 겪은 3단계의 체험이었다. 북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의 체험, 제3국에서의 신변불안 체험, 남 입국 후 주민들과의 교섭과정에서 부딪히는 체험 등은 남 입국 후 탈북자들이 보여주는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이다. 다음으

2) 문학평론 영역에서 탈북자를 디아스포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테면 오윤호는 탈북자를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과 문화가 상호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현실 속에서, 지배적 민족국가 체계를 타의든 자의든 탈영토화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문학과 환경』 10권 1호, 2009, 238쪽)

3) 윤인진은 ‘북한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다문화 관점에서 북한이주민을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이주민』, 집문당, 2009, 4쪽.

4) 오인혜,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지리학논총』 제49호, 2007, 5쪽.

5) 이병수, 「민족 공통성 개념에 대한 고찰」, 『시대와철학』 제22권 3호, 2011, 134쪽.

로 이 글은 탈북자의 정체성의 실증적 해명을 토대로 탈북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가 같은 민족이라는 긍정적인 정서와 같은 민족에게서 받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부정적 정서 두 요인의 결합정도에 달려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분화는 극복되어야 할 병리현상이라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정투쟁’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민족 내부의 위계를 극복하고 평등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2. 체험적 정체성 : 낮은 대한민국 귀속정도와 남한체제의 우월성

1) 낮은 대한민국 귀속정도 : 국적과 현실적 국가 소속감의 괴리

탈북자는 냉전기의 ‘귀순용사’로부터 탈냉전기의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 한국정부로부터 다양하게 불리워졌다. 그러나 탈북자의 정체성은 국가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 호명보다도 탈북 후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는 ‘유랑의 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탈북자는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급격한 신분변동을 체험하였고, 이 점이 탈북자의 정체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북에서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이 일치했으나, 중국과 남으로 이동하면서 정체성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한국 입국 후 탈북자의 국가정체성에는 북, 중국, 남에서의 삶의 체험이 복잡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적’이나 ‘남한체제의 적응’을 묻는 질문만으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지위와 국가적 지원을 받지만 이것만으로 탈북자의 대한민국 귀속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 선호 등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직접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간접질문의 형태를 취해,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귀속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와 ‘남과 북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라고 물었다.

표 2에서 ‘살고 싶은 나라’를 묻는 질문에 64.2%가 남을 선택했고, 통일반반도는 33.0%, 제3국은 1.8%였으며, 북은 한 명도 없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34.8% 정도가 ‘살고 싶은 나라’로 통일반반도와 제3국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탈북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살고 싶지 않은 나라로 느끼는 비율이 34.8%라는 것은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귀속정도가 아직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물음에 대해 세대별 차이는 고른 반면 여성이 통일반반도(17.0%)보다 남한(81.7%)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남성은 남한과 통일반반도의 비율이 각각 48.1%로 동일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의지가 높고, 가족부양의 책임 때문에 3D산업에서 허드레 일을 하는 등 생활력이 강함을 드러낸다.⁶⁾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살고 싶은 나라’로 ‘남’을 선택한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통일반반도’를 선택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낮은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일반반도’를 대안적 국가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살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 비율이 낮고 ‘통일반반도’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2006년 이전 입국 41.4%, 2006년 이후 입국 31.2%,)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은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증가할수록 실망감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험하는 문화적 갈등의 수준이 더 높고, 사회적 장애물이 더 많다. 탈북 후 남한에서의 적응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는 진미정의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 성별비교를 중심으로」(『인간발달연구』 15권 1호, 2008)참조.

표 2.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선택 국가		성별			남한 입국연도		
		남	여	무응답	2006년이전	2006년이후	무응답
남	64.2	48.1	81.1	50.0	55.2	66.2	100.0
북							
통일한반도	33.0	48.1	17.0		41.4	31.2	
제3국	1.8	1.9	1.9		3.4	1.3	
중복응답	0.9	1.9		50.0		1.3	

그러나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가?’라는 물음은 체제 귀속정도와 동시에 살고 있는 곳의 편의성을 드러낸다. 재중 조선족이 중국에 살고 싶다고 해서 중국 정체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듯이, 탈북자 역시 남한 귀속정도는 낮지만 생활의 편의성으로 인해 남한에 살고 싶다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고 싶은 나라만의 질문으로는 대한민국 귀속감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살고 싶은 나라와 더불어 호감도를 교차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표 3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남한’을 택한 이들 가운데 70%정도만 남 호감도를 보였고, 나머지 30%(북 호감 6.4%, 남북 동일 33.9%)는 남에 호감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싶은 나라’로 ‘통일한반도’를 택한 이들 가운데 남에 호감을 표하지 않는 비율은 무려 55.5%(북 호감 8.3%, 남북 동일 47.2%)로 더 높게 나타났다.)

무응답자와 제3국의 경우를 뺀 전체 응답자(96.4%) 가운데, ‘남한에 살고 싶고 또 남한에 호감’인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44.9%**(=64.2%×70%)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44.9%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완전히 느끼고 또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 ‘남한에 살고 싶지만 남한에 비호감이거나 중립’인 이들이 **19.2%**(=64.2%×30%), ‘통일한반도에 살고 싶지만 남한에 호감’인 이들이 **14.7%**(=33.0%×44.4%), ‘통일한반도에 살고 싶고 남한에 비호감이거나 중립’인 이들이 **18.3%**(=33.0%×55.5%)를 합해 전체 응답자의 **52%**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에는 북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국 사회에 살면서 느끼는 모순과 부적응,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탈북자들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남북 호감도와 살고 싶은 나라의 관계

남북의 호감도		살고 싶은 나라				
		남	북	통일한반도	제3국	중복응답
남	59.6	70.0		44.4		
북	6.4	4.3		8.3	50.0	
남북 동일	33.9	25.7		47.2	50.0	100.0

이상의 설문조사결과로부터 첫째,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지만 국가 귀속정도가 확고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2% 정도가 된다는 것은 ‘국적’과 ‘대한민국 귀속정도’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국가 귀속정도의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기본적 생존보장의 의미에 가깝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의 58.4%가 자신을 남한이 아닌 북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통계⁸⁾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7) 비록 7명에 불과하지만 북에 호감이 간다고 한 이들은 호감이 가는 이유로 “가족과 친지가 살고 있는 고향”(71.4%)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또한 이들은 북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서도, 폐쇄성이나 집단성 등 정치적 요인보다 경제적 낙후(57.1%)를 꼽았고, 민족적 자긍심(28.6%)와 인정미 넘치는 사회(14.3)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8) 연합뉴스, 2009. 7. 3.

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북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법적 신분과 현실적 국가 소속감의 괴리를 드러낸다.

둘째, ‘살고 싶은 나라’가 통일한반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 ‘북한 호감 및 남북 호감 동일’이라고 응답한 비율 40.3%라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도 북도 싫거나, 통일한반도에 살겠다는 비율은 이들의 정체성을 단순한 이주민이나 디아스포라의 맥락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역사와 연관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2) 남북 체제에 대한 평가 : 압도적인 남 우위

국가 귀속의식은 해당 국가 체제에 대한 승인 여부와 관련된다. 점에서 탈북자가 대한민국 귀속정도가 낮은 것은 그들이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불신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표 4에서 드러나듯 탈북자는 낮은 대한민국 소속감에도 불구하고 남북 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남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남 호감도를 보인 탈북자(65명)의 남북 인식의 경우, 북에 대한 인상은 ‘폐쇄적인 나라’(56.9%), ‘경제적 낙후’(19.3%) 순이며, 남에 대한 인상도 ‘자유로운 나라’(72.3%), ‘잘 사는 나라’(16.9%) 순으로 드러나 정치경제적 체제, 특히 정치체제 면에서 남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은 남에 호감을 보이지 않는 응답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호감도 면에서 남북이 동일하다고 응답한 이들 역시 북의 폐쇄성(56.8%)과 남의 자유(62.2%), 북의 경제적 낙후(21.6%)와 남의 경제발전(13.5%)을 지적했으며, 심지어 북에 호감을 지닌 이들조차 71.4%가 남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남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를 물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비교 체험한 남북의 정치경제 체제를 먼저 떠올렸다. 탈북자의 남북 호감도와 무관하게 북이 ‘폐쇄적인 나라’이며 남이 ‘자유로운 나라’라는 응답이 연령, 성, 직업, 한국 거주기간 등과 무관하게 고르게 5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의 남북체제 평가는 무엇보다도 정치체제적인 면에서 남의 우위를 인식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남북 호감도가 남북 체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 호감도가 높을수록 북의 경제적 낙후보다 정치적 폐쇄성을 지적하는 응답율이 다소 높으며, 남 호감도가 떨어질수록 그 반대로 북의 경제적 낙후를 지적하는 응답율이 높다. 또한, 남 호감도가 높을수록 북이 ‘너무 집단주의적인 나라’라는 응답율이 높고, 남 호감도가 떨어질수록 남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나라’라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4. 남북에 대한 인상과 호감도의 연관

북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		남과 북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		
		남	북	남북동일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나라	7.3	7.7	28.6	2.7
폐쇄적인 나라	56.9	63.1		56.8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	19.3	13.8	57.1	21.6
평등한 나라	2.8	3.1		2.7
인정이 넘치는 나라	2.8		14.3	5.4
너무 집단주의적 나라	10.1	10.8		10.8
무응답	0.9	1.5		

남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		남과 북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		
		남	북	남북동일
자유로운 나라	68.8	72.3	71.4	62.2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	2.8	1.5		5.4
잘 사는 나라	14.7	16.9		13.5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4.6	3.1		8.1
인정이 없는 나라				

너무 개인주의적 나라	8.3	4.6	28.6	10.8
무응답	0.9	1.5		

요컨대,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남북의 호감도’나 ‘살고 싶은 나라’와는 무관하게 남이 북에 비해 자유로운 사회이며,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라는 탈북자의 남북에 대한 인식이다. 이처럼 대다수 탈북자들이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남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탈북동기에도 반영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식량난으로 인한 초기 탈북은 북으로의 귀환을 전제로 했지만, 2000년대 이후 점차 고국으로의 귀환을 전제로 한 탈북이 줄어들었다. 2000년대 이후 탈북은 생활고 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기가 추가되면서 정치적 탈출의 양상 등 그 동기가 다변화되었다.⁹⁾ 탈북동기가 생존위기로 인한 생계형 탈출에서 가족동반, 삶의 질 향상, 정치적 불만 등으로 다변화된 점은 표 5에서도 드러난다. 탈북동기 가운데 ‘북한 체제가 너무 싫었기 때문’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생존(혹은 굶주림) 때문’이 27.5%, ‘먼저 탈북한 가족들의 권유 때문’이 14.7%,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 9.2%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도 탈북동기는 경제적 생존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차별대우나 가족 권유 등 경제 외적인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 체제에 대한 혐오가 가장 높다. 이는 탈북 후 제3국 체류시 북 체제에 대한 실망 혹은 한국 입국 후의 경험이 사후적으로 반영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탈북자의 상당수가 북 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탈북동기

생존(혹은 굶주림) 때문	27.5
북한 체제가 너무 싫었기 때문	41.3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	9.2
먼저 탈북한 가족들의 권유 때문	14.7
기타	6.4
무응답	0.9

이상의 조사결과는 첫째, 탈북자들이 체제적 측면에서 남의 우월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은 ‘북의 폐쇄성’과 ‘남의 자유’라는 대비에서 보듯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측면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탈북자의 남 체제 선호가 반드시 한국 사회에 대한 호감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탈북자의 남 체제 선호가 그들의 국가정체성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자들이 남 체제의 우월성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귀속정도가 낮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체제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적응정도를 묻는 기존 설문방식은 탈북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3. 신체적 정체성 : 생활문화적 특성과 민족적 귀속감

1) 생활문화적 특성

탈북자의 대한민국 귀속정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법적인 신분이나 체제 선호를 기준으로 탈북자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다. 북-제3국-남으로 이어지는 유랑의 체형 속에서 탈북자의 국가정체성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9)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107쪽.

민족정체성은 강고하게 지속되었다. 탈북자의 민족정체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언어와 일상적 생활풍습 등 남북 주민의 삶 속에 체화되어있는 생활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민족정체성은 국적이나 체제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체화된 일상적 생활문화(신체적 정체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조선)민족은 흡스봄이 말했듯,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종족(ethnic group)이 하나의 국가(state)를 형성해 온 ‘역사적 국가’라는 점에서 강력한 혈연적, 생활문화적 공통기반을 지녔다. 이런 점에서 남과 북의 주민뿐만 아니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 역시 한(조선)반도의 ‘역사적 국가’에서 형성된 전통적 생활문화와의 뗄 수 없는 연관을 지닌다. 탈북자의 경우, 살고 있는 거주국이 역사적 모체문화의 한 담당자인 한국사회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점은 표 6에서 보듯 ‘싫든 좋든 내가 우리민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41.3%가 ‘같은 언어’를, 20.2%가 ‘비슷한 생활풍습’을 들고 ‘같은 핏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15.6%라고 응답한 데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탈북자의 민족정체성 자각에서 혈통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은 70년대 말에 이르러,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삭제하는 대신 혈연적 공통성을 민족형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 부각시켰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이며 그 어떤 다른 민족과도 혈통의 융합을 이루어본 적이 없는 순수한 민족이라 하여 혈연적 공통성을 민족의 핵심적 징표로 강조하였고¹⁰⁾, 이런 주장은 70년대 말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민족 소속감의 징표로 혈연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제3국 체류 기간 동안 북 체제에 대한 실망, 북에서 받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감(매우 불신 20.2%, 불신 41.3%) 그리고 한국입국 후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표 8은 탈북자의 민족정체성이 자연적인 혈통적 요소보다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언어와 생활풍습과 같은 문화적 요소에 기반을 둔 것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탈북자의 민족정체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단일민족(혈연적 정체성)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같은 민족(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점에 그 핵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싫든 좋든 내가 우리민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는가?

정서적 공감대	같은 언어	비슷한 생활풍습	타민족과의 만남을 통해 차이를 느껴서	같은 핏줄	비슷한 사고방식	중복응답	무응답
11.0	41.3	20.2	4.6	15.6	3.7	2.8	0.9

탈북자의 민족적 소속감이 언어 및 생활풍습의 공유(61.5%)에 있다는 점은 남북이 다른 체제로 60여년이나 살아오면서 가치관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생활문화적 기반은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분단으로 인해 남북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와 기억들을 다르게 변형시켜왔으며, 체제의 영향을 받은 가치관 영역(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생각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어나 의식주, 명절, 관혼상제, 온돌 중심의 주거 등 전통적인 생활문화 요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일상적 삶을 통해 신체에 내면화되어 왔기 때문에 쉽사리 변하지 않으며, 탈북자들이 남 주민들과 공유하는 삶의 문화적 습속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쇠는 전통명절을 모두 답하라’는 물음에 설날이 86.2%, 추석이 78.0%에 달했으며, ‘관혼상제의 전통 풍습’을 59.6%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한복을 언제 입느냐’는 물음에 대해 58.6%가 명절 등에서 한복을 입으며(명절 36.7%, 특별한 행사 17.4%, 가족모임 5.5%), 88.9%가 밥상에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 70.1%가 ‘입맛에 맞으니까’로 답했다. 나아가 82.6%가 부모를 자녀가 꼭 봉양해야 하며, 67.9%가 자녀봉양의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믿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남북이 비록 다른 체제로 60여년 이상 분단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일상적 삶을 통해 체화된 생활문화면에서 남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북에서 몸에 밴 전통적 생활풍습이

10) 이병수, 「과도기의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2010, 50쪽.

한국사회에서 유지되는 생활풍습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복을 ‘안 입는다’는 응답율이 증가하는 것은 북과 다른 남 사회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자, 남에 비해 북이 한복 입을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족이 쇠는 전통명절을 모두 답하라’는 물음에 남에서 잘 쇠지 않는 ‘한식’이나 ‘단오’를 든 비율이 각각 32.1%, 26.6%에 이르는 점은 북에서 몸에 밴 명절풍습의 결과로써 남의 명절풍습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식이나 단오를 씀다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전통적 생활풍습의 측면에서는 점차 한국사회에 동화되어가는 데 반해, 북 체제에서 몸에 밴 일상적 가치관(결혼관, 직업관, 인생관 등)의 측면에서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야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살면서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북 체제에서 교육받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북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살면서 획득된 가치관은 쉽게 바뀔 수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질적 공간에서도 여전히 지속된다. 직업선택 및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묻는 물음에 성별, 연령별, 거주기간에 차이 없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꼽는 비율이 54.1%가 된다는 점은 북에서 획득한 일상적 가치의식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주의적 가치관과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덕주의적 가치관 등에서 여전히 후자의 경향이 높다.

이상의 설문조사결과는 첫째, 탈북자의 민족정체성은 혈연적이기보다 문화적임을 보여준다. 탈북자의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생득적인 혈통적 순수성을 중시하는 배타적 태도와 무관하며, 또한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북의 민족관과도 다르다. 이는 탈북과정과 제3국 체류경험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탈북자의 민족적 귀속감은 매우 높지만, 그 귀속감은 체제적 귀속이나 혈연적 동질성이라기보다 생활문화적 성격을 지닌다.

둘째, 탈북자 정체성의 생활문화적 특성은 전통적 생활풍습의 측면에서는 남 주민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북에서 체득한 일상적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있다. 이는 탈북자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시각의 부적절성을 보여준다. 흔히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말해지는 탈북자의 다문화성이란 종족적 차원의 다문화성과는 달리 분단체제 하에서 남과 전혀 다르게 형성된 북 특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 종족적 차원에서는 외국 이주민들과는 달리 언어, 생활풍속 등 남 주민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적 시각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생활문화 가운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과 달리 의식주 및 명절, 관혼상제, 은둔 중심의 주거 등 전통적 생활풍습은 시공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는다. 생활문화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일상적 삶을 통해 신체에 체화되기 때문에 이념과 체제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성을 지닌다.

2) 민족적 귀속감

그렇다면 탈북자의 민족적 귀속정도는 어떠한가? ‘남한 주민과 같은 민족으로 느낀다’는 응답율이 98.1%(‘항상 느낀다’ 86.2%, ‘가끔 느낀다’ 11.9%)라는 표 7의 수치가 보여주듯 탈북자는 연령, 성, 살고 싶은 나라, 한국사회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압도적으로 남 주민과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탈북자의 이러한 민족적 귀속감은 북에서 받은 민족교육의 요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 역사적으로 형성된 언어와 일상적 생활풍습 등이 남북 주민의 삶 속에 체화되어 공유하고 있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외동포를 같은 민족처럼 느끼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북에 살던 때와 탈북 후 남에 살던 때의 응답 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해외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탈북자의 89%가 ‘같은 민족으로 느낀다’(‘항상 느낀다’ 44.0%, ‘가끔 느낀다’ 45.0%)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북에 있을 때 ‘해외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느끼지 않는’ 응답율이 51.4%. ‘같은 민족으로 느끼는’ 응답율이 48.6%로 나타나, 탈북 후 한국사회에 거주할 때의 응답율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 있을 때 해외동포가 같은 민족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 55.2%, 전문대학 50.0%, 일반대학 38.1%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같은 민족으로 느끼지 않는 응답율이 높았다. 학력의 차를 감안하더라도 남에 살 때와 북에 살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같은 민족으로 느끼는 응답율이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 7. 남한주민 및 해외동포와의 민족적 유대

	남한주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는가?	해외동포를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는가?	북한에 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온 해외동포가 우리 민족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	아니다
항상 느낀다	86.2	44.0	51.4	48.6
가끔 느낀다	11.9	45.0		
느끼지 못한다	0.9	8.3		
무응답	0.9	2.8		

표 8에서 북에 살 때 ‘해외동포가 우리 민족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로 어떤 경우인가?’라는 물음에 ‘국적과 체제가 다른 데서 오는 이질감’ 30.4%, ‘언어와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 21.4%로 응답했다. 탈북자가 북에 살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같은 민족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적과 체제의 이질감’ 때문이라는 것은 분단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남북은 분단 이후 줄곧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만을 한반도의 민족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임해왔다. 남북의 두 분단국가는 민족 정체성 경쟁을 벌이면서 각기 민족을 국가적으로 전유하였다. 남북은 에스닉적 민족공동체의 맥락에서 국가체제의 적대성을 증폭시켜 상대를 역사적으로 탄생해서는 안 될 집단으로 매도했다.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민족 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채, 서로를 반민족적 존재로 규정하였다. 탈북자가 북에 살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같은 민족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비율이 51.4%에 달했고 그 이유로 ‘국적과 체제의 이질감’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에 이른 것은 남과 북이 자신의 체제를 기준으로 민족의 참다운 대표성을 내세워온 분단현실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¹¹⁾

표 8. “해외동포가 우리 민족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로 어떤 경우인가?”

국적과 체제가 다른 데서 오는 이질감	경제적 수준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인생관과 가치관의 이질감	언어와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	생김새가 주는 이질감	무응답
30.4	19.6	12.5	21.4	7.1	8.9

그렇다면 북에 살 때(51.4%)와 달리 남에 살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민족으로 생각하는 비율(89%)이 30% 이상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남과 북에 각각 거주할 때의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에 있을 때 해외동포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한번쯤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38.5%이며, 이 가운데 고등 44.8%, 전문대학 25.0%, 일반대학 14.3%의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차별적인 언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달리 ‘해외동포를 남한주민들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7%(‘심각한 문제’ 33.0%, ‘약간 문제’ 39.4%, ‘장차 큰 문제’ 8.3%)로 달해, 북에 살 때와 달리 탈북 후,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같은 민족으로 대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11) 북과 체제경쟁을 벌여온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로, 민족과 국가의 미분화로 인해 ‘국적과 체제의 이질성’이 민족 정체성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탈냉전 후, 외국 이주민의 증가와 코리안 디아스포라와의 접촉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정체성’ 설문조사 분석에서 다룰 것이다.

있다. 이처럼 북에 살던 때와 달리 한국사회에 살면서 국적과 체제에 상관없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같은 민족으로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첫째,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유랑 체험과 관련이 있다. 탈북자들은 북을 떠나 국가적 보호막 없이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각종 불이익과 차별 등 신변불안을 겪으면서, ‘국적과 체제’를 기준으로 한 민족개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험을 했다. 둘째 한국 입국 후 출신이 다른 소수집단으로서의 자의식, 그리고 한국사회의 차별 경험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4장 정서적 정체성 참조)

이상의 설문조사결과는 우선, 탈북자의 민족적 귀속의식이 국가적 귀속의식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정체성은 국가정체성이 아니라 민족정체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들은 탈북과 제3국 거주, 남 입국이라는 유랑의 체험을 겪으면서 급격한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겪었지만 한(조선)민족이라는 민족적 소속감은 지속되었다. 낮은 대한민국 소속감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은 견고하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은 남한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는 확연한 정체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탈북자의 귀속의식을 존중하지 않고 외국 이주민들과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시민의 일원으로써 평등하게 대하지는 시각은 엄연히 존재하는 분단현실 그리고 탈북자의 자기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탈북자가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는 범위는 북에 살 때와 남한 입국 후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에 살던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중요 이유가 ‘국적과 체제의 이질성’ 때문이란 점은 남북의 국가권력이 자신의 체제를 기준으로 민족을 전유한 분단현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제3국의 유랑체험과 한국사회의 거주 경험으로 인해 국적이나 체제 여부가 민족적 귀속감을 좌우하는 정도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 결과 탈북자가 생각하는 민족개념의 외연은 남북에 국한되지 않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정서적 정체성 : 분열적 정서와 정체성의 분화

1) 드높은 민족적 자긍심

이상에서 보듯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 60여년 이상 살아왔지만 아비투스적 생활문화의 측면에서 남북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은 역사적문화적 뿌리가 같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생활문화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민족적 귀속감도 강할 뿐만 아니라 표 9에서 보듯 민족적 자긍심 역시 드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자랑스럽다’가 92.1%(‘매우 자랑스럽다’ 57.1%, ‘자랑스럽다’ 45%)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 자긍심은 연령, 성, 직업, 남한체류기간, 살고 싶은 나라, 남북의 호감도 등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52.1%가 ‘우리는 찬란한 문화(한글, 옷, 음식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21.9%는 ‘약소민족이지만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탈북자의 민족적 자긍심이 민족적 귀속감과 마찬가지로 언어, 생활풍속 등 생활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지켜가는 데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민족 역사 문화 교육’(29.4%), ‘언어-문자 보존’(25.7%),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보존’(23.9%), ‘민족 풍속의 유지’(12.8%), ‘혈통의 순수성’(8.3%)의 순서로 응답한 데서도 확인된다. 또한 ‘약소민족이지만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 순위(2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의 정치사회화를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숱한 외침 속에서 타 종족과 달리 종족 단위의 삶을 보존해 온 민족사적 자긍심, 특히 20세기 망국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단련된 저항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표 9. 민족적 자긍심과 그 이유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매우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우리는 찬란한 문화(한글, 옷, 음식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2.1	57.1	45.0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10.4	3.6	20.0
스포츠 강국, 경제강국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14.6	12.5	17.5
약소민족이지만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21.9	25.0	17.5
중복응답	1.0	1.8	

탈북자의 민족적 자긍심은 민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물에서도 드러난다. ‘민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꼭 받아야 한다’가 40.4%, ‘기회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가 34.9%로 민족교육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5.3%나 되었다. 그런데 ‘민족교육에서 더 보강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언어교육’이나 ‘민속예절 교육’에 비해 ‘역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다. 민족적 자긍심을 보여주는 언어나 생활풍속 등의 교육이 아니라 역사교육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북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학교교육을 신뢰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61.5%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남이 북에서 배울 점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9%란 점에서, 북의 교육에 대한 불신은 언어나 민속 등 전통문화 교육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역사교육에 대한 불신임을 알 수 있다. 북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비율과 마찬가지로 역사교육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비율 역시 한국사회 거주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입국한 경우 역사교육을 보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인데 반해, 2006년 이전 입국의 경우 58.6%로 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남북에서 교육되는 역사이해의 격차를 실감하면서, 북에서 교육받은 역사, 특히 김일성 일가 중심으로 해석된 20세기 근현대사가 아닌, 새로운 역사이해의 필요성을 자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민족교육에 대한 생각

민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족교육에서 더 보강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남한 입국 연도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꼭 받아야 한다.	40.4	역사	45.9	58.6	42.9	
기회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	34.9	예술	5.5		7.8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12.8	민속예절	22.0	13.8	23.4	66.7
생각해본 적 없다	8.3	언어	22.0	17.2	23.4	33.3
		중복응답	0.9	3.4		
무응답	3.7	무응답	3.7	6.9	2.6	

이상의 설문조사결과는 첫째, 탈북자의 민족적 소속감과 자긍심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탈북자가 매우 강한 민족적 유대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소속감과 민족의 자긍심은 모두 언어, 생활풍습 등 문화적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활문화는 특정 지역의 공유물이 아니라 남북주민과 탈북자들이 동시에 향유하는 일상적 삶의 방식이며, 정서적 유대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상적 삶과 관련된 영역일수록 유대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드높은 민족적 자긍심은 남 주민들과의 정서적 교감과 유대의 강한 욕구를 유발한다.

둘째, 탈북자들은 민족적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 민족교육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민족교육 가운데

서도 언어나 민속 등의 생활문화 교육이 아니라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특히 20세기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남북 역사관의 상이성, 북에서 받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2) 민족 자긍심의 훼손

탈북자의 강한 민족적 소속감과 드높은 자긍심에 비추어볼 때, 탈북자들이 남 주민과 같은 민족의 성원이며, 그런 만큼 민족적 유대의 정서 역시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민족적 소속감과 자긍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남 주민들과 거리감 내지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탈북자들이 한국 입국 후 국가 및 주민들과의 교섭과정에서 경험한 차별과 소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해서는 표 11에서 보듯,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합해 78%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사회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의 만족도가 84.4%인 데 반해 2006년 이전 입국자의 만족도는 65.5%였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 입국 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등 탈북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었지만, 그 후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해야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생활안정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는 달리, 남 주민들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59.6%였다. 이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남 주민과의 관계에서 불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마찬가지로 차별과 소외의 경험 역시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율이 2006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 53.2%라면, 2006년 이전 입국자 경우 무려 82.8%에 달해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빈도도 증가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탈북자에 대한 남 주민들의 태도 변화를 원하는 비율(89.9%)이 남 주민들로부터의 개인적 차별 경험(59.6%)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차별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변의 다른 탈북자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무수히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남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차별을 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경험한 편견과 차별은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지만, 대한민국 소속감에 회의를 가져오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즉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남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경험한 차별 의식은 법률적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나아가 남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표 11. 국가 및 주민들과의 교섭 경험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해 만족하는가?		나는 남한 주민들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남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만족	21.1	있다	59.6	매우 그렇다	26.6
만족	56.9	없다	39.4	그렇다	63.3
불만족	17.4			아니다	9.2
매우 불만족	3.7	무응답	0.9	매우 아니다	0.9
무응답	0.9				

그렇다면 차별에 대해 갖는 불만의 내용은 무엇인가? ‘남한 주민들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받은 상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24.6%,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 35.4%,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태도’ 30.8%로 응답하였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신들에 대한 남 주민의 우월감, 복 출신을 보는 차가운 시선과 선입견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가 24.6%에 지나지 않지만, 우월감과 무시 그리고 편견이라는 불만의 기저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탈북자의 강한 민족적 귀속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의 상처는 근본적으로 같은 민족을 차별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불만이 같은 민족을 차별 대우하는 점에 있다는 것은 표 12에서 드러난다.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감추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밝히면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37.5%, ‘상대방에게 괜한 편견을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37.5%로 차별과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탈북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주된 이유가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 때문이라는 일반적 평가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신분을 적극 알리거나 탈북자 신분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63.3%가 된다는 점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비율은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남 주민과 같은 민족이며, 또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탈북자의 신분을 알리거나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과 편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탈북자라는 신분을 알리면 차별과 편견을 받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을 차별하는 남한사회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탈북자의 불만은 시민적 권리의 평등 요구라는 외면적 현상을 넘어, 같은 민족임에도 차별한다는 민족적 자긍심의 훼손과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탈북자의 불만이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는 소수자 차별의 맥락이 아니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민족적 차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12. 탈북자 신분과 민족적 자긍심의 관계

내가 남한 사람과 만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가?		내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매우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알리고 싶다	28.4	37.5	17.5
감추고 싶다	36.7	32.1	42.5
상관없다	34.9	30.4	40.0

나이가 탈북자의 불만이 자신과 남 주민이 같은 민족임에도 배려하지 않고 차별한다는 데 있다는 점은 표 13에서 보듯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민족적 동포애’, ‘집단주의’가 각각 23.9%,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22.9%,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14.7%, ‘평등 사회 건설 의지’ 9.2%로 응답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외 ‘집단주의’와 ‘민족적 동포애’를 합쳐 47.8%에 달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가치관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지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은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개방적인 사회’ 39.4%, ‘자유경쟁’ 27.5%로 높은 반면 ‘개인주의’는 2.8%로 낮게 나타난 점에서도 확인된다. 남 체제의 긍정에도 불구하고 남 주민들의 개인주의 성향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인식은 매우 비판적이다. ‘남과 북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탈북자의 응답 내용은 북이 비록 폐쇄적인 사회이고 못 사는 나라이지만, 민족구성원들 사이의 배려와 정서적 연대만큼은 한국 사회보다 낫다는 인식, 달리 말해 남은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이지만 불리한 처지에 있는 같은 민족을 배려하지 않고 차별하며 저마다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남과 북에서 배워야 할 점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14.7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13.8
민족적 동포애	23.9	개방적인 사회	39.4

평등 사회 건설 의지	9.2	자유경쟁	27.5
집단주의	23.9	개인주의	2.8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22.9	세계화	14.7
무응답	5.5	중복응답	1.8

이상의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첫째, 남 주민들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탈북자들의 불만이 시민으로서의 평등을 요구하는 외국 이주민의 맥락과는 달리, 같은 민족임에도 차별한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의 불만은 단순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받는 차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족적 동포애가 결여된 남 주민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 그리고 같은 민족을 차별하는 남 주민의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탈북자의 정서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유대라는 긍정적 감정, 그리고 같은 민족에게서 받는 차별과 편견의 부정적 감정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 이 점은 탈북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를 설명해준다. 탈북자의 정체성은 같은 민족이라는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와 같은 민족에게서 받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부정적 정서 두 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양자 요인의 결합정도에 따라 남한 사회로 동화하려는 방향, 남북에 거리를 두면서 통일한반도를 선호하는 방향, 다시 제3국으로 탈남하려는 방향 등 탈북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진다.

5. 민족의 평등한 유대를 위해

탈북자의 정체성은 한국사회 입국 후 남의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적응 및 동화 정도를 기준으로 이해될 수 없다. 탈북자는 한국사회에 살기 전에 이미 북 체제를 체험했고 또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신변불안을 체험했다. 탈북자가 겪은 3단계의 체험은 그들의 정체성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다. 비록 한국사회에서 법적인 신분을 획득하고 남체제의 우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귀속정도가 낮은 이유는 탈북자들이 겪은 유량의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북-제3국-남으로 이어지는 유량의 체험 속에서 국가정체성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민족정체성은 강고하게 지속되었다. 이 점에서 탈북자 정체성의 핵심은 국가정체성이 아니라 민족정체성에 있다. 탈북자는 강한 민족적 귀속감을 지녔지만, 유량의 체험과 한국사회의 거주체험 과정에서 귀속감의 성격은 혈연적이고 체제적 요인이 약화되고 생활문화적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탈북자 정체성의 생활문화적 특성은 북에서 체득한 일상적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남 주민과 차이를 보이지만 전통적 생활풍습의 측면에서 남 주민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전통적 생활풍습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일상적 삶을 통해 신체에 체화되며, 따라서 이념과 체제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가 지닌 강한 민족적 귀속감과 드높은 민족적 자긍심은 남 주민들과의 정서적 교감과 유대의 강한 욕구를 유발한다. 그러나 남 주민들과의 교섭과정에서 민족적 동포애가 결여된 개인주의적 태도, 그리고 같은 민족을 차별하는 남 주민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탈북자의 정서는 분열된다. 따라서 탈북자의 정체성은 같은 민족이라는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와, 같은 민족에게서 받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부정적 정서 두 가지 요인의 결합정도에 따라 다양한 분화를 겪게 된다.

그렇다면 탈북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탈북자들이 남북 어느 한쪽에 대한 소속감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할 민족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보여주는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괴리를 남한사회 적응의 부족이나 한국사회에 동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병리 현상 혹은 정체성 혼란으로 보는 관점은 한국사회의 단일한 가치를 중심으로 타자를 동일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체성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다중성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본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¹²⁾

12) 조정아, 「탈북이주민의 학습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201쪽.

탈북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를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를테면 강진웅은 탈북자들의 정체성을 북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동화형태(동화형), 남북의 정체성을 동시에 통합하려는 형태(통합형), 남북 정체성 사이에서 분열 혼돈된 정체성을 갖는 형태(혼돈형), 한국사회의 거버넌스에 저항, 이탈하는 형태(저항형), 4가지로 구분한다.¹³⁾ 다른 한편 윤인진은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북한문화와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통합형,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북한문화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동화형,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문화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고립형, 남한사회로부터도 배제되고 북한이주민 집단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화형, 4가지로 구분한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의 활용도와 별개로, 정태적 유형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모두를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탈북자의 '인정투쟁'이다. 여기서 탈북자들이 지닌 강한 민족적 소속감과 자긍심은 인정투쟁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민족적 귀속감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남 주민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차별적 태도에 대해 그만큼 더 큰 차별의식과 불만을 지니게 되며, 따라서 그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노력 역시 강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친북이냐, 반북이냐' 리는 정치적 양자택일의 논리,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법적인 소속(belonging)을 넘어 '헌신', '동화', '우월', '비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정투쟁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 적대국가 출신이자 '식량난민' 등으로 평가절하 되는 현실과 상호작용하며 자기존중과 사회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탈북자 정체성(재)구성 과정이기도 하다.¹⁵⁾ 탈북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는 남북을 모두 경험한 점 때문에 남북 어느 한 쪽에 편향된 것이라기보다 양가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남북을 모두 경험하면서 헌신, 동화, 우월, 비판 등 역동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인정투쟁은 단지 한국사회의 적용 혹은 부작용 차원을 넘어 분단시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민족정체성 형성에 큰 의미를 지니고 동시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탈북자의 다양한 인정투쟁은 한(조선)민족 내부의 위계를 부정하고 평등한 유대를 위해서도 의미를 갖는다.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와 민족의 불일치에서 오는 이중정체성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주민 그리고 탈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한(조선)민족 정체성의 20세기적 고유한 사태이다. "근대의 한 세기를 통해 식민 지배를 당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대립하고 국외로 이산되는 경험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른 우리 조선 민족은 한 국가의 국민(정치적 주권자)으로 형성된 적이 없었다."¹⁶⁾ 같은 민족이 남과 북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로 분할되어 민족 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한 번도 일치해 본적이 없는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두 축 사이를 오가는 이중정체성을 낳게 만든 근본원인이다. 이런 점에서 이중정체성은 디아스포라에 고유한 것이 아니며, 또 단순히 정체성 해체로 이해될 수 없고 한반도의 특수한 경험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민족=국가'의 좌절, 곧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종족적 민족 개념은 분명 한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된 관념적 재료이다.

그러나 한(조선)민족은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다양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종족적으로는 같은 민족이지만 그 내부에는 남의 주민과 북의 주민, 탈북자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가로지르는 수직적 위계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같은 민족이지만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를 정점으로 하여 같은 혈통의 외국 국적 소유자, 탈북자, 북 주민 등으로 서열화된다. 이처럼 특정 국적과 혈통을 중심으로 한(조선)민족을 위계화하고 있는 점은 재외동포재단법에서도 드러난다.¹⁷⁾ 재외동포재단법에서 말하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13) 강진웅, 「한국시민이 된다는 것 : 한국의 규율적 거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제47집 1호, 2011.

14) 윤인진, 앞의 책, 66-67쪽.

15)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한국사회학』 제 44집 1호, 2010, 237-238쪽.

16) 서경식 지음,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옮김, 돌베개, 2006, 225쪽.

17) “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재외동포재단법

외국 체류자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재외동포재단법에서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일단 구별되고 있으나, 같은 민족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대한민국 국적과 혈연적 동질성 여부다. 이러한 대한민국중심주의와 강한 혈통주의는 여러 나라에 분할되어 살고 있는 한(조선)민족 내부의 불평등한 위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¹⁸⁾

물론 탈북자는 같은 혈통을 지니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을 위계화하는 원인에는 재외동포재단법에 규정된 특정 국적과 혈통뿐만 아니라 남 주민의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이나 경제적 수준 및 특정 생활방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포함된다. 남 주민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은 우선 냉전 시대에 습득된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에서 유래한다. 냉전 시대에 한국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반공사상은 ‘민족 내부의 적대적 타자’로서 탈북자를 바라보게 만든다. 나아가 냉전 이후 탈북자의 급증과 맞물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래하는 또 다른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형성되었다.¹⁹⁾ 적대국인 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혹은 경제적 가난의 이유로, 나아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지녔다는 이유로 탈북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등 한국 사회에 내재화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역시 한(조선) 민족의 평등한 유대를 가로막는 이러한 위계화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탈북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지는 기저에는 같은 민족임에도 차별당한다는 민족적 자긍심의 훼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의 인정투쟁은 한(조선) 민족의 평등한 유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6. 나가며: 연구의 의의와 한계

다문화주의는 혈연에 근거한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다른 인종과 문화에 배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민족주의적 이해를 비판하면서 인종적, 문화적 소수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과연 혈연적이며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는지도 검토되어야겠지만, 한(조선)민족의 외연에는 남 주민뿐만 아니라 북 주민, 코리아 디아스포라, 탈북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단일혈통적이거나 단일문화적이라고 선불리 결론지을 수 없다. 한(조선) 민족은 역사적 뿌리가 같으면서도 20세기 들어와 거주국에 따라 다양한 문화변용을 겪었다. 이를테면 남, 북,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등의 언어, 혈연, 생활문화 등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문화적 변용들이 그러하다.

오히려 민족의식의 배타성은 북의 ‘우리민족 제일주의’나 남의 ‘대한민국 민족주의’처럼 그것이 특정 국가나 체제와 연관될수록 강화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민족담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국가담론에는 둔감하며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형성된 정체성, 가치관 중 남한사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남한의 사회문화와 접목”²⁰⁾할 것을 주장하는 시각에는 여러 인종, 민족 집단들이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속한 국가에 대해 소속감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원론적 측면 외에도 다문화주의는 분단현실과 탈북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탈북자 문제는 북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는 다문화적 특성을 넘어서 남 주민과 더불어 전통적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 분단체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상호적대와 대립을 거듭해온 분단체제의 맥락보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평등한 처우를 더 중하게 여김으로써 그 이면에 놓여있는 민족분단의 현실 인식을 약화시킨다. 나아가 탈북자들은 이질적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남 주민과 생활풍습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

제2조)

18) 민족 내부의 위계에 대해서는 이철우 외, 「‘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관정의 정치와 행정」(『민족 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자료집』, 2009 한국사회사학회·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 연구소 학술대회) 참조.

19) 오원환, 앞의 논문, 201쪽.

20) 윤인진, 앞의 책, 61쪽.

하고 있으며, 남 주민과 같은 민족이라는 심리적, 정서적 유대가 공고하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외국이주민과 같은 맥락에서 탈북자를 이해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정서적 정체성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북자 정체성의 이해는 혈연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민족담론과 시민적 평등을 중시하는 다문화 담론의 대립구도를 벗어나, 한(조선)민족 내부의 다양한 문화적 변용과 각각의 역사적 경험을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차이를 억압하지 않는 '민족 공통성'²¹⁾을 형성하려는 맥락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탈북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화는 한국사회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자의 인정투쟁은 한(조선)민족 내부의 위계를 부정하고 평등한 유대를 위해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민족 공통성을 미래기획적으로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민족-탈민족의 이론적 대립구도를 벗어나 실증적 자료에 기반해 탈북자 정체성을 '민족공통성' 형성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탈북자의 정체성 이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표본 수(109)가 적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직업별 실태를 표본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심층면접이 아닌 양적 설문조사에 의거한 탓에 탈북자 정체성에 대한 심층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도 한계가 뚜렷하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 정체성에 대한 이 글의 결론은 비록 실증적 조사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론적 가설의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1차 설문조사를 토대로 2차 심층면담조사가 이루어져야 보다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재중 조선족-재일 조선인-재러 고려인-남/북(탈북자)'의 비교 연구라는 '민족공통성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웅, 「한국시민이 된다는 것 :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제47집 1호, 2011.
- 박영균,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 『시대와 철학』 제22권 2호, 2011.
-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옮김, 돌베개, 2006.
-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문학과 환경』 10권 1호, 2009.
-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 오인혜,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지리학논총』 제49호, 2007.
- 윤인진, 『북한이주민』, 집문당, 2009.
- 이순형 외,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병수, 「과도기의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2010.
- 이병수, 「민족 공통성 개념에 대한 고찰」, 『시대와 철학』 제22권 3호, 2011.
- 이철우 외, 『韓人의 분류, 경계 확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자료집』, 2009 한국사회사학회사학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학술대회)
-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한국 사회학』 제44집 1호, 2010.
- 조정아, 「탈북이주민의 학습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 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7.
- 진미정,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인간발달연구』 15권 1호, 2008.

21) '민족적 공통성'이란 용어는 민족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과정적·구성적 과제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족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병수, 앞의 논문과 박영균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시대와철학』 제22권 2호, 2011) 참조.

제2부 코리안의 분단의식과 통일한반도의 미래가치

재러 고려인의 탈분단의식과 상호신뢰성-공동번영이라는 두 가지 흐름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재일조선인의 분단의식과 동북아 평화

박종성(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탈북자의 분단의식과 통합적 가치

김종곤(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재러 고려인의 탈분단의식과 상호신뢰성-공동번영이라는 두 가지 흐름

: 연해주와 사할린지역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분석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1. 들어가며: 사할린-연해주 지역의 특수성과 분단-통일의식조사

일반적으로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는 연해주나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역사, 1937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그리고 1993년 이후 연해주 지역으로의 재이주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한국으로의 귀환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현지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연해주지역의 농업 연계 및 지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물론 이 이외에 ‘민족정체성’이나 ‘다중정체성’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단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조선)반도에서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는 현재 한(조선)반도를 중심으로 맞부딪히는 북방삼각(북-중-러)과 남방삼각(한-중-일)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조선)반도의 일제 식민지와 분단-6.25전쟁의 직간접적 당사자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대표하는 자본주의체제에 대립하여 현실사회주의권 체제를 대표했으며 미국과 더불어 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함께 했던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의 후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2차세계대전과 동/서 냉전의 구축 속에서 이루어졌던 독일과 한(조선)반도의 분단에서 러시아는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책임자이기도 했다.

물론 현재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연방공화국과 같은 영향력을 한(조선)반도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1990년대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집권 이후 러시아는 강한 나라를 표방하면서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극동지역’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조선)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한 대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러시아는 여전히 6자회담 당사국으로, 대 한(조선)반도 정책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코리언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고려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려인의 분단-통일의식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구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었던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535,679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코리언 대비 약 9.0%에 해당한다(2010년 12월 31일자 기준, 외교통상부 2011년 발표자료)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에 따른 인구이동에서 보이는 ‘이산자들’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의 아픈 역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서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비에트연방에서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이주→강제이주→재이주라는 3삼중의 이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제 식민지의 제국주의적 국가폭력과 이주국에서의 국가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일제 식민지→분단으로 이어지는 한(조선)반도의 역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들 또한 한(조선)반도의 분단 극복의 한 주체이며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단과 통일 의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태우정권 때의 북방정책→노무현정권의 동북아허브 구상 등이 보여주듯이 러시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유럽과 한(조선)반도를 연결하는 데에서 중요한 통로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인들을 연

구하는 사람들이 통일한(조선)반도의 건설과 관련하여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제기하는 근거로 드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치적인 근거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근거이다.

정치적 근거로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러시아의 연해주지역이 북-중과의 접경지역으로서 한(조선)반도의 급변사태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경제적 근거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이 시베리아횡단 철도와 한-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서 통로이자 동북아 경제 요충지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사할린은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된 지역이며 연해주는 광활한 곡창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사는 고려인들은 러-중-북-남 간의 정치-경제적인 협력을 통한 분단 극복의 길을 찾는 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통일한(조선)반도의 국제협력과 비전을 찾는 데에서도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¹⁾

그러므로 고려인들의 분단-통일 의식을 조사하여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한(조선)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을 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번 조사대상지역이었던 연해주-사할린지역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한(조선)반도의 분단-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이 재이주하는 핵심 지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이 지역과 통일문제를 연결하여 쓴 논문으로는 배수한이 2004년에 쓴 「통일한국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의 지원 및 활용방안」이 있다.²⁾ 그러나 이 논문은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한(조선)반도 인접 지역이라는 점과 농업지대, 그리고 석유, 가스, 수산 자원 등 경제학적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방향을 논하는 데 그쳤을 뿐, 현지에 살고 있는 재러 고려인들의 분단과 통일 의식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남/북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 이 지역의 주민들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취급하며 한국의 입장에서 그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연해주와 사할린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해서 통일과 분단을 보는 그들의 시각을 다루고자 했다. 재러 고려인들은 1937년 10-12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후, 1993년 4월 1일, 고려인들의 ‘명예회복’과 ‘원거주지로 재이주보장’, ‘국적취득’을 보장하고 있는 <러시아 고려인들의 복권에 관한 최고소비에트령>에 의거하여 연해주지역으로 재이주하고 있다. 연해주지방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1993-1995년경에 한(조선)인들의 유입이 최고조를 이루다가 그 이후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러시아 연방 인구센서스를 보면 1989년과 비교해볼 때, 111.7%가 증가했다는 점에서³⁾, 러시아로 이주해 온 한(조선)인 4만 명 중 약 23%가 연해주에 정착했다는 점에서⁴⁾ 연해주지역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재이주에서 핵심 지역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재러 고려인들은 연해주-사할린지역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이것은 재러 고려인을 대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립국가연합에 빠져 있는 고려인들의

1) 중국은 이런 경제적 이점 때문에 연해주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신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삼각협력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는 부산-나진-하산의 삼각협력시스템이다. 이것은 남한, 북한, 러시아간의 철도연결, 요컨대 TKR-TSR의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에 관한 구상이다. 둘째는 남한, 북한, 러시아 3국간의 농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의 구축이다. 이것은 연해주의 광활한 토지,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새로운 농업생산을 증대시켜보자는 의도에서이다. 셋째는 에너지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연해주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관심과 진출은 연해주 고려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으며, 이주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전신욱,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현황: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3, 2007, 94 쪽). 그러나 이 또한 남/북 분단 극복이나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다.

2) 배수한, 「통일한국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의 지원 및 활용방안」, 『동북아연구』, 1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3) 김인성, 『민족연구』, 43권, 한국민족연구원, 2010, 79쪽.

4) 같은 글, 80쪽.

비중에 따라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인적-재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고려인의 고향'이기도 한 연해주-사할린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인의 분단-통일 의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주요한 변수가 '거주지역과 출생지역', '연령, 특히 재이주 이후 연해주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이주해 온 10대'였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하여 분단과 통일을 보는 재러 고려인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의 의식조사에 대한 분석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런 변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출신지역으로, '사할린', '연해주', '중앙아시아'이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석 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설문조사대상자의 표본이 사할린과 연해주 지역 중 연해주지역에 압도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자는 총수가 32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연해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96명이며 사할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30명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사할린주와 연해주에 거주하는 인구 비례로 볼 때 연해주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다.

현재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27,000명이며 연해주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17,899명(2010년 12월 31일자 기준 외교통상부 2011년 발표)이지만 무국적자까지를 포함하면 사할린지역은 약 3만 명, 연해주지역은 5만명으로 3:5로 연해주지역이 많다. 그러나 현재의 표본은 약 11: 1로 사할린지역이 적다. 따라서 연해주지역의 여론이 전체 여론을 주도하는 셈이다. 이것은 사할린지역과 연해주지역의 여론 차이에 따라 실제 여론 추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대한 이러한 표본의 불균형을 고려해서 극동 지역 재러 고려인들의 여론 추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2.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인들의 인식

1) 통일의 역사적 중요성: 일제 식민의 극복

재러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 이후 한(조선)반도의 분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극동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다. 지형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가깝다. 그래서 그들은 동북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중조선족이나 재일조선인에 비해 분단문제를 일상적이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의식 또한 낮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연해주-사할린에 거주하는 재러 고려인들은 '분단극복'과 '통일'을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시켜서 생각하고 있었다.

표 1.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지역		
	전체	연해주	사할린
그렇다	88.7	88.5	90.0
아니다	10.7	10.8	10.0
무응답	0.6	0.7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재러 고려인들 중 88.7%가 '그렇다'고 답변함으로써 통일을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재러 고려인들은 통일을 왜 이렇게 자신의 삶과 밀접히 연관시키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조선)반도의 분단이 일제 식민지의 잔재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처라는 점이며 둘

제는 분단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 통일을 되어야 하는 점이고 셋째는 그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식이다. 따라서 이런 가설 하에 채러 고려인들의 분단-통일 의식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채러 고려인들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역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남북 분단	69.6	67.9	86.7	63.0	72.5	70.0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6.4	7.1			5.0	7.4
경제적인 가난	1.2	1.0	3.3	3.7	2.5	0.8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5.2	5.4	3.3	11.1	5.0	4.3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12.6	13.2	6.7	11.1	15.0	12.5
중복응답	4.6	5.1		11.1		4.7
무응답	0.3	0.3				0.4

첫 번째로 우리는 분단을 일제 식민지 지배의 결과라는 점에서 ‘분단의 역사성’을 묻는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위의 표 2가 보여주듯이 채러 고려인들 중 압도적 다수인 69.6%가 ‘남북 분단’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뒤를 이어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12.6%)을 선택하였으며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6.4%)→‘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5.2%), ‘경제적인 가난’(1.2%)은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하였다. 따라서 채러 고려인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남긴 가장 큰 상처를 ‘남북 분단’과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3.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역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분단 극복과 통일	63.5	64.5	53.3	63.0	45.0	66.5
자주적 외교	7.7	7.4	10.0	7.4	10.0	7.4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	2.5	2.4	3.3	3.7	2.5	2.3
북-일, 북-미 수교	12.9	12.8	13.3	11.1	17.5	12.5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7.7	7.4	10.0	11.1	15.0	5.8
중복응답	5.2	4.7	10.0	3.7	10.0	4.7
무응답	0.6	0.7				0.8

또한, 이런 점에서 채러 고려인들은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제 식민지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도 ‘분단 극복과 통일’을 제시하였다. 채러 고려인들 중 63.5%가 ‘분단 극복과 통일’을 일제 식민지 지배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12.9%가 ‘북-일, 북-미 수교’를, 뒤이어 각각 7.7%가 ‘자주적 외교’와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은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선택하였다. 따라서 채러 고려인들은 ‘분단’과 ‘이산’을 일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상처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분단 극복과 통일’을 일제 식민지 지배 극복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지역적-출신지별 차이에 따른 표본의 편중성을 감안한다면 채러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분단’의 비중은 더욱 올라간다. 왜냐 하면 지역적으로 사할린지역주민들은 86.7%로 ‘남북 분단’을 압도적으로 선택한 반면 연해주지역주민들은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13.2%)나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

존(7.1%)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 326명 중 연해주지역주민은 296명이고 사할린지역주민은 30명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동등한 비율로 만들면 ‘남북 분단’을 선택한 비중은 77.4%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자 전체 326명 중 연해주지역주민 294명(출생지 무응답자 1명, 기타 1명 제외)은 연해주출신 26명, 사할린출신 15명, 중앙아시아출신 253명으로 중앙아시아출신이 많은 반면 사할린지역주민 30명은 연해주출신 1명, 사할린출신 25명이고 중앙아시아출신은 4명으로 사할린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면 지역별 차이는 출생지별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위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은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출신과 상관없이 2위임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출신들은 동일하게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에 동일한 11.1%의 가중치를 주었으나 이보다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7.1%)이 3위를 차지한 것은 중앙아시아출신들(7.4%)이 주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 3에서 보듯이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는 과제에서도 ‘분단 극복과 통일’에 비해 ‘북-일, 북-미 수교’ 및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은 사할린-연해주출신들에게 높은 반면 중앙아시아출신은 ‘분단 극복과 통일’에 가중치를 몰아주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할린출신자들과 연해주출신자들과 동북아시아에 거주하면서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대립의 다양성을 체험한 반면 중앙아시아출신들은 이런 경험이 다소 떨어진다. 게다가 ‘북-일, 북-미 수교’ 문제가 남북 분단을 둘러싼 북-일, 북-미 간의 대립과 충돌,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다소 상반된 결과는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비중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사할린 지역이 일본과 가깝고 연해주 지역은 북-중과 가깝다는 점에서 북-일 간의 긴장감을 반영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재러 고려인들은 일제 식민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통일 문제를 자신들의 삶과 연관시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앞으로도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데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극동지역의 재러 고려인들이 출생지나 현재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일제 식민지가 남긴 가장 큰 상처’로 ‘남북 분단’과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을 1, 2위로 선택하고 있으며 극복 과제로도 ‘남북 분단과 통일’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2) 통일의 실질적 중요성: 분단의 폐해와 민족적 발전

두 번째로, 우리는 분단의 역사성으로부터 통일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 이후에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삶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분단과 6.25전쟁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상태에서도 그것이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러 고려인들은 양자 모두에게서 그것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피해를 주었거나 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 4.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59.8	59.1	66.7	59.3	62.5	59.5
다소 피해를 입었다	32.8	34.1	20.0	37.0	22.5	33.9
피해를 입지 않았다	4.0	3.7	6.7	3.7	10.0	3.1
무응답	3.4	3.0	6.7		5.0	3.5

먼저, 우리는 재러 고려인들에게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

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위의 표 4가 보여주듯이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재러 고려인들 중 92.6%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으며 피해의 강도 또한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9.8%로, ‘다소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사람 32.8%보다 두 배 정도가 많았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사할린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인식한 사람의 비율이 10.0%로 다른 지역의 출신자들에 비해 많기는 했지만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 답변 비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별로도 별 차이가 없이 대부분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표 5. 한(조선)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조사지역			출생지			나이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그렇다	81.0	81.8	73.3	66.7	67.5	84.4	42.1	74.5	80.5	79.2	94.2	88.6
아니다	18.1	17.9	20.0	33.3	27.5	15.2	57.9	23.6	18.2	20.8	5.8	10.0
무응답	0.9	0.3	6.7		5.0	0.4		1.8	1.3			1.4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 재러 고려인들은 분단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위의 표 4가 보여주듯이 ‘한(조선)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는 물음에 대해 재러 고려인들 중 81.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18.1%였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한 비율 92.6%보다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고자 했다. 그러면 특징적인 것은 중앙아시아출신자들에 비해 연해주-사할린출신자들의 저해요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올라간다는 점과 연령별로 10대-20대 답변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에서 다룬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교차 분석을 해 보면 이런 정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해주와 사할린지역주민들 중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각각 10.0%로 동일했으며 출생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연해주출신은 18.5%로 가장 많은 사람이 통일을 자신의 삶과 관련시키지 않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할린출신 12.5%, 중앙아시아출신 9.7%를 이어갔다. 마찬가지로 한(조선)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출생지별로 연해주(33.3%)→사할린(27.5%)→중앙아시아(15.2%)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지역보다는 출생지에 따라서 통일을 자신의 삶이나 민족의 발전과 연결시키는 강도가 달랐다.

또한, 연령별로도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답변도 10대(31.6%), 20대(18.2%), 30대(13.0%), 40대(11.3%), 50대(5.8%), 60대 이상(0.0%)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령별 추이와 다르지 않다. 이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삶의 경험이 적고 국제 관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분단극복’의 문제와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러 고려인들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편차에서 중요한 요소는 출생지와 연령별 분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러 고려인들 대부분은 분단이 이전에도 우리 민족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3) 통일의 국제적 중요성: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일의 국제적 중요성, 특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서 남북분단과 통일이 지닌 의미를 재러 고려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한편으로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분단이 어느 정도 불안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에 재러 고려인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남과 북의 적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사지역			출생지			나이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매우 그렇다	23.6	22.3	36.7	14.8	30.0	23.3	26.3	14.5	22.1	26.4	26.9	27.1
그렇다	67.8	68.9	56.7	81.5	57.5	68.1	63.2	70.9	64.9	64.2	73.1	68.6
그렇지 않다	7.1	7.4	3.3	3.7	7.5	7.4	10.5	12.7	11.7	9.4		
무응답	1.5	1.4	3.3		5.0	1.2		1.8	1.3			4.3

먼저, 위의 표 6이 보여주듯이 재러 고려인들이 통일이 지니는 의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이다.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은 23.6%였으며, '그렇다'는 답변은 67.8%나 되었다. 이것은 9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별, 출생지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연해주보다 사할린지역이, 출생지별로는 사할린이나 중앙아시아출신보다 연해주출신이 더 그렇게 생각하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중앙아시아나 사할린출신보다 연해주출신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강도가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은 사할린이나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이 연해주출신자들보다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도 1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약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재러 고려인들은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4.3	4.7		11.1		4.3
한(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	34.4	35.5	23.3	33.3	27.5	35.4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17.8	17.6	20.0	14.8	22.5	17.1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3.7	3.4	6.7		7.5	3.5
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32.8	33.4	26.7	29.6	30.0	33.9
중복응답	6.4	5.1	20.0	11.1	10.0	5.4
무응답	0.6	0.3	3.3		2.5	0.4

그렇다면 극동지역의 재러 고려인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위의 표 7에서 보듯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한(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34.4%)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러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2위로 ‘조선(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32.8%)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적으로 재러 고려인들은 ‘남과 북의 적대’뿐만 아니라 ‘북의 핵개발’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남과 북의 적대’라는 답변의 비중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 또한 남과 북의 적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수이기 때문에 전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은 ‘한(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35.4%)과 ‘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33.9%)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연해주출신자들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11.1%)에 다른 지역출신자들보다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으며 사할린출신자들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22.5%)에 상대적인 방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연해주출신자들과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은 북방삼각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반면에 사할린출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양쪽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은 사할린출신자들이 ‘조선(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과 ‘미국이 한국(남),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각각 30.0% 대 22.5%로, 다른 지역출신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격차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도농별로도 도시주민들이 농촌주민들에 비해 ‘미국이 한국(남),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도시 21.3%, 농촌 5.9%)에 중점을 둔 반면 농촌주민들은 조선(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시 29.2%, 농촌 44.1%)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러 고려인들은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88.7%가 ‘그렇다’고 답변함으로써 통일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으며 ‘분단 극복과 통일의 과제’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첫째, 일제 식민지 지배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가 ‘남북 분단’(69.6%)이며 따라서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또한 ‘분단 극복과 통일’(63.5%)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거주지역이나 출생지역에 상관없이 ‘남북 분단’이 1위이며 2위가 ‘한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둘째, 재러 고려인들은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92.6%가 보고 있으며 현재 분단이 한(조선)민족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된다(81.0%)고 보고 있다. 이것은 지역별-출생지별 다소 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1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70%에서 90%까지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셋째, 재러 고려인들은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91.4%)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지역별-출생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이나 출생지와 상관없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요소로 ‘한(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재러 고려인들은 일제 식민 극복과 민족의 발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 분단의 책임과 분단 극복의 정책적 방향

1) 분단의 책임과 통일의 장애: 조선과 미국, 그리고 남/북의 적대

재러 고려인들은 통일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러 고려인들은 왜 통일이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것은 세 가지 물음으로 구체화되었는

데, 첫째는 통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누구인지를 물어 분단의 책임을 한(조선)반도의 내부에서 찾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찾는지를 보고자 했다. 그런 이후 굳이 내부에서 찾았다면 ‘남과 북의 책임 중 어디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재러 고려인들은 분단의 책임을 한(조선)반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 있으며 그 책임도 조선에 대해 많이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전반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다룬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위협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지역-출생지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출생지였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할린출신자’들이다. 이들의 표본 숫자는 적지만 매우 독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설문조사결과표를 읽는다면 전체의 여론 추이는 출생지별로 다른 차이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한국	2.5	2.0	6.7	7.4	2.5	1.9
조선	54.9	56.8	36.7	48.1	37.5	58.4
미국	26.1	26.0	26.7	14.8	35.0	25.7
일본	2.5	2.7		7.4	2.5	1.9
중국	1.2	1.4		3.7		1.2
러시아	1.5	1.7		3.7		1.6
중복응답	9.5	8.4	20.0	11.1	15.0	8.6
무응답	1.8	1.0	10.0	3.7	7.5	0.8

극동지역 거주 재러 고려인들은 위의 표 8에서 보듯이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4.9%가 ‘조선’이라고 답했으며, 26.1%가 ‘미국’을 꼽았다. 또한, 그 외에 일본과 한국을 동일하게 2.5%가 선택하였다. 따라서 재러 고려인들은 ‘조선’과 ‘미국’을 통일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

표 8에서 보듯이 출생지별로 보면 ‘조선’에 대한 책임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은 중앙아시아출신자들(조선 58.4% 대 미국 25.7%)이며 그 뒤를 연해주출신자들(조선 48.1% 대 미국 14.8%)이 잇고 있다. 반면 사할린출신자들은 조선 37.5% 대 35.0%로 상대적 격차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사할린의 조사대상자의 숫자를 연해주의 숫자와 동일하게 한다면 ‘조선’은 54.9%는 46.75%로 떨어지고 미국은 26.1%에서 26.35%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았을 때, 굳이 외부적 책임을 거론한다면 재러 고려인들은 ‘미국’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출생지별 선택의 차이를 모국 선택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표 8에서 나타나는 통일의 걸림돌에 대한 선택이 모국 선택 경향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은 모국을 묻는 질문에 24.5%가 ‘러시아’라고 답했으며 모국=조선은 7.4%, 모국=한국은 10.1%에 불과한 반면 한반도는 40.1%나 되었다. 연해주출신자는 모국을 묻는 질문에 11.1%만이 ‘러시아’라고 했으며 모국=조선, 모국=한국이 동일하게 14.8%이며 한반도는 37.0%였다. 반면 사할린출신자는 12.5%가 러시아를 선택하고 모국=조선은 17.5%, 모국=한국은 47.5%인 반면 한반도는 12.5%에 불과했다. 따라서 모국의 정체성을 러시아에 두는 경우와 한반도에 두는 경우 양자 모두에게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는 중앙아시아→연해주→사할린이다. 또한, 남 또는 북이라는 현실적으로 한(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국가와 자신의 모국을 일치시키는 비중이 높은 순서는 역으로 사할린→연해주→중앙아시아였다.

그런데 이런 모국 선택을 ‘통일의 걸림돌’과 연결시켜 본다면 첫째, 남/북, ‘한반도’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한(조선)반도에 대한 민족정체성이 높은 순서대로 한(조선)반도의 분단에 대한 책임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과 북에서 책임을 찾는 비중이 높은 순서가 한(조선)반도에 대한 민족정체성이 낮은 중앙아시아(60.4%), 연해주(55.4%), 사할린(40.0%)사할린(37.5%)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둘째, 통일의 걸림돌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에도 출생지역에 따라 책임을 묻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할린과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이 주로 미국의 책임(사할린 35.0%, 중앙아시아 25.7%, 연해주 14.8%)을 선택한 반면 연해주출신자들은 일본의 책임(연해주 7.4%, 사할린 2.5%, 중앙아시아 1.9%)을 더 많이 묻고 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지역이 유럽에 가까워 미/소 간 동서냉전에 익숙한 반면 연해주지역은 항일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역사적 근거지 중에 하나였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셋째, 모국을 남 또는 북과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선=모국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출신지역은 사할린, 연해주, 중앙아시아인데, 한국을 통일의 걸림돌로 보는 비중이 높은 순위는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이다. 따라서 여기서 모국 선택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모국=조선의 비중이 높은 출신지역일수록 조선을 통일의 걸림돌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뿐이다. 이것은 모국=조선의 비중이 높은 출신지역이 사할린, 연해주, 중앙아시아 순이라면 조선을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본 비중이 높은 지역은 그것의 정반대인 중앙아시아, 연해주, 사할린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이 또한 반드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래 표 9에서 보듯이 분단의 책임을 굳이 남과 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했을 경우에 드러난다.

표 9. 현재 분단이 지속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입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한국	8.6	9.5		18.5	2.5	8.2
조선	79.8	81.1	66.7	70.4	67.5	82.9
중복응답	4.3	3.7	10.0	7.4	7.5	3.5
무응답	7.4	5.7	23.3	3.7	22.5	5.4

위의 표 9에서 보듯이 ‘현재 분단이 지속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 중 79.8%가 ‘조선’을 선택했다. 이것은 재러 고려인들이 압도적으로 분단에 관한 책임을 한(조선)반도 내부에 찾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이 아니라 ‘북’에 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할린출신자들의 모국=조선이 17.5%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에 불과한 반면 연해주출신자들은 모국=조선으로 사할린출신자들보다 낮은 14.3%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8.5%나 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할린출신자들은 47.5%가 모국=한국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책임이 2.5%에 불과한 반면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은 모국=한국 선택 비율이 10.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책임이 82.9%나 되었다. 따라서 모국=한국, 모국=조선이라는 정체성이 그대로 분단의 책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사할린출신자들의 무응답이 상당히 많다는 점과 사할린-연해주출신자들의 중복응답이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남과 북 중 어느 하나의 책임을 물었을 수 없거나 둘 중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분단의 책임을 남과 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 모국 선택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전반적으로 ‘조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0.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45.1	43.6	60.0	55.6	50.0	43.6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6.1	6.8				7.8
한국이 미국편에서 조선을 봉쇄하기 때문에	8.3	8.1	10.0	3.7	12.5	7.8
조선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4.7	36.5	16.7	25.9	25.0	37.0
중복응답	5.2	4.7	10.0	14.8	10.0	3.5
무응답	0.6	0.3	3.3		2.5	0.4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한국보다는 조선의 책임을 이렇게 많이 묻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이 ‘남과 북의 적대’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었으며 2차적으로 ‘북’에서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표 10이 보여주듯이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한국(남)과 조선(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45.1%)와 ‘조선(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34.7%)를 1순위와 2순위로 꼽았다. 따라서 재러 고려인들은 ‘남과 북의 적대시’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면서도 ‘조선의 비개혁/개방’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분단의 책임을 ‘조선’에 더 많이 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앞의 분단 책임과 마찬가지로 조사지역과 출생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연해주지역과 사할린지역의 표본수를 동일하게 하면 이와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연해주지역은 ‘남북 적대시’가 43.6%이고 ‘조선의 비개혁/개방’이 36.5%인 반면 사할린지역은 ‘남북 적대시’ 60.0% 대 ‘조선의 비개혁/개방’ 16.7%이었다. 그러나 연해주지역에 비해 사할린지역의 표본수를 같은 수로 한다면 ‘남북 적대시’는 45.1%에서 51.8%로 올라가고 ‘조선의 비개혁/개방’은 34.7%에서 26.6%로 내려가게 된다. 따라서 지역적 균형을 잡아서 본다면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전반적으로 ‘남북 적대시’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 적대시’보다 ‘조선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원인을 찾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출신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지역-출생지에 상관없이 ‘남북 적대시’가 1위, ‘조선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2위라는 점에서 재러 고려인들은 ‘조선의 비개혁/개방’을 2차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지별로 여론의 차이가 있는데, 중앙아시아출신들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들의 이주와 탄압의 역사를 반영하듯이 외세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다른 지역출신자들은 전혀 선택하지 않은,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를 7.8%나 선택했다는 점이나 사할린출신자들이 ‘한국(남)이 미국편에서 조선(북)을 봉쇄하기 때문에’를 8.3%나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의 여론은 출생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이 보는 통일의 장애물은 한(조선)반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으며 내부적으로 조선의 책임이 크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별-출생지별-연령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걸림돌로,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조선’을 첫 번째로 선택하고 있으며 ‘미국’ 책임 또한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동일하게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역사에 따라 통일의 장애물을 외부에서 찾거나 내부에서 찾는 비중이 달라진다. 남/북, 한(조선)반도에 대한 민족정체성이 강할 경우 장애물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할 경우, 외부보다 내부에서 찾는다. 또한, 외부에서 찾을 경우에도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 사할린과 중앙아시아출신자는 미국을, 연해주출신자는 일본에서 찾고 있다.

셋째, 분단의 책임을 남과 북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조선’에 대해 압도적으

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지역에 상관없이 조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이렇게 재러 고려인들이 통일의 장애물을 한(조선)반도 내부가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것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를 '남과 북의 적대'이라는 내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조선'의 책임을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선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통일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의 대북정책: 대북경제지원과 대북보쇄정책의 괴리

재러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중요성 및 분단 책임과 통일 장애 문제에 이어 현재 한국의 통일정책과 통일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정책과 통일을 위한 장기적 비전에 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두 가지 정책은 한국의 대북경제지원과 '대북보쇄정책'이었으며 장기적 비전에 관한 생각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와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것은 현재의 정책에 대한 견해만으로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만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표 11.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남)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나이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매우 그렇다	13.2	11.5	30.0	7.4	22.5	12.5		7.3	9.1	13.2	17.3	22.9
그렇다	42.9	42.6	46.7	25.9	45.0	44.4	36.8	41.8	40.3	47.2	50.0	40.0
그렇지 않다	43.6	45.6	23.3	66.7	32.5	42.8	63.2	50.9	50.6	39.6	32.7	35.7
무응답	0.3	0.3				0.4						1.4

표 11에서 보듯이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의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여론은 상반된 두 가지 태도로 양분되어 있었다.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매우 그렇다' 13.2%, '그렇다' 42.9%로 절반이 약간 넘는 56.1%였으며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로 43.6%였다. 이것은 재러 고려인들이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대립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별, 출생지별, 연령별로 보면 상황은 약간 다르다.

앞에서도 분단 문제에 대해서 '북'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묻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출신'이지만 여기서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해주출신자들(66.7%)이다. 이에 반해 사할린출신자들은 앞에서 북에 대한 책임을 덜 묻고 '미국 책임'을 더 많이 든 것처럼 여기서도 찬성 여론(32.5%)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연해주지역주민들은 여론이 양분되어 있다면 사할린지역주민들은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76.7%)하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30.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할린지역의 표본수를 동등하게 만든다면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찬성률은 '매우 그렇다' 13.2%에서 20.75%로, '그렇다'는 42.9%에서 44.65%로 올라가 전체 찬성률은 56.1%에서 65.4%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의 찬성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률과 찬성의 강도가 올라가고 나이가 내려갈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다룬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한(조선)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추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10대의 경우에는 매우 독특한 답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 하면 10대는 ‘분단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 21.1%, 조선 68.4%라고 함으로써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한국에 책임을 묻고 조선에 가장 적게 묻은 답변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10대가 러시아, 한반도, 러시아와 한반도 각각을 15.8%로 모국으로 선택한 반면 조선을 모국으로 선택한 비율은 31.6%로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국선택이 10대의 경우 남과 북의 호감도와 아예 상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호감도에서 10대는 북을 선택한 경우가 없고 오히려 남을 선택하는 비율이 57.9%나 되었다. 따라서 10대는 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경제지원에도 반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관적이지 못하다. 왜냐 하면 아래 표 12에서 보듯이 ‘대북 봉쇄정책’에 대한 반대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별로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반대가 높다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을 자신의 삶이나 민족의 발전과 연결시키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2. 현재 한국(남)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나이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매우 그렇다	3.1	2.7	6.7		5.0	3.1	10.5	1.8	3.9	1.9	3.8	1.4
그렇다	14.1	14.5	10.0		12.5	16.0		12.7	15.6	20.8	17.3	10.0
그렇지 않다	61.3	60.5	70.0	63.0	62.5	61.1	63.2	69.1	57.1	58.5	61.5	61.4
매우 그렇지 않다	19.9	20.6	13.3	37.0	20.0	17.9	26.3	16.4	22.1	18.9	15.4	22.9
중복응답	0.3	0.3				0.4						1.4
무응답	1.2	1.4				1.6			1.3		1.9	2.9
Top2(1+2)	17.2	17.2	16.7		17.5	19.1	10.5	14.5	19.5	22.6	21.2	11.4
Bottom2(3+4)	81.3	81.1	83.3	100.0	82.5	79.0	89.5	85.5	79.2	77.4	76.9	84.3

게다가 위의 표 12가 보여주듯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재러 고려인들의 생각은 ‘대북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중 81.3%가 반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9.9%는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반된 태도는 지역별, 출생지별, 연령별 차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찬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연해주출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이다. 연해주출신자들은 대북봉쇄정책 자체에 대한 찬성 의견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연해주출신자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매우 상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별로도 10, 20대가 각각 89.5%, 85.5%로,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함으로써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경제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높다는 점에서 아주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남)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도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6.4%인 반면 농촌은 70.6%로, 농촌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남)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 의견’이 도시(80.2%)보다 농촌(88.2%)이 높았다. 따라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훨씬 더 대북정책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현재 한국(남)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남)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교차해서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여론의 추이는 더욱 기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왜냐 하면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들 중 93.0%가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함으로써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매우 그렇다’거나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들 중 대북봉쇄정책에 대해 반대한 사람들(‘매우 그렇다’ 74.4%, ‘그렇다’ 72.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대북봉쇄정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재러 고려인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일관성으로 볼 때, 가장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사할린출신자’들로 보인다. 사할린출신자들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되게 경제지원이나 화해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할린출신자들이 ‘반한, 친북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대북 경제지원 정책을 친북 또는 대북 퍼주기 사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북, 대남에 대한 호감도 조사는 이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13. 한국(남)과 조선(북)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갑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나이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한국	63.5	62.8	70.0	55.6	67.5	63.8	57.9	78.2	63.6	67.9	53.8	57.1
조선	3.7	3.4	6.7		5.0	3.9		3.6	3.9	1.9	3.8	5.7
둘 다 똑 같다.	32.5	33.4	23.3	44.4	27.5	31.9	42.1	18.2	32.5	30.2	40.4	37.1
무응답	0.3	0.3				0.4					1.9	

위의 표 13이 보여주듯이 지역별로 한국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할린 70.0% 대 연해주 62.8%로, 사할린 지역이 훨씬 높다. 게다가 출생지별로 볼 때에도 사할린출생자들이 67.5%로 다른 지역 출생자보다 더 높다. 반면 ‘둘 다 똑같다’라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연해주출신자들(44.4%)이다.

하지만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연해주이며 연령별로도 낮아질수록 반대하는 견해가 높아진다. 이것은 앞에서 모국 선택이 남과 북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을 때 한국 또는 조선에 책임을 묻는 비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감도 또한 모국 선택과 상관성이 없으며 더욱이 대북정책에 대한 호호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 대한 피리는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의 답변 중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국(남)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같은 종족으로서의 대우와 존중’(27.3%)에 이어 불과 1.5% 차이로 ‘한-러 관계의 개선’(25.8%)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지역 출신자들이 1위로 꼽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출생지별로 보면 ‘한-러 관계의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연해주출신자들이다.

사할린출신자들은 ‘한국 사람들의 러시아 내에서의 불미스런 언행’을 1위(27.5%)로 꼽았으며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은 ‘같은 동족으로서의 대우와 존중’을 1위(29.6%)로 꼽은 데 반해 연해주출신자는 압도적으로 ‘한-러 관계 개선’(37.6%)을 꼽았으며 중앙아시아출신자들 또한 1위 ‘같은 동족으로서의 대우와 존중’에 이어 불과 2% 차로 ‘한-러 관계 개선’(27.6%)을 꼽았다. 따라서 연해주출신자들이 ‘대북경제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대북지원보다는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한 자신들과의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연해주지역에 중국-일본-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출신자들 또한 연해주출신보다 못하지만 42.8%가 대북경제지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들의 한국에 원하는 ‘한-러 관계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역별 정책에 대한 견해의 차이나 자기 내부의 모순은 그들의 모국 선택이나 대남-대북 호감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적으로 정책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외에 거주국의 국가적 태도, 그 사회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양과 내용에 의해서도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농촌에 비해 도시의 호감도가 약 10%정도 낮은 데 비해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찬성률(도시 63.2%, 농촌 29.4%)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며 나이가 어릴수록 찬성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적 판단은 순전히 경제적 이해관계나 지역적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판단 속에 나름의 비전과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면서 나름의 자신들만의 판단체계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정책에 대한 판단은 그 자체로 어느 하나의 지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판단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책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들과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판단체계를 해석하고자 했다.

3)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비전: 상호신뢰성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재의 정책과 중장기적 비전에서 진행되는 정책을 서로 혼동하거나 모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현재의 정책이 언론매체나 거주지역의 국가 정책, 정치적 대립,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의 양과 형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정책 중 어느 하나만을 묻고 그 결과가 곧 그들의 견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보다 정확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들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들의 현재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비전이 아예 모순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 양자의 모순 속에서 그 괴리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려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여론이 과연 어떤 방향에서 수렴되면서 자신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괴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다.

표 14. 분단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합니까?	
상호 신뢰성 회복	36.2	남북 간 민간 교류	6.4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17.2	경제 협력	18.1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9.5	남북정상회담	12.6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11.0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45.7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3.8	남북 간 문화 교류	3.1
중복응답	11.7	중복응답	13.8
무응답	0.6	무응답	0.3

그런데 위의 표 14가 보여주듯이 재려 고려인들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호 신뢰성 회복’을 36.2%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각각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17.2%,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3.8%,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11.0%,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9.5%를 선택했다.

또한,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45.7%)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제협력(18.1%)이나 남북정상회담(12.6%)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과 경제협력,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노력이나 외세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가 남북 간 긴장 완화나 남북정상회담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이 답변들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앞의 단계적인 정책 진단, 특히 ‘대북봉쇄정책’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다룬 ‘대북봉쇄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표 15. 대북정책과의 비교 분석

		현재 한국(남)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 니까?	상호 신뢰성 회복	9.3	89.8
	남북 공동번영 방안 마련	39.3	60.7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 엇부터 해야 합니까?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29.0	71.0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8.3	86.1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1.1	88.9
	남북 간 민간 교류	28.6	71.4
	경제 협력	30.5	69.5
	남북정상회담	22.0	75.6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8.7	89.9
	남북 간 문화 교류	40.0	60.0

위의 표 15가 보여주듯이 ‘현재 한국(남)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 값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 값을 서로 비교해 보면 ‘상호신뢰성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북봉쇄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상호신뢰성 회복’을 주장한 사람들은 89.8%가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한 반면 ‘외세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를 주장한 사람들은 88.9%가,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노력’을 주장한 사람들은 86.1%, 그리고 ‘정기적인 남북대화의 정착’을 정착한 사람들은 71.0%와 ‘남북공동번영방안 마련’을 주장한 사람들은 60.7%가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했다.

또한, ‘현재 한국(남)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 값과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 값을 서로 비교하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89.9%가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한 반면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는 사람은 75.6%만이, ‘남북 간 민간교류’를 주장하는 사람은 71.4%가, 그리고 ‘경제협력’을 주장하는 사람과 ‘남북 간 문화교류’를 주장한 사람은 각각 69.5%와 60.0%가 반대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첫째, 재러 고려인들은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해서는 ‘상호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위의 표 15에서 보듯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호신뢰성 회복’(대북봉쇄정책 반대율 89.8%)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대북봉쇄정책 반대율 89.9%)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다소 상반된 태도를 보였던 ‘대북봉쇄정책’과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모순이 큰 틀에서는 ‘경제지원’보다 ‘남북 간 긴장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것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남북공동번영방안 마련’과 ‘정기적인 남북대화의 정착’을 선택한 사람들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경제협력’과 ‘남북 간 문화교류’를 선택한 사람들이 대북봉쇄정책에 가장 많이 찬성한다는 점(순서대로 대북봉쇄정책 찬성률 39.3%, 29.0%, 30.5%, 40.0%)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현재 한(조선)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공동의 협력보다 무엇보다 남북 간의 상호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6. 통일을 위해 필요한 일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의 지역별 구성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상호 신뢰성 회복	36.2	36.8	30.0	44.4	27.5	36.6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17.2	17.9	10.0	14.8	10.0	18.7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9.5	9.8	6.7	7.4	7.5	9.7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책 노력	11.0	11.5	6.7	7.4	10.0	11.7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3.8	14.5	6.7	11.1	15.0	14.0	
중복응답	11.7	9.5	33.3	14.8	25.0	9.3	
무응답	0.6		6.7		5.0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할 일입니까?	남북 간 민간 교류	6.4	7.1		3.7	2.5	7.0
	경제 협력	18.1	16.2	36.7	14.8	27.5	17.1
	남북정상회담	12.6	13.5	3.3	11.1	7.5	13.2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45.7	48.0	23.3	44.4	27.5	49.0
	남북 간 문화 교류	3.1	3.0	3.3	3.7	5.0	2.7
	중복응답	13.8	11.8	33.3	18.5	30.0	10.9
무응답	0.3	0.3		3.7			

그러나 셋째, 위의 표 16에서 보듯이 지역별-출생지별 특성에 따라 분단극복을 위한 과제에 대한 생각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에서 ‘상호신뢰성 회복’을 꼽은 사람은 연해주지역(36.8%)이 사할린지역(30.0%)보다 높았다. 또한, 연해주출신(44.4%)은 중앙아시아출신(36.6%)이나 사할린출신(27.5%)에 비해 압도적으로 ‘상호신뢰성 회복’을 선택했다. 반면 중앙아시아(18.7%)는 연해주(14.8%)나 사할린출신(10.0%)에 비해 ‘남북공동번영마련’에 방점을 두었으며 사할린(15.0%)과 중앙아시아출신(14.0%)은 연해주출신(11.1%)에 비해 ‘외세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를 꼽았다. 이것은 사할린출신과 중앙아시아출신들이 연해주출신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출신들은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은 이유’로 다른 지역출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7.8%)를 선택한 데에서 보듯이 ‘외세의 영향’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 또한, 연해주출신보다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중요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할린출신은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 다른 지역출신에 비해 압도적으로 ‘미국’을 꼽았으며 일제 식민지 지배 청산에서도 ‘자주적 외교와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들었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와 사할린출신들은 ‘외세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할린출신자들은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할 일입니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협력’을 많이 들고 있다. 물론 ‘경제 협력’은 18.1%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할린출신이다. 사할린출신은 연해주출신 14.8%, 중앙아시아출신 17.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27.5%가 경제 협력을 꼽았다. 이것은 사할린출신자들만의 선택 비중으로 볼 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27.5%)와 같은 동일하게 1위를 기록한 수치이다. 따라서 사할린출신자들은 ‘경제 협력’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할린이 대량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러 가스관연결사업’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연해주 또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국-조선을 연결하는 ‘TKR-TSR의 연계’사업의 직접적 당사자라는 점에서 연해주와 사할린의 차이는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연해주는 철도

가 지나가는 지역이라면 사할린은 천연가스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다 더 경제적 이해의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전체적으로 첫째, 통일의 장애물을 ‘조선’과 ‘미국’에서 찾으며 분단의 책임을 한(조선)반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별-출신지별-연령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걸림돌로,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조선’을 1위로 선택하고 있으며 미국을 2위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둘째, 한국이 ‘대북봉쇄정책’을 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신뢰성 회복’과 ‘남북 공동 번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두 가지 중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지역적인 비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셋째, 전체적으로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이 두 가지 계열 중에서 ‘상호 신뢰성 회복’이라는 계열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은 ‘남북 간의 상호 신뢰성’이라는 관점이며 이런 관점 하에 지금부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실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 통일한(조선)반도의 미래적 상: 주변국과의 협력-공존과 경제 강국의 건설

재러 고려인들은 두 번의 이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다르다. 그들은 한(조선)반도에서 연해주-사할린 지역으로 옮겨갔으며 이후 스탈린시기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달리 더 많은 다른 인종들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이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구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 모범적인 소비에트인으로서 살았다. 따라서 이들은 한(조선)민족의 고유한 풍속들과 언어-문자를 보장받지 못했으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있기 이전까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다가 그 이후 다시 재러 고려인들의 선조가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민족정체성은 다른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86.8%가 러시아가 조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높은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을 묻는 민족정체성에서 다양한 답변을 보이고 있다. 즉, 러시아 21.8%, 조선 9.5%, 한국 15.3%, 한(조선)반도 36.2%, 러시아와 한반도 15.0%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이 한(조선)반도이지만 나머지는 조선, 한국, 러시아와 한반도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곧 ‘한(조선)반도의 분단’ 속에서 민족의 귀속성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민족정체성의 다양한 분화가 분단 현실을 반영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으로 모국이라는 과거지향성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일한(조선)반도’라는 미래지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7.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경제 강국의 건설	31.9	30.7	43.3	14.8	42.5	32.3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	8.3	9.1		11.1		9.3
문화 선진국의 건설	2.8	3.0		3.7	5.0	2.3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40.2	42.6	16.7	48.1	22.5	42.0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	7.1	7.4	3.3	7.4	7.5	6.6
중복응답	9.8	7.1	36.7	14.8	22.5	7.4

위의 표 17은 바로 이런 미래지향성으로서 ‘통일한(조선)반도’라는 상상 속의 미래 모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재러 고려인들은 첫 번째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40.2%)을 들었다. 그리고 뒤이어 그들은 ‘경제 강국의 건설’(31.9%)을 들고 나머지,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8.3%)나 ‘해외동포들과의 연대 강화’(7.1%), ‘문화선진국의 건설’(2.8%)은 비교적 낮은 수치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출생지별 차이를 보면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연해주(48.1%)와 중앙아시아출신자들(42.0%)이며 ‘경제 강국의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할린 지역(43.3%)과 사할린 출신자들(42.5%)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출신들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보다 거의 10% 높은 비율로 ‘경제 강국의 건설’을 주장한 반면 사할린출신자들은 ‘경제 강국의 건설’이 42.5%로, 연해주나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이 선택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22.5%에 비해 두 배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각 지역 출신지에 따라 1위가 달랐다. 중앙아시아와 연해주출신자는 1위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임에 반해 사할린출신자에게 1위는 ‘경제 강국 건설’이었다. 게다가 연해주출신자들은 ‘경제 강국의 건설’을 2위로 선택했지만 그 선택율이 다른 지역출신자에 비해 떨어지는 대신에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에 다른 지역출신자들에 비해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서로 통일한(조선)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1위를 선택하는 것이 달랐던 것일까? 이것은 곧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이 거주하는 연해주지역이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교류에서 교차하는 지점이면서 최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향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사할린출신자들은 사할린지역이 앞에서 말한 천연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연해주출신자들이 ‘정치-군사적 대국 건설’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방점을 둔 것은 이 지역이 일제의 항일무장투쟁 경험을 가진 지역으로, 힘이 약해 나라를 잃었던 경험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래의 모국으로서 ‘통일한(조선)반도’의 상을 그리는 차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이 미래의 ‘통일한(조선)반도’에 대한 상이 수렴되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1, 2위를 ‘주변국과의 협력-공존’과 ‘경제 강국의 건설’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물음을 앞에서 다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과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서로 상호 교차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첫째, ‘통일을 위해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을 제시한 사람들은 51.8%가 ‘경제 강국의 건설’을 선택하여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반면 ‘상호신뢰성 회복’이나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노력’을 선택한 사람들은 각각 56.8%, 63.9%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곧 ‘경제 강국 건설’은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이라는 중장기적 정책 비전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은 ‘상호 신뢰성 회복’이나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노력’이라는 중장기적 정책 비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장기적 정책 비전은 또한, ‘분단 극복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 협력’을 선택한 사람들 66.1%가 ‘경제 강국의 건설’을 지지했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선택한 사람들 61.7%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곧 ‘경제 강국의 건설’이 ‘경제 협력’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러 고려인들은 미래의 ‘통일한(조선)반도’에 대한 상과 ‘통일의 장기적 비전’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열은 다음과 같다.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이라는 통일한(조선)반도의 상은 ‘상호 신뢰성 회복’,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며 ‘경제 강국

의 건설'이라는 상은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역별로 연해주지역과 사할린지역으로 양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8.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의 교차 분석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애의 회복	정치적 자유	민족 주체성	경제적 평등	보편적 인권	중복응답
경제 강국의 건설	31.3	38.5	46.2	45.5	22.2	22.2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	7.7	11.5	15.4	9.1	11.1	2.8
문화 선진국의 건설	2.2	7.7	7.7		5.6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48.4	26.9	30.8	27.3	55.6	8.3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	7.7	7.7		12.1	5.6	2.8
중복응답	2.7	7.7		6.1		63.9

게다가 이런 두 가지 계열의 흐름은 이후 다르게 될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과 교차 비교해 보면 위의 표 18에서 보듯이 재러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통일에 대한 상과 가치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 중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선택한 사람들은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우애의 회복'(48.4%)과 '보편적 인권'(55.6%)을 선택하였다. 반면 '경제 강국의 건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민족주체성'(46.2%)과 '경제적 평등'(45.5%)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곧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통일한(조선)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사람들의 경우,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이 분열과 적대, 인권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보고 이를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남북 간의 상호 신뢰성'을 회복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고 본다면 '경제 강국의 건설'이라고 본 사람들은 한(조선)민족의 역사적 고난이 모국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그러므로 첫째,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재러 고려인들이 그리고 있는 통일한(조선)반도의 상과 미래는 전체적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하면서도 남북 간의 우애를 회복하고 인권을 실천하는 나라'이자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통일한(조선)반도의 상과 미래는 지역별로, 출생지별로 다른 두 가지의 계열과 착종되면서 연해주지역과 사할린지역으로 둘로 나뉘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런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의 통일한(조선)반도의 상과 미래는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비전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변국과의 협력-공존하면서도 남북 간의 우애를 회복하고 인권을 실천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공동 번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제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통일한(조선)반도의 상과 미래에 대한 연해주지역주민과 사할린지역주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계열은 연해주 대 사할린이라는 두 개의 지역으로 완전히 양분

5)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강국 건설을 이야기하면 경제력이 강한 나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 강국'은 경제력이 크기만 한 나라가 아니다. 왜냐 하면 '경제 강국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통일한(조선)반도의 상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경제적 평등'을 선택한 비율이 55.6%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경제 강국 건설'은 그냥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져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상호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히는 여론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통일한(조선)반도의 가치 지향성과 남과 북이 서로 배워야 할 가치들

1) 통일한(조선)반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 우애의 회복

통일한(조선)반도의 상과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한편으로 남북 관계에서의 중장기적 정책비전과 연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일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남/북이 통일을 위해 서로 배워야 할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 가치는 통일한(조선)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배제해왔던 것들을 지양하고 서로 배워야 할 가치의 방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에게 앞에서 물은,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더불어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표 19.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도농별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도시	농촌
우애의 회복	55.8	58.4	30.0	74.1	30.0	57.6	51.8	70.6
정치적 자유	8.0	8.1	6.7		10.0	8.6	8.7	5.9
민족 주체성	4.0	4.1	3.3	7.4	5.0	3.5	4.7	1.5
경제적 평등	10.1	9.8	13.3	7.4	17.5	9.3	11.5	4.4
보편적 인권	11.0	11.8	3.3	3.7	5.0	12.8	11.1	11.8
중복응답	11.0	7.8	43.3	7.4	32.5	8.2	12.3	5.9

이 물음에 대해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통일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애의 회복’을 꼽았다. 위의 표 19가 보여주듯이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재러 고려인들은 55.8%가 ‘우애의 회복’을 선택하고 그 뒤를 이어 ‘보편적 인권’(11.0%)과 ‘경제적 평등’(10.1%)을 선택했으며 ‘정치적 자유’(8.0%)→‘민족주체성’(4.0%)을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별, 출생지별, 연령별, 도농별로 차이가 있는데 연해주지역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출신들은 상대적으로 ‘보편적 인권’에 비중을 둔 반면 연해주출신은 압도적으로 ‘우애의 회복’을 선택했으며 사할린지역주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할린출신자들은 ‘경제적 평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농촌이 도시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 이것은 농촌이 도시보다 공동체적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의 선택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래에 건설될 통일한(조선)반도의 상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한(조선)반도에서의 분단 지속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물음을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과 교차 분석해 보면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와 ‘조선(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를 든 사람들은 각각 63.9%와 57.5%로, ‘우애의 회복’을 선택한 반면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와 ‘한국(남한)이 미국편에서 조선(북조선)을 봉쇄하기 때문에’를 선택한 사람들의 답변

은 분산되었다.

특히, ‘한국(남한)이 미국편에서 조선(북조선)을 봉쇄하기 때문에’는 ‘우애의 회복’을 29.6%만이 선택하여 가장 낮았고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은 민족주체성을 14.8%나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적 평등’은 18.5%나 되었다. 또한,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를 선택한 사람들은 ‘경제적 평등’과 ‘보편적 인권’에 각각 20.0%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한(조선)반도의 분단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일수록 ‘우애의 회복’과 같이 남북 상호 간의 화합이나 우애보다는 부강한 나라나 가치를 선호했다. 반면 분단의 책임을 한(조선)반도 내부에서 찾는 사람들일수록 ‘우애의 회복’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재러 고려인들의 생각은 ‘분단 현실의 진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로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와 ‘조선(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를 든 사람들은 우애의 회복을 주장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와 ‘한국(남한)이 미국편에서 조선(북조선)을 봉쇄하기 때문에’를 이유로 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민족주체성’과 ‘경제적 평등’, ‘보편적 인권’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선택했든 간에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1위를 차지한 것은 ‘우애의 회복’이었다. 이런 점에서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통일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적 가치는 ‘우애의 회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남과 북이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 세계 속의 민족적 가치

극동지역 거주 재러 고려인들은 ‘우애의 회복’을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음으로써 미래에 건설될 통일한(조선)반도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합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통일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서도 ‘주변국들과의 협력-공존’이었다. 이것은 곧 통일한(조선)반도가 통일된 이후, 더 이상 남과 북이 싸우지 말고 더불어 합력을 창출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공존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도성이 아니라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가치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재러 고려인들은 위의 표 19가 보여주듯이 ‘보편적 인권’과 ‘경제적 평등’, ‘정치적 자유’를 각각 2, 3, 4위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곧 남과 북이 어느 한쪽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배워 합력을 창출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표 20. 남쪽이 북쪽에,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18.4	17.9	23.3	14.8	30.0	17.1
	민족적 동포애	22.4	22.6	20.0	14.8	20.0	23.7
	평등 사회 건설 의지	8.0	8.1	6.7	11.1	5.0	7.4
	집단주의	14.7	15.9	3.3	33.3	5.0	14.4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26.4	25.7	33.3	14.8	27.5	27.6
	중복응답	4.0	4.4		11.1	2.5	3.5
	무응답	6.1	5.4	13.3		10.0	6.2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26.7	27.7	16.7	25.9	20.0	28.0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개방적인 사회	48.8	48.0	56.7	37.0	57.5	48.6
	자유경쟁	10.7	10.1	16.7	11.1	12.5	10.5
	개인주의	4.3	4.7		7.4		4.3
	세계화	3.4	3.7		7.4	2.5	3.1
	중복응답	5.8	5.4	10.0	11.1	7.5	5.1
	무응답	0.3	0.3				0.4

위의 표 20이 보여주듯이 재러 고려인들은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26.4%)과 ‘민족적 동포애’(22.4%)에 이어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18.4%)를 들었다. 반면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으로는 ‘개방적인 사회’(48.8%)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26.7%)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이 조선으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민족적 동포애와 같은 민족적 가치를 배우고 바라고 있으며 반면 조선은 한국으로부터 보다 개방적이면서도 국제적 환경을 고려한 현실 정치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출생지별로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사회’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남쪽이 북쪽에 비해 부족한 점이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며 북쪽이 남쪽에 비해 부족한 점이 ‘개방적인 사회’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둘째, 2위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변차를 보이고 있다.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는 연해주가 ‘민족적 동포애’를 들고 있는 반면 사할린은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들고 있으며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는 연해주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를 들고 있는 반면 사할린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와 더불어 똑같은 비율로 ‘자유경쟁’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연해주지역이 ‘민족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반면 사할린지역은 ‘국제적이고 경제적인 현실감각’을 보다 중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출생지별로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에서만 차이가 나타난다. 즉, 연해주출신자들은 33.3%가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으로 ‘집단주의’를 1위로 선택한 반면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은 27.5%가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사할린출신자들은 30.0%가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선택하여 1위로 선택하고 있는 반면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 분포도만 다를 뿐, 순위에서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각 출생지의 역사적 배경, 연해주의 항일무장투쟁의 경험과 중앙아시아의 강제이주와 탄압, 그리고 사할린출신자들의 강한 모국에서 본국 지향성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들을 앞에서 다룬 '통일한(조선)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가치' 분석과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상관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연해주지역은 '통일한(조선)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1위로 꼽은 반면 사할린지역은 '경제 강국의 건설'이었으며 '통일된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가치'에서 비록 '우애의 회복'이 모든 지역에서 1위였지만 연해주지역은 '보편적 인권'이 2위이며 사할린지역은 '경제적 평등'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즉, 연해주지역은 남쪽이 북쪽으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외에 '민족적 동포애'를 배우고 북쪽은 남쪽으로부터 '개방적인 사회 건설' 이외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를 배워서 남쪽은 더 민족적 연대의 가치를 살리고 북쪽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할린지역은 남쪽은 북쪽으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외에 '독립국가의 주체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배우고 북쪽은 남쪽으로부터 '개방적인 사회 건설' 이외에 '자유경쟁'을 배워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과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에 대한 상호 교차에 대한 재려 고려인들의 태도는 앞에서 분석한 두 가지 흐름의 맥락과 상호 어긋나지 않는다. 즉, 통일한(조선)반도의 상과 미래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하면서도 남북 간의 우애를 회복하고 인권을 실천하는 나라'라는 맥락에서 '실용적인 현실적인 외교'가 배치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라는 맥락 속에서 '자유경쟁'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극동지역 재려 고려인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은 북으로부터 '전통문화의 자부심'과 '민족적 동포애'를 배우고 북은 남으로부터 '개방적인 사회 건설 및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를 배워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 남은 북으로부터 '전통문화의 자부심+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배우고 북은 남으로부터 '개방적인 사회+자유경쟁'을 배워 경제적인 강국을 건설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다.

3)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고쳐야 할 점: 무시하는 태도와 국제 규범 질서 준수

극동지역 재려 고려인들은 전체적으로 남쪽이 북쪽으로부터 '전통문화의 자부심'과 '민족적 동포애',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본 반면 북쪽이 남쪽으로부터 '개방적인 사회'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태도', 그리고 '자유경쟁'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한(조선)반도의 상과 미래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및 '경제 강국의 건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와 같은 통일한(조선)반도의 건설을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에게서 배워 자신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을 위해 남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과 '북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을 물어보았다.

표 21.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조사지역			출생지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28.2	26.0	50.0	22.2	35.0	28.0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	17.5	19.3		25.9	5.0	18.7
	외세 의존적 태도	17.8	18.9	6.7	3.7	17.5	19.1
	대북 퍼주기 사업	20.6	21.3	13.3	18.5	15.0	21.8
	대북봉쇄정책	8.9	9.5	3.3	18.5	5.0	8.2
	중복응답	6.7	5.1	23.3	11.1	20.0	4.3
	무응답	0.3		3.3		2.5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경제 개방과 발전	24.8	24.3	30.0	11.1	32.5	25.3
	남북 교류 활성화	18.7	19.3	13.3	22.2	17.5	18.3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제고	47.2	48.3	36.7	51.9	35.0	48.6
	중복응답	8.6	7.8	16.7	14.8	12.5	7.4
	무응답	0.6	0.3	3.3		2.5	0.4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위의 표 22에서 보듯이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남쪽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점으로,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28.2%)를 1위로 꼽았다. 반면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제고'(47.2%)를 꼽았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남쪽이 고쳐야 할 것'으로, '대북 퍼주기 사업'(20.6%)이나 '외세 의존적 태도'(17.8%),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17.5%)를 든 반면 '북쪽이 고쳐야 할 것'으로는, '경제 개방과 발전'(24.8%), '남북 교류 활성화'(18.7%)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1순위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이 남과 북에 요구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남이 북에, 북이 남에 배워야 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남의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자부심'이나 '민족적 동포애',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북으로부터 배워서 자신을 보완하고 북은 '국제 규범 질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남으로부터 '개방적인 사회'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를 배워서 보다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을 남쪽으로부터 배워 '경제 개방과 개혁'을 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과 북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의 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표 22. 남/북의 이미지와 바라는 점

한국(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조선(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나라다	27.0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나라다	11.3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회다	0.9	폐쇄적인 나라다	42.0
잘 사는 나라다	58.3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다	28.5
인간 차별이 심한 나라다	3.1	평등한 나라다	0.3
인정미가 없는 사회다	1.2	인정미가 넘치는 사회다	2.8
너무 개인주의적인 나라다	3.1	너무 집단주의적인 나라다	5.5
중복응답	5.8	중복응답	9.5
무응답	0.6		
한국(남)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북)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남)에서의 취업 개방	6.7	경제적인 발전	31.3
같은 동족으로서 존중과 대우	27.3	개혁개방	27.0
고려인에 대한 지원과 후원 확대	13.2	대외교류 활성화	3.1
한-러 관계의 개선	25.8	남북관계 개선	28.2
한국(남) 사람들의 러시아 내에서의 불미스러운 언행 자제	17.5		
중복응답	8.9		
무응답	0.6	중복응답	10.4

위의 표 23에서 보듯이 보면 재러 고려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잘 사는 나라'(58.3%)와 '자유로운 나라'(27.0%)이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대우'(27.3%)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재러 고려인들이 한국이 통일을 위해서 고쳐야 할 점으로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28.2%)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 시장경제체제'(17.5%)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반면 재러 고려인들은 조선에 대한 이미

지로 ‘폐쇄적인 나라’(42.0%)와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28.5%)를 꼽고 있다. 이것은 정확히 한국과 대비적이다. 또한, 이것은 재러 고려인들이 조선에 바라는 바가 ‘경제적 발전’(31.3%)과 ‘개혁·개방’(27.0%)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재러 고려인들이 남쪽에 원하는 바의 2순위가 ‘한-러 관계의 개선’(25.8%)이며 북에 바라는 바의 2순위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러 고려인들이 남쪽에 대해서는 ‘잘 사는 나라’이자 ‘자유로운 나라’로서 ‘같은 동족으로 대우’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진행시키면서 교류 확대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북쪽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28.2%)과 ‘개혁·개방’ 정책의 수행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러 고려인들의 생각을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그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민족적 자존감과 동포애를 가지고 자신들과 북을 대우하기를 바라면 조선은 더 세계와 관계를 가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분석 결과와 다른 답변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남쪽이 먼저 고쳐야 할 점으로 2위를 차지한 것이 ‘대북 퍼주기 사업’이라는 점이며 둘째, 2위와 거의 근소한 차이로 3위를 한, ‘외세 의존적 태도’이며 셋째, 4위이지만 3위와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 시장경제체제’이다. 그런데 이를 지역별-출생지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특징들이 앞의 답변 경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대북 퍼주기 사업은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데, 이것은 앞의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답변이 모순적이었듯이 여기서도 별다른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 하면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이 아니라 연해주출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내놓는 답변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양한 심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문제들과 착종되어 있는 문제로 보인다. 둘째, ‘외세 의존적 태도’는 사할린과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할린출신자들이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출신자들이 강제이주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외세의 문제를 다른 지역출신자들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 시장경제체제’는 연해주출신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해주출신자들이 남쪽이 북쪽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다른 지역출신자들에 비해 ‘집단주의’로 꼽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남쪽이 먼저 고쳐야 할 점으로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북쪽이 먼저 고쳐야 할 점으로 ‘국제 규범 질서와 대외 신뢰도 제고’ 및 ‘경제 개방과 발전’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인 남과 북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에게서 배워 상호 민족적 협력을 창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출생지별, 연령별, 도농별 차이를 보이기 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쪽과 북쪽이 소통하면서 서로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남쪽의 경우, 북의 민족적 가치들을, 그리고 북쪽의 경우, 남의 세계적 가치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재러 고려인들은 한국이 조선으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민족적 동포애와 같은 민족적 가치를 배우고 조선은 한국으로부터 보다 개방적이면서도 국제적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정치를 배우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원하는 한(조선)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에서의 공통적 가치는 세계화라는 현실적 추이 속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존에 이바지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도 이런 도전에 직면하여 민족 내적으로는 ‘민족애’와 ‘민족문화의 자부심’에 근거하여 서로 협력을 창출하면서 민족적 발전을 이룩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통일 전망과 통일 한(조선)반도의 미래를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88.7%가 ‘그렇다’고 답변함으로써 통일을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지배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남북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사고하고 있으며 통일이 한(조선)민족의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통일의 장애물을 ‘조선’과 ‘미국’에서 찾으려 분단의 책임을 한(조선)반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북봉쇄정책’을 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신뢰성 회복’과 ‘남북 공동 번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통일의 전망을 아주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 23. 한(조선)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조사지역			출생지			도/농별		
	전체	연해주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도시	농촌	무응답
밝다	59.5	58.4	70.0	51.9	57.5	60.3	62.1	48.5	80.0
어둡다	40.2	41.6	26.7	48.1	40.0	39.7	37.5	51.5	20.0
무응답	0.3		3.3		2.5	0.4			

위의 표 23에서 보듯이 재러 고려인은 한(조선)반도 통일이 밝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59.5%로 어둡다고 본 40.2%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사할린지역이 연해주지역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출생지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도농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 최근 들어 더 많은 국제적 및 한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할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에서 이 지역이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이런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만 분단과 통일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은 남북 분단 극복과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 이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한 자신들 나름의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재 러 고려인들은 단지 정서적-문화적으로만 ‘한(조선)민족’의 일원인 것이 아니다. 그들 또한 민족의 문제에 대 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을 하는, 민족적 문제에서의 정치적 주체이다.

오늘날 소위 코리언조차 다른 이주민들과 같은 디아스포라로 다루면서 ‘탈민족’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 들에게는 민족에 대한 정치적 의식은 문화적 의식만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야말로 오히려 한(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못지않게 분단 극복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민족적 주체’라는 점을 잊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든 긍정적 전망이든 간에 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적대성을 실천적으로 극복하려는 민족적 노력과 해외에 살고 있는 코리언들과 함께 분단 극복의 민족적 우애를 형성해가면서 민족적 합력을 창출하는 통일의 전망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재러 고려인들의 분단-통일의식조사에서 드러난 실천적 교훈이 있다. 첫째, 재러 고려인들은 비록 분단 극복의 실천적 전망에서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한(조선)반도의 상과 미래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하면서도 남북 간의 우애를 회복하고 인권을 실천하는 나라’라는 비전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라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남과 북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런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의 통일한(조선)반도의 상과 미래는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변국과의 협력-공존하면서도 남북 간의 우애를 회복하고 인권을 실천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부터 실천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공동 번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제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 자세이다.

셋째,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재러 고려인들은 남과 북이라는 분단국가로서 상호간의 적대성 위에서 배척해 왔던 서로의 장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러 고려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남쪽은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북쪽은 '폐쇄적이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남쪽은 북으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민족적 동포애와 같은 민족적 가치를 배우고 북은 남으로부터 보다 개방적이면서도 국제적 환경을 고려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를 배워야 하며 이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이바지하는 '통일한(조선)반도'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해주와 사할린지역의 재러 고려인들의 조사-분석은 기존의 코리언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처음으로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재러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단-통일에 관한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제까지 막연하게 베일에 가려있던, 그들의 분단-통일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조사의 결과 드러나듯이 재러 고려인들은 매우 강한 분단 극복과 통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만 인종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에스닉적(ethnic) 존재가 아니라 통일한(조선)반도라는 민족국가의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적(national) 주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재러 고려인들 또한 통일한(조선)반도를 건설하는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둘째, 기존의 탈민족이나 민족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분단-통일의 문제에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배제했던 연구 경향을 벗어나 새로운 주제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셋째, 강제이주와 동서냉전으로 인해 소홀히 여겨져 왔던 재러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까지 '정체성'이나 '문화연구'였던 점을 넘어서 이번 연구가 '분단과 통일의식에 대한 연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분석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그것은 첫째, 앞서서도 이미 밝혔듯이 표본 대상자의 비율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난다는 점이다. 특히, 앞의 분석에서 보여주듯이 연해주지역과 사할린지역, 출생지역의 차이에 따라 명백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번 조사에서는 연해주지역주민이 사할린지역주민의 표본 숫자보다 너무 많아서 연해주지역과 중앙아시아출신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여론이 마치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의 전체적인 여론인 것처럼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극동지역의 인구구성 비율을 반영하는 지역적 표본 구성과 출생지별 표본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다수의 무국적자들에 대한 표본이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할린지역에 거주하는 조선(북)국적자들에 대한 표본이 선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인들의 전체 여론을 알려면 러시아 이외에 지역 특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극동지역 재러 고려인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러 고려인들의 여론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국가연합을 포함한 고려인들의 여론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분단의식과 동북아 평화

박종성(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1.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재일조선인들의 인식

1) 통일의 역사적 중요성: 일제 식민지 극복

재일조선인들의 이주와 정착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라는 역사적 조건하에서 진행되었다.¹⁾ 식민지 통치라는 역사적 조건 때문에 그들은 한(조선)반도의 분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강하며, ‘분단극복’과 ‘통일’을 자신들의 직접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 1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표 1.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단위:%)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그렇다	78	79	92	63	100
아니다	18	18	4	31	
중복응답	0	0			
무응답	3	3	4	6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이 78.3%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을 삶의 윤택함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조선이 92.0%, 한국이 79.1%, 일본이 62.9%이다. 특징적인 것은 조선 국적이 남북통일이 자신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는 인식이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조선 국적인 사람들에게 ‘조선’은 분단되기 이전의 온전한 국가라는 의식이 남아 있으며 통일이 되면 온전한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귀속의식이 강하게 잠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일조선인들이 통일을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있었다. 1)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조선)반도의 분단이 일제 식민지의 잔재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처라는 점, 2) 실질적인 중요성의 측면에서 분단이 민족 발전의 저해 요인이므로 민족의 발전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 3)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은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먼저 재일조선인은 분단의 역사성과 관련된 질문에서 분단을 일제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래 표 2가 보여주듯이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남북 분단의 문제 51.6%→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11.8%→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8.6%→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7.6%→경제적인 곤란7.6% 순위로 나타났다.

이렇듯 재일조선인은 일제 식민지가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남북 분단의 문제’(51.6%)이고 그 다음으로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11.8%)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에는 “단일민족신화를 고집하는 일본

1)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152쪽.

사회에 제일한인은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즉 “한인의 고유한 민족문화, 언어, 관습을 억제하고 일본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일본의 굴욕적인 동화정책에 반대”²⁾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고 보존, 발전시키려는 저항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의 역사는 일본의 배타적인 문화에 대한 마지막 보루의 의미도 갖는다.

또한 국적별로도 전체적으로 ‘남북 분단’ 문제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2순위로 선택한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은 한국 국적이 선택하였으며, 일본 국적은 2순위로 ‘경제적 곤란’을, 조선 국적은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을 선택하였다.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선택한 것은 여전히 일본이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국적이 ‘경제적 곤란’을 선택한 것은 일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 국적이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을 선택한 것은 온전한 국가로서의 조선이 식민화와 냉전에 의한 분단체제로 인하여 “조선반도의 남북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이산”³⁾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남북 분단	51.6	50.6	68.0	45.7	100.0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7.6	7.5	4.0	11.4	
경제적인 곤란	7.6	7.5		14.3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11.8	12.6	4.0	11.4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8.6	7.9	12.0	11.4	
중복응답	8.0	9.1	8.0		
무응답	4.8	4.7	4.0	5.7	

또한 제일조선인은 아래 표 3이 보여주듯이,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선택하였다. 제일조선인은 전체의 43.3%가 ‘분단 극복과 통일’이고 20.7%가 “북-일, 북-미 수교”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제일조선인은 ‘분단’과 ‘북-일, 북-미 수교’를 일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가장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분단 극복과 통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적별로도 모두 ‘분단 극복과 통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택하였으며, 2순위로 선택한 것도 전체적인 2순위인 ‘북-일, 북-미 수교’와 같은 순위를 보여준다.

다만 2순위인 ‘북-일, 북-미 수교’를 선택한 국적 중에 조선 국적이 한국과 일본 국적보다는 높은 선택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 국적은 북에 대한 호감도가 32.0%,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8.0%이며 둘 다 똑같은 응답이 60.0%이다. 결국 조선 국적은 북에 대한 호감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국적이 ‘북-일, 북-미 수교’를 다른 국적보다 높게 선택한 것은, 결국 ‘북-일, 북-미 수교’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

2)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150쪽.

3) 서경식, 『난민과 국민사이』, 임성모, 이규슈 옮김 돌베개, 2006, 142쪽.

4)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 즉 이른바 ‘패리 프로세스’는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선 북·미, 북·일 수교, 후 평화체제 구축(주한미군문제 처리)이라는 경로이다. 협상조건에서 볼 때, 북한이 미사일 수출·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해제, 북·미 수교, 북·일 수교가 교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http://pspp.org/bbs/view.php?board=document&id=34>

표 3.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전체	국적				무응답
		한국	조선	일본		
분단 극복과 통일	43.3	44.3	40.0	37.1		100.0
자주적 외교	8.9	7.9	4.0	20.0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	2.5	2.8	4.0			
북-일, 북-미 수교	20.7	19.0	36.0	22.9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10.2	11.1		11.4		
중복응답	5.1	5.5	8.0			
무응답	9.2	9.5	8.0	8.6		

그러므로 재일조선인은 일제 식민지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인식하고 있으며, 바로 이 측면에서 통일 문제를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재일조선인은 일제 식민지가 남긴 가장 큰 상처로 ‘남북 분단’을 선택하였고 이를 위한 극복 과제로 ‘남북 분단과 통일’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것이 분단의 역사성에 대한 재일조선인들의 인식이다.

2) 통일의 실질적 중요성: 분단의 폐해와 민족적 발전

두 번째로, 재일조선인들은 분단이 우리 민족의 실질적인 삶에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아래 표 4, 5에서 잘 드러난다. 즉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이 우리 민족에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조선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잘 드러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일조선인은 두 질문에서 모두 분단이 과거에도 우리 민족의 발전에 피해를 주었고 현재에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4.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이 우리 민족에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체	국적				민족학교경험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있음	없음	무응답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87.9	89.3	96.0	71.4	100.0	92.4	85.4	100.0
다소 피해를 입었다	10.2	8.3	4.0	28.6		6.7	12.1	
피해를 입지 않았다	.6	.8					1.0	
무응답	1.3	1.6				1.0%	1.5	

재일조선인은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이 우리 민족에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가 전체의 87.9%이고, ‘다소 피해를 입었다’가 10.2%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0.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조선(96.0%), 한국(89.3%), 일본(71.4%)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즉 국적별로는 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 국적이 한국과 일본 국적보다 실질적인 피해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표 2에서 확인하였듯이, 조선 국적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로 ‘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을 선택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결국 조선 국적은 분단체제로 인하여 조선반도의 남북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이산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92.4%)가 없는 경우(85.4%)보다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

다 피해에 대해 보다 높은 강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역사의식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에 의한 민족의 분열에 대하여 보다 큰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재일조선인은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이라는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래 표는 그 점을 잘 드러낸다.

표 5.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전체	국적				나이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10	20	30	40	50	60	무응답
그렇다	83.1	84.2	92.0	68.6	100.0	72.7	67.9	80.3	86.7	89.7	95.3	100.0
아니다	15.0	13.4	8.0	31.4		27.3	28.6	16.9	13.3	10.3	1.6	
중복응답	.3	.4						1.4				
무응답	1.6	2.0					3.6	1.4			3.1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조선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83.1%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아니라’고 답한 사람은 15.0%이다. 재일조선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조선(92.0%), 한국(84.2%), 일본(68.6%) 순위이다. 이는 국적에 따라서 조선과 일본 국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 국적이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이 한반도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별로는 10대, 20대가 ‘아니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30대 이후로는 분단 상황이 조선민족의 발전에 저해가 되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10대, 20대가 역사적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분단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단은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의 문제는 민족의 발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통일의 국제적 중요성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3) 통일의 국제적 중요성: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마지막으로 통일의 국제적 중요성, 즉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과 관련하여 남북분단과 통일이 지닌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는 남북통일이 평화와 공존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알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단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불안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남과 북의 적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래 표 6, 7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낸다.

표 6.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매우 그렇다.	41.1%	41.1%	56.0%	28.6%	100.0%
그렇다.	47.1%	46.2%	44.0%	57.1%	
그렇지 않다.	9.2%	9.5%		14.3%	
중복응답	.6%	.8%			
무응답	1.9%	2.4%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가

41.1%, 그렇다가 47.1%로 그렇지 않다 9.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국적별로는 조선 국적이 일본과 한국 국적보다는 보다 강한 의식을 드러내므로 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한국 국적이 일본 국적보다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다.

표 7.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적				민족학교경험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있음	없음	무응답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13.7	14.2	24.0	2.9		16.2	12.6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	23.2	24.9	12.0	17.1	100.0	25.7	21.8	33.3
미국이 한국(남),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15.3	13.4	32.0	17.1		19.0	13.6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6.7	7.1		8.6		4.8	7.8	
조선(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21.0	20.6		40.0		11.4	25.7	33.3
중복응답	16.6	16.2	28.0	11.4		19.0	15.0	33.3
무응답	3.5	3.6	4.0	2.9		3.8	3.4	

표 7이 보여주듯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23.2%,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21.0%,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15.3%이었다. 즉 재일조선인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2위를 보여주는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남과 북의 적대 관계에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남과 북의 적대라는 답변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국적별로는 조선 국적은 “미국이 한국(남),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32.0%), 한국 국적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24.9%), 일본국적은 조선(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40.0%)을 1위로 선택하였다.⁵⁾ 특히 일본 국적은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2위를 보여준다. 이는 일본 국적 사람들은 일본 국가가 주장하는 북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은 북의 미사일 수출·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해제, 북·미 수교, 북·일 수교가 교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국적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이한 점은 조선 국적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답변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답변의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조선 국적은 북에 대한 호감도가 크기 때문에 북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국적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내외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국적에 비하여 특징적인 점이다.

민족학교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 “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25.7%)이 1위이고 두 번째로 미국이 한국(남),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2위이다. 그런데 민족학교 경험이 없는 경우는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25.7%)이 1위이고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2위이다. 이는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남북 분단의 문제의 해소와 이를 극복하는 것을 미국의 동북아 패권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는 반면에 민족학교 경험

5) “조선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과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분단 극복으로 모두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패권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한, 북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분단 극복을 위해서 미국의 패권 정책의 폐기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없는 경우는 분단의 문제를 북조선에 국한시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평화위협 요소
를 분단과 미국이라는 외부로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단과 북이라는 내부의 문제로 보느냐라는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통일을 자신의 삶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분단 극복과 통일의 과제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1) 일제 식민지 지배가 조선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남북 분단의 문제(51.6%)이며, 일제 식민지 지
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전체의 43.3%가 “분단 극복과 통일”을 선택하였고 한반
도의 분단과 6.25전쟁이 우리 민족에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비율이 87.9%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분단이
일제 식민지의 잔재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처라는 인식이다.

2) 남과 북의 통일이 해외 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인식이 78.3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을
삶의 윤택함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가 83.1%이다. 즉 분단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3)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는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23.2로 1
위이다. 그리고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물음에 일반적
으로 그렇다는 비율이 88.2%로 압도적으로 높다. 즉 남북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직결된다는 의식
을 드러내고 있다.

2. 분단의 책임과 분단 극복의 정책적 방향

1) 분단의 책임과 통일의 장애 : 미국이라는 외세와 조선

앞서 보았듯이 재일조선인들은 통일이 민족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왜
통일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3 가지 물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물음은 1) 통일의 걸림돌
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물어서 그 답변에 따라서 분단의 책임이 한(조선)반도의 내부에 있는지 아
니면 외부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2) 굳이 내부에서 찾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에 책임이 더 있는지를 알아보
는 것이며, 3)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일조선인은 분단의 책임을 한(조선)반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
있으며 그 책임을 ‘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단의 책임을 한(조선)반도 외
부에서 찾고 있지만 ‘북’과 미국을 선택한 답변 비율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표 8
을 보고 그 다음 표 9를 보도록 하자.

표 8.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

	전체	나이							국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한국(남)	1.9		3.6	2.8	1.7	2.6			2.0		2.9	
조선(북)	31.8	31.8	30.4	35.2	28.3	38.5	29.7		33.6	4.0	40.0	
미국	28.3	45.5	33.9	28.2	26.7	20.5	23.4	50.0	26.1	56.0	25.7	
일본	6.1		5.4	4.2	8.3	7.7	7.8		5.5	16.0		100.0
중국	6.7		5.4	11.3	10.0	5.1	3.1		6.3	4.0	11.4	
러시아	1.6	4.5	1.8		5.0				1.6		2.9	
중복응답	17.8	18.2	10.7	15.5	15.0	17.9	29.7		18.6	20.0	11.4	
무응답	5.7		8.9	2.8	5.0	7.7	6.3	50.0	6.3		5.7	

민족학교경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1.9	1.9	
19.0	38.3	33.3
40.0	22.3	33.3
8.6	4.9	
2.9	8.7	
1.0	1.9	
21.0	16.0	33.3
5.7	5.8	

재일조선인은 전체적으로 통일의 장애요인을 국제 열강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모두에게서 찾고 있다. 특히 북에 대한 책임(31.8%)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책임(28.3%)이 강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물론 그 차이는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조선의 책임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재러 고려인과는 구별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재러 고려인의 경우는 조선과 미국 책임을 각각, 54.9%, 26.1%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재러 고려인은 통일의 장애 요인을 국제 열강이라는 외부요인보다는 조선의 책임이라는 내부에서 통일의 장애 요인을 찾고 있다. 재러 고려인과 비교하여 볼 때, 재일조선인은 미국이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유사한 비율로 조선이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통일의 장애 요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민족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미국을 선택(40.0%)하였고, 없는 경우는 북을 선택(38.3%)하였다. 이는 민족학교의 경험에 따라 통일의 장애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국내적 요인 보다는 국외적 요인을 선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선택 또한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선택한 것과 연관된다.

또한 나이별로도 10대와 20대가 다른 나이에 비하여 미국의 책임이 크게 높으며 30대-60대 이상은 북의 책임이 높다. 그리고 통일 장애요인으로는 국적별로도 차이점이 드러난다. 조선 국적은 일본과 한국 국적에 비해 2배 넘게 미국에 압도적인 책임을 물었고,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은 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반면에 조선 국적은 북의 책임을 4.0로 답변하였다는 점이 큰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조선 국적이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한국(남),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조선 국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과 연관된다. 결국 조선 국적은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북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 국적은 북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국적보다 높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 국적의 경향이 전체적으로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미국과 '북조선'을 선택한 비율의 차이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 국적은 일관되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그리고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중에 굳이 분단 지속의 책임을 묻는다면, 한국보다는 북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아래의 표는 이 점을 잘 드러낸다.

표 9. 남과 북 중 분단 지속의 책임 소재

	국적					민족학교경험		
	전체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한국(남)	22.0	19.4	60.0	14.3		30.5	18.0	
조선(북)	55.7	58.1	12.0	71.4		40.0	63.6	66.7
중복응답	4.1	3.6	4.0	5.7	100.0	4.8	3.9	
무응답	18.2	19.0	24.0	8.6		24.8	14.6	33.3

“현재 분단이 지속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한국(22.0%)이 북조선(55.7%)보다는 낮다.⁶⁾ 민족학교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북의 책임이 높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30.5%)는 없는 경우(18.0%)보다 한국에 분단 지속의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다. 그리고 민족학교 경험이 없는 경우(63.6%)가 있는 경우(40.0%)보다 북에 분단 지속의 책임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드러난다. 즉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분단 지속의 책임을 북에 두고 있다.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남한에 책임을 두는 반면에 없는 경우는 압도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국적별로는 조선 국적이 한국의 책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한국과 일본국적인 모두 북에 책임이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⁷⁾ 특히 조선 국적이 한국과 일본 국적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한국의 책임에 가장 높은 비율(60.0%)을 보이는 것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분단 지속의 책임을 묻는 답변에 북과 한국의 비율 차이를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와 조선 국적은 분단 지속의 책임으로 한국과 북의 선택 비율의 격차를 좁히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분단이 지속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는 북(31.8%)과 미국(28.3%)을 선택하여 책임을 대등하게 묻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표 10.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

	전체	민족학교경험			국적			
		있음	없음	무응답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24.5	21.0	25.7	66.7	26.5	16.0	17.1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20.7	22.9	19.9		19.0	44.0	17.1	
한국(남)이 미국편에서 조선(북)을 봉쇄하기 때문에	12.7	19.0	9.7		11.9	20.0	11.4	100.0
조선(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5.2	16.2	29.6	33.3	25.3		42.9	
중복응답	13.7	18.1	11.7		13.8	16.0	11.4	
무응답	3.2	2.9	3.4		3.6	4.0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25.2%), 한국과

- 6) 재러 고려인의 경우 같은 물음에 대해 79.8%가 ‘북조선’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 7)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남한과 북한에 책임을 두는 반면에 없는 경우는 압도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남과 북 중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이 높다. 그러나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둘 다 똑같다는 응답이 47.6으로 높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한국이 77.7로 가장 높다.

	전체	민족학교경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한국(남)	65.9	41.9	77.7	100.0
조선(북)	4.5	9.5	1.9	
둘 다 똑 같다.	28.7	47.6	19.4	
무응답	1.0	1.0	1.0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24.5%),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20.7%), 한국이 미국편에서 북을 봉쇄하기 때문에(12.7%)”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비율과는 달리,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22.9%),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21.0%), 한국(남)이 미국편에서 조선(북)을 봉쇄하기 때문에(19.0%)이다. 즉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두 유사한 비율을 드러내므로 국내, 국외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하여 민족학교 경험이 없는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인 조선(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9.6%,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25.7%이다. 즉 민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보다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외부적인 요소를 선택하고 있고 민족학교 경험이 없는 경우는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적별로는 한국은 한국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조선(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한국이 북에 대한 호감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해된다. 특징적인 것은 조선 국적은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대한 답변이 한국과 일본 국적의 2배가 넘는 비율 44.0%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국적은 분단의 문제를 외세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국적이 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 답변의 비율(42.9%)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일본 국적이 북에 대한 호감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국적의 선택 비율은 통일되지 않는 이유로 “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가 1위로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국적은 통일되지 않는 이유로 국외적인 요인을 선택하였고 한국, 일본국적은 국내적인 요인을 선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조선 국적은 ‘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 답변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도 조선 국적이 북에 대한 호감도와 북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일조선인의 특징적인 점은 민족 경험이 있는 경우와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통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다음의 요소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25.2%, 한국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24.5%,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20.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이 통일이 되지 않는 요인을 외부, 내부로 나누었을 때, 그 요인을 대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일조선인은 분단의 책임과 통일의 장애 요인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1) 재일조선인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 북에 대한 책임이 가장 강하고(31.8%) 그 다음으로 미국의 책임(28.3%)이 강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북과 미국의 선택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 열강의 외부적 요인과 북이라는 내부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 책임에 대한 답변으로 외부와 내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민족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과 조선 국적의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재일조선인은 내부적으로 남과 북 중에 분단의 지속에 있어서 책임을 한국(22.0%)보다는 조선(55.7%)에 두고 있다. 민족학교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북한의 책임이 높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30.5%)는 없는 경우(18.0%)보다 한국에 분단 지속의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다.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남한과 북한에 책임을 두는 반면에 없는 경우는 압도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3) 통일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25.2%), 한국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24.5%)이다. 이는 우선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를 북과 남과 북의 대립이라는 내부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점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로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의 비율이 20.7%로 다른 요인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보다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외부적인 요소를 선택하고 있고 민족학교 경험이 없는 경우는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 국적은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인가 가장 높았다. 즉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것과 조선 국적의 경향성이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내부와 외부의 문제를 포괄 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대북정책: 대북경제지원과 대북봉쇄정책의 일관성

재일조선인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중요성 및 분단 책임과 통일 문제 다음으로 현재 통일정책과 통일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알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을 하였다. 통일정책과 관련된 질문은 한국(남)의 대북경제지원과 한국(남)의 대북봉쇄정책이었다. 그리고 통일정책의 장기적 방향에 관한 질문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먼저 통일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표 11, 12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남)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한가?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매우 그렇다	24.8	27.7%	16.0%	11.4%	
그렇다	51.9	51.0%	64.0%	48.6%	100.0%
그렇지 않다	22.0	20.9%	20.0%	31.4%	
중복응답	.3	.4%			
무응답	1.0			8.6%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남)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적으로 76.7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매우 그렇다는 강도의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 일본 국적의 순위를 보였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22.0을 보였는데, 한국과 조선국적은 전체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에 일본 국적은 31.4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로 ‘북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위로 나타나는데 일본 국적이 큰 영향을 미친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국적은 42.9%로 한국(25.3%), 조선(0.0%)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과 북 중 어디에 더 호감이가는 가라는 질문에 일본 국적은 북을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는 것과도 연관된다.⁸⁾

조선은 북에 호감도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 국적은 북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조선 국적보다 한국과 일본 국적은 일관되게 대북봉쇄정책에 대하여 더욱 반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아래의 표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8) 남과 북 중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한국(남)	65.9	71.1	8.0	71.4	
조선(북)	4.5	2.4	32.0		
둘 다 똑 같다.	28.7	26.1	60.0	25.7	
무응답	1.0	.4		2.9	100.0

표 12. 현재 한국(남)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민족학교경험				국적			
	전체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매우 그렇다	2.9	2.9	2.9		2.0	8.0	5.7	
그렇다	13.4	10.5	15.0		14.6		14.3	
그렇지 않다	51.6	53.3	51.0	33.3	52.6	40.0	54.3	
매우 그렇지 않다	28.0	29.5	26.7	66.7	27.7	48.0	14.3	100.0
중복응답	.6	1.9			.4	4.0		
무응답	3.5	1.9	4.4		2.8		11.4	
Top2(1+2)	16.2	13.3	18.0		16.6	8.0	20.0	
Bottom2(3+4)	79.6	82.9	77.7	100.0	80.2	88.0	68.6	100.0
중복응답	.6	1.9			.4	4.0		
무응답	3.5	1.9	4.4		2.8		11.4	

전체적으로 Bottom2(3+4)는 79.6%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 82.9%가 없는 경우 77.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우 그렇지 않다는 입장 또한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므로 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조선 국적 또한 Bottom2(3+4)가 88.0%로 한국과 일본 국적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국적별로는 조선 국적이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8.0%로 한국(27.7%), 일본 국적(14.3%)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강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조선 국적이 북에 대한 호감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선국적은 북에 대한 호감도가 32.0%로 한국(2.4%), 일본(0.0%)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과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국적이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12를 통해서 통일정책과 관련된 질문, 한국(남)의 대북경제지원과 한국(남)의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재일조선인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적별로, 민족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대북경제지원을 해야 하며 대북봉쇄정책은 통일에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3)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비전 : 상호신뢰성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아래의 표는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과 현재의 정책을 알기 위해 질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래의 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통일정책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현재의 통일정책은 분단 극복과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에게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표 13.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남북의 필수 과제

	민족학교경험				국적			
	전체	있음	없음	무응답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상호 신뢰성 회복	29.9	25.7	32.5		30.0	20.0	37.1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9.2	11.4	8.3		8.3	8.0	17.1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9.6	7.6	10.2	33.3	10.3		11.4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책 노력	16.9	11.4	19.4	33.3	18.2	8.0	14.3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4.3	18.1	12.6		13.4	24.0	11.4	100.0
중복응답	17.8	23.8	14.6	33.3	17.8	36.0	5.7	
무응답	2.2	1.9	2.4		2.0	4.0	2.9	

표 14.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의 최우선 과제

	전체	민족학교경험			국적			
		있음	없음	무응답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남북 간 민간 교류	24.5	28.6	22.3	33.3	24.1	24.0	25.7	100.0
경제 협력	7.6	3.8	9.7		7.5		14.3	
남북정상회담	11.8	10.5	12.1	33.3	11.1	20.0	11.4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27.1	26.7	27.7		28.5	12.0	28.6	
남북 간 문화 교류	6.7	1.9%	9.2		6.7		11.4	
중복응답	20.1	25.7	17.0	33.3	19.8	40.0	8.6	
무응답	2.2	2.9	1.9		2.4	4.0		

표 13, 14를 정리하면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상호 신뢰성 회복 29.9%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27.1%이다. 표 13이 보여주듯이 “상호 신뢰성 회복” 29.9%,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16.9%,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4.3%,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9.6%,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에서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16.9%,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4.3%에 대한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라는 대답에 조선 국적과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1위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27.1%), 2위가 남북 간 민간 교류(24.5%), 3위가 남북 정상회담(11.8%)이다. 특징적인 것은 1위와 2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선 국적은 다른 국적보다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으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북 간 민간 교류에 대한 응답이 약간 높다.

요약하면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남북의 필수적인 과제로 조선 국적은 ‘상호 신뢰성 회복’ ‘외세 의존으로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를 유사한 비율로 선택하였고, 한국과 일본 국적은 각각 1순위로 ‘상호 신뢰성 회복’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최우선 과제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국적은 남북 간 민간 교류(24.5%), 남북 정상회담(11.8%)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국적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27.1%), 남북 간 민간 교류(24.5%)이다.

남북의 필수적인 과제로 조선 국적이 선택한 ‘상호 신뢰성 회복’ ‘외세 의존으로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는 남북의 최우선 과제인 남북 간 민간 교류(24.5%), 남북 정상회담(11.8%)과 연결된다. 즉 ‘상호 신뢰성 회복’이라는 필수 과제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남북 간 민간 교류(24.5%)를 해야 하는 것이고 ‘외세 의존으로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라는 필수 과제를 위하여 남북의 최우선 과제인 ‘남북 정상회담’(11.8%)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간 민간 교류(24.5%), 남북 정상회담(11.8%)을 통하여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분단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국적이 남북의 필수 과제로 선택은 ‘상호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27.1%), 남북 간 민간 교류(24.5%)인 것이다. 이는 결국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27.1%), 남북 간 민간 교류를 통해서 남북의 필수 과제인 ‘상호 신뢰성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통일 한(조선)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나아갈 방향

1) 통일 한(조선)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및 문화선진국의 건설

재일조선인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조선민족에게 남긴 상처 속에서 일본의 배제의 정책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재일조선인은 일제 식민지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분단 문제와 그로 인한 전통문화 훼손과 단절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보장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민족정체성은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국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은 조선반도이다.⁹⁾ 이러한 응답은 통일 한(조선)반도라는 미래지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15는 바로 이러한 미래지향성으로서의 통일 한(조선)반도라는 상상 속의 미래 모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것이다.

표 15.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경제 강국의 건설	15.6	15.0	20.0	17.1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	.3		4.0	
문화 선진국의 건설	16.9	17.8	8.0	14.3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41.1	42.7	20.0	45.7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	10.8	10.7	16.0	8.6
중복응답	12.4	11.9	28.0	5.7
무응답	2.9	2.0	4.0	8.6

표 15가 보여주듯이,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재일조선인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41.1%}, “문화 선진국의 건설”^{16.9%}, 경제 강국의 건설^{15.6%},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 ^{10.8%}, 정치-군사 대국의 건설 ^{0.3%} 순위이다.¹⁰⁾ 국적별로는 조선 국적이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가 다른 국적에 비하여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조선이라는 민족공동체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 국적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이 가장 높다. 이러한 이유는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것과 이에 따른 군

9)

	전체	국적			무응답
		한국	조선	일본	
일본	3.2	3.2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5	1.6	12.0	2.9	
대한민국	40.4	45.1	4.0	34.3	
조선반도	43.9	42.7	72.0	31.4	100.0
일본과 조선반도	8.0	6.3	4.0	22.9	
중복응답	1.3	.4	8.0	2.9	
무응답	.6	.8			

10) 이러한 현상도 고려인과 비교할 때, 차이점을 드러냄, 즉 재러 고려인도 “주변국과의 협력-공존”(40.2%)은 1위로 같으나, 재일조선인은 2위가 “문화 선진국의 건설”^{16.9%}인 반면에 고려인은 “경제 강국의 건설”(31.9%)이 2위이다. 또한 “문화 선진국의 건설”에 대한 비율이 재러 고려인은 2.8%이고 재일조선인은 16.9%로 큰 차이를 보인다.

사적 긴장완화라는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 한(조선)반도가 나아가야 방향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이다. 이러한 응답을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응답과 연결하여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상호 신뢰성 회복’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때,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장기적으로 ‘상호 신뢰성 회복’을 이룩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에서 통일 한(조선)반도가 나아가야 방향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이라는 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재일조선인은 통일을 위하여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여론조사와 함께 표 15의 응답비율에서 2위인 ‘문화 선진국의 건설’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이 문화선진국이라는 점을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은 그 만큼 일본 사회에서 문화적으로도 일본의 동화정책과 배제의 정책으로부터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이 사실이 드러난다.

표16. 조선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전체
사례수	(314)
매우 자랑스럽다	13.1
자랑스럽다	49.7
그렇지 않다	7.3
전혀 그렇지 않다	1.6
생각해본 적이 없다	22.9
중복응답	1.3
무응답	4.1
Top2(1+2)	62.7
Bottom2(3+4)	8.9
생각해본 적이 없다	22.9
중복응답	1.3
무응답	4.1

표17.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이유

	전체
사례수	(198)
우리는 찬란한 문화(한글, 옷, 음식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5.1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3.0
월드컵 4강 신화, 한강기적(고도경제성장)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1.5
약소민족이지만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28.3
중복응답	7.1
무응답	5.1

재일조선인은 매우 자랑스럽다 + 자랑스럽다는 비율이 62.7%으로 높으며, 그 이유는 우리는 찬란한 문화(한글, 옷, 음식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55.1%로 약소민족이지만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 28.3%이다. 즉 재일조선인은 문화 선진국 건설을 통일 한(조선)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의 응답을 정리하면 재일조선인은 통일 한(조선)반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통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현하고 문화 선진국의 건설을 위해서 ‘남북 간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 한(조선)반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민족적 가치 : 보편적 인권, 정치적 자유, 민족 주체성

표 18.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

	전체	국적				민족학교경험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있음	없음	무응답
정치적 자유	20.7	21.7	16.0	17.1		24.8	18.9	
민족 주체성	20.1	19.4	48.0	2.9	100.0	31.4	14.6	
경제적 평등	12.1	10.7	4.0	28.6		9.5	13.6	
보편적 인권	26.8	26.9	16.0	34.3		13.3	33.0	66.7
환경 친화적인 생활	4.8	5.1		5.7		3.8	4.9	33.3
중복응답	13.7	14.6	16.0	5.7		14.3	13.6	
무응답	1.9	1.6		5.7		2.9	1.5	

앞서 표 15에서 보았듯이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공존’과 ‘문화 선진국의 건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율과 함께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음과 같다. 즉 “보편적 인권” 26.8%, “정치적 자유” 20.7%, “민족 주체성” 20.1%, “경제적 평등” 12.1%, “환경 친화적인 생활” 4.8%로 드러난다. 재일조선인이 인권, 정치적 자유, 주체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여전히 일본 내에서의 차별과 문화적 고립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구의 역사를 문화적 에스닉 공동체가 정치적 네이션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원의 민족을 정치적 차원의 시민으로 변형하는 과정과 연결된다고 할 때¹¹⁾, 재일조선인의 삶은 보다 더 정치적 차원의 시민으로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족학교 경험의 경우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경험이 있는 경우는 “민족 주체성” 31.4%, 경험이 없는 경우 14.6%보다 높으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보편적 인권’이 33.0%로 경험이 있는 경우 13.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다. 또한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국적별로는 한국, 일본 국적은 “보편적 인권”이 높다. 이는 표 15에서 한국과 일본 국적이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장 높게 선택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협력-공존’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위해서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조선 국적은 “민족 주체성”이 다른 국적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에서 조선 국적이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결국 조선 국적은 남북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주체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 ‘민족 주체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재일조선인이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는 것은, 표 14에서 보여 주듯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인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은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편적 인권, 정치적 자유, 민족 주체성을 선택하고 있으며,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정치 군사적 대국의 건설보다는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통해서 문화 선진국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11)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23쪽.

4. 통일을 위해 남북이 극복해야 할 소통적 가치들

1) 남북이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 :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사회

표 19. 남측이 북측에 배워야 할 점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25.8	24.5	48.0	17.1	100.0
민족적 동포애	15.6	15.8	24.0	8.6	
평등 사회 건설 의지	7.6	7.5		14.3	
집단주의	2.2	2.4		2.9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22.9	22.9	8.0	34.3	
중복응답	4.1	3.6	12.0	2.9	
무응답	21.7	23.3	8.0	20.0	

표 20. 북측이 남측에 배워야 할 점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18.2	16.6	36.0	17.1	
개방적인 사회	40.4	42.7	24.0	34.3	100.0
자유경쟁	8.3	7.1	12.0	14.3	
개인주의	1.6	1.6		2.9	
세계화	13.4	13.0	12.0	17.1	
중복응답	9.9	9.9	12.0	8.6	
무응답	8.3	9.1	4.0	5.7	

남측이 북측에 배워야 할 것은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25.8%),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22.9%), 민족적 동포애(15.6%), 평등 사회 건설 의지(7.6%), 집단주의(2.2%) 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는 조선 국적이 다른 국적에 비하여 2배 정도 높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일본 국적이 다른 국적에 비하여 높다.

북측이 남측에 배워야 할 것은 ‘개방적인 사회’(40.4%),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18.2), 세계화(13.4%), 자유경쟁(8.3%), 개인주의(1.6%)이다. 국적에 따라서는 조선이 개방적인 사회에 대한 비율은 다른 국적보다 가장 낮으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국적에 비하여 2배 넘게 높다.

결론적으로 남북이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으로 수렴되는 것은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사회’의 지향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이 고쳐야 할 것은 ‘대북봉쇄정책과 외세 의존적 태도’ /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과 ‘남북 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2) 통일을 위하여 남과 북이 고쳐야 할 점 : 대북봉쇄정책과 외세 의존적 태도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

표 21.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10.5	9.9	8.0	17.1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	14.6	14.2	12.0	20.0	
외세 의존적 태도	21.0	19.8	48.0	11.4	
대북 지원 사업	17.8	18.6	4.0	20.0	100.0
대북봉쇄정책	23.2	25.3	4.0	22.9	
중복응답	8.0	7.5	20.0	2.9	
무응답	4.8	4.7	4.0	5.7	

표 22.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

	전체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경제 개방과 발전	26.8	26.5	36.0	22.9	
남북 교류 활성화	28.7	26.9	48.0	25.7	100.0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	35.7	37.5	12.0	40.0	
중복응답	4.8	5.1	4.0	2.9	
무응답	4.1	4.0		8.6	

통일을 위해 남측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대북봉쇄정책 23.2%, 외세 의존적 태도 21.0%, 대북지원사업 17.8%,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 14.6%,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10.5%로 나타난다. 국적별로는 조선 국적이 외세 의존적 태도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다른 국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세 의존적 태도의 비율을 2위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통일을 위해 북측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35.7%), “남북 교류 활성화”(28.7%), 경제 개방과 발전(26.8%)이다. 조선국적은 타국 국적 보다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한 비율이 높게 드러난다. 이는 조선 국적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으로 외세 의존적인 태도를 선택한 것과 연관된다.

표 17, 18, 19, 20을 정리하면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점은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이므로 남쪽이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대북봉쇄정책이다. 왜냐하면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이 미국편에서 조선을 봉쇄하는 것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고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표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북봉쇄정책은 통일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점은 개방적인 사회이므로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국제 규범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이다. 국제 규범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은 통일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통하여 통일 한(조선)반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인 보편적 인권과 정치적 자유, 민족 주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5. 나가며: 통일 전망과 통일 한(조선)반도의 민족공통의 가치 창출을 위하여

표 23. 한반도 통일의 전망

	민족학교경험				국적			
	전체	있음	없음	무응답	한국	조선	일본	무응답
밝다	30.6	37.1	27.7		30.0	48.0	20.0	100.0
어둡다	61.5	54.3	64.6	100.0	61.7	40.0	77.1	
중복응답	1.9	2.9	1.5		1.6	8.0		
무응답	6.1	5.7	6.3		6.7	4.0	2.9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에 대한 전망은 민족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낙관적이고 국적별로는 조선 국적이 다른 국적보다 긍정적이긴 하다. 조선 국적인 다소 긍정적인 이유는 표 13, 14에서 드러나듯이, 분단 극복을 위해서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로 남북정상회담을 최우선적 과제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국적이 조선 국적보다 통일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이유는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호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민단과 총련 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30.6%)이라기보다는 부정적(61.5%)이다.

그런데 재일조선인은 역사적으로 분단이 일제 식민지의 잔재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처라고 인식하고, 분단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남북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직결된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재일조선인은 분단의 책임과 분단 극복의 정책적 방향과 관련하여 분단의 책임과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북과 미국, 그리고 남/북의 적대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통일의 장애요인을 국제 열강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북이라는 내부에서도 찾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의 요인의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분단은 동북아 평화의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대북 경제지원이 필요하며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비전으로는 상호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남북 교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일조선인은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제적인 문제 보다는 인권, 자유, 주체성이라는 이념 지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 대국의 건설보다는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통해서 문화 선진국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을 위해서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점은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남쪽이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대북봉쇄정책이다. 왜냐하면 남한이 미국편에서 조선을 봉쇄하는 것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고 독립국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점은 개방적인 사회이므로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국제 규범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이다. 국제 규범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은 통일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통하여 통일 한(조선)반도가 지향해야할 가치인 보편적 인권과 정치적 자유, 민족 주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하였던 통일의 가치방향과 가치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 공유된 것을 공통의 미래, 즉 분단 문제의 해소라는 측면과 연결될 수 있을 때, 다양한 정체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각 나라의 동포들의 지역적, 국가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분단에 의한 상처라는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식민화라는 비극적인 형태로 근대를 경험한 우리, 냉전에 의한 분단체제에 끌려 역지로 갈린 우리, ...이런 '우리'야말로 그 공통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같은 조선인인 것이

다.”¹²⁾ 아울러 재일조선인은 분단의 극복이 민족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식 또한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공통성을 미래의 문제로 전승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제국주의의 극복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기에 잠재적인 제국주의적 불안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통의 아픔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복수의 감정을 넘어 제국주의 극복을 위해 자유, 주체성이라는 능동적 정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극복이라는 대상 앞에서 아픔의 공유는 더욱 더 확장된 연대의 끈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재일동포 현황과 비교하여 재일조선인들 중 일본국적자의 표본수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의 분단의식과 통일의 과제 및 통일에 대한 가치 지향성과 방향을 확인하는 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의 분단의식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재일조선인의 분단의식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2) 서경식, 『난민과 국민사이』, 임성모, 이규슈 옮김 돌베개, 2006, 142쪽.

탈북자의 분단의식과 통합적 가치

김종곤(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1. 들어가며 : 탈북자의 통일-분단의식 연구의 중요성

탈북은 1995년 여름, 곡창지대인 황해북도·황해남도 지대에서 홍수가 나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1997년부터 탈북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부터 함경북도 뿐 아니라 조선의 전 지역으로부터 탈북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¹⁾ 아울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는 1,000명을 넘었으며 2006년부터 2,000명을 넘어 현재까지 매년 2,500명 내외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였다.²⁾

이와 함께 탈북자의 한국 사회 부적응, 정착 지원·교육 정책, 관련법률, 가족관계, 정치의식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심리적인 분야에 두루 걸쳐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통일-분단 의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의아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탈북자의 분단-통일 의식에 대한 연구는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면서 실천적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탈북자들이 북 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보는 관점이 아니다. 그것은 탈북자들이 해외 코리엔디아스포라와 달리 분단의 현실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체험하며 살았다는 점과 함께 그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체계를 통해 형성된 분단의 지속원인과 극복방안, 통일의 방향성이 이전에는 미처 발견할 수 없었거나 생각해볼 수 없었던 지점을 열어 분단극복과 통일을 사유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표적으로 김영하의 「대구지역 북한이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2006)³⁾와 정은미의 「북한주민의 '갈망(渴望)적 통일인식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2011)⁴⁾와 같은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탈북자들의 통일-분단 의식을 직접 묻는 설문조사 문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의 의식은 위험성을 담보한 탈북과 제3국 체류과정에 겪는 고초, 한국 입국 후 한국 정부 혹은 교육기관, 남 주민들과의 접촉으로부터 형성된 정서와 상처의 기억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국의 적대적 국가인 조선으로부터 왔기에 생존전략적 차원에서의 자기의식의 검열과 전치가 일어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통일-분단 의식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이 전부라고 해석하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응답 사이에서 일관되지 않는 모순점을 찾고 그것을 그들의 정서와 감정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지난 11월에 경기도 지역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10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주제별로 묶고 여타의 응답들과 상호 교차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 통일의 장애와 분단 지속에 대한 인식', 통일과 분단극복을 위한 과제', 분단극복을 위한 소통적 가치와 통일한반도의 가치 지향성'순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끝으로 본 조서연구가 가진 한계와 그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한국방송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탈북자문제의 이해』, 2003, 13-14쪽.

2)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3) 김영하, 「대구지역 북한이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3호, 2006.

4) 정은미, 『북한주민의 통일인식 :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북한주민의 '갈망(渴望)적 통일인식과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2011.

2.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

표1. 남과 북의 통일이 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단위:%)

	전체	성별			남한 입국연도		
		남	여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54)	(53)	(2)	(29)	(77)	(3)
그렇다	94.5	92.6	96.2	100.0	96.6	93.5	100.0
아니다	5.5	7.4	3.8		3.4	6.5	

탈북자들은 분단극복과 통일을 자신의 삶의 개선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하다고 인식한다. ‘남과 북의 통일이 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94.5%)가 ‘아니다’(5.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성별, 남한 입국연도별 응답도 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분단극복과 통일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리라 강하게 믿으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들은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것 같다. 첫째, 한(조선)반도의 분단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남긴 현재적 문제이며 둘째, 분단은 코리언 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분단의 상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으며, 통일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분단은 한(조선)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이기에 통일은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 통일의 역사적 중요성 : 일제 식민의 극복

표2.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단위:%)

		성별			남한 입국연도		
		남	여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전체)	(54)	(53)	(2)	(29)	(77)
남북 분단	36.7	37.0	37.7		41.4	32.5	100.0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	4.6	3.7	5.7		6.9	3.9	
경제적인 곤란	8.3	9.3	7.5		6.9	9.1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35.8	40.7	30.2	50.0	31.0	39.0	
우리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	14.7	9.3	18.9	50.0	13.8	15.6	

표2에서 보듯이 탈북자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문제’로 ‘남북 분단’(3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35.8%가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남북 분단’의 응답률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답했다. 그 뒤를 이어 ‘우리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14.7%), ‘경제적인 곤란’(8.3%), ‘러시아-중국과 미국-일본 등 외세 의존’(4.6%)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분단과 전통문화의 파괴라는 문제가 일제식민 지배가 낳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우리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 해외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경우 이 답변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탈북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는 탈북자들이 해외 코리언 디아스포라 보다 자신들이 더 ‘당사자’의 입장에서 분단과 통일을 사유한다는 의미이다. 탈북자들은 이질적인 공간으로 이동하여 현재 살고 있지만 ‘민족’의 땅, 즉 한(조선)반도에 살

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통일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이들에게 있어 코리언의 이산 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남북의 분단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지고, 따라서 '남북 분단'을 선택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에 대한 응답비율이 '남북 분단' 선택비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남은 북과 다르게 추석과 설을 제외하면 거의 명절을 쇠지 않는다는 점이 일단 다르다. 이는 '우리 가족이 쇠는 전통명절을 쇠는 날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물음에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를 쇠는 응답자가 30% 내외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타인을 잘 배려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면서 상부상조와 같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남 주민에게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점'을 물었을 때 '민족적 동포애', '집단주의'를 둘 다 동일하게 23.9%가 선택했는데, 이는 자기네들을 같은 민족이면서도 차별하는 동포애의 결여와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역으로 이들이 민족적 자긍심이 그 만큼 강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을 우선 성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남북 분단'을 선택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37.0%, 37.7%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선택한 비율은 남성(40.7%)이 여성(30.2%)보다 약 10%가량 높으면서도 '남북 분단'을 선택한 비율(37.0%)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문화적인 이질감을 더 느낀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남한입국년도 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북 분단' 선택에 있어 2006년 이전과 이후 입국자 중 각각 41.4%, 32.5%의 비율을 보였으며,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 선택 비율은 각각 31.0%, 39.0%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오래거주 할수록 남북 분단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북자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겪는 소외, 배제, 차별이 분단된 현실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며, 통일이 그것을 극복할 계기로 본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에 대한 선택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들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문화에 이전에 비해서 더 적응하며 그것에 대한 의식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탈북자들은 성별과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특징을 보이며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제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로 '남북 분단'과 '전통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1,2위로 들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남북 분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은 표3에서 보듯이 일제 식민지 지배 청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단 극복과 통일'을 눈에 띄게 가장 많이 선택하게 하고 있다.

표3.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단위:%)

		성별			남한 입국년도		
		남	여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전체)	(54)	(53)	(2)	(29)	(77)	(3)
분단 극복과 통일	45.0	44.4	47.2		34.5	46.8	100.0
자주적 외교	17.4	24.1	11.3		20.7	16.9	
한국 내의 친일파 청산	12.8	13.0	11.3	50.0	10.3	14.3	
북-일, 북-미 수교	6.4		11.3	50.0	13.8	3.9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17.4	18.5	17.0		20.7	16.9	
무응답	0.9		1.9			1.3	

조사대상자들에게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기 위한 중요 과제'를 물었을 때 '분단 극복과 통일'을 선택한 사람이 45.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7.4%가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과 동일한 비율로 '자주적 외교'를

선택하였다.

‘분단 극복과 통일’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남긴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를 민족의 분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성별에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남한입국년도 별로 보았을 때 2006년 이전이 34.5%, 2006년 이후가 46.8%로 12.3%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일수록 남북의 분단 극복을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그들의 현재적 삶의 극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앞선 분석과 모순되어 보인다.

이는 ‘자주적 외교’와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선택한 비율이 두 번째로 많으면서 한국에 더 오래 거주하였을 경우 그 선택비율이 높아졌기에 그런 것 같다. 표3에 따르면 ‘자주적 외교’와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선택한 비율이 2006년 이전은 동일하게 20.7%이며 2006년 이후 역시 동일하게 16.9%이다. 이는 한국과 조선이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 둘 다 코리언의 정통성을 매우 강조한다는 점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는 탈북자들이 북에 있을 때부터 높은 민족사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그러한 자긍심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본 조사 따르면 ‘내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자랑스럽다’가 92.1%(‘매우 자랑스럽다’ 57.1%, ‘자랑스럽다’ 45%)로 응답하였다. 그만큼 이들은 높은 민족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된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정책에 있어, 특히 통일정책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한국을 지켜보면서 ‘자주적 외교’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그것을 곧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면서 ‘민족적 자존감’의 손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하기에 이들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분단극복과 통일의 방안으로서 민족-국가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들은 민족의 분단을 당사자적 입장에서 일제식민지배가 남긴 가장 큰 상처로 인식한다. 둘째, 이들은 일제식민지가 단지 민족의 이산뿐만 아니라 문화-정서적 분단을 낳았다고 본다. 셋째, 이들은 일제식민지배가 낳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족적 자존감을 바탕으로 분단극복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통일의 실질적 중요성 : 분단의 폐해와 민족적 발전 그리고 분단의 상처 치유

표4.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단위:%)

		성별			남한 입국연도		
		남	여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전체)	(54)	(53)	(2)	(29)	(77)	(3)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94.5	94.4	94.3	100.0	89.7	96.1	100.0
다소 피해를 입었다	3.7	1.9	5.7		3.4	3.9	
피해를 입지 않았다	1.8	3.7			6.9		

탈북자들은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현재까지도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본다. 표4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에 대해 98.2%가 긍정(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94.5%, 다소 피해를 입었다 3.7%)하였다. 이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응답비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남성의 3.7%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극히 적은 수(2명)라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한 2006년 이전에 입국한 응답자의 긍정 대답이 2006 이후에 입국한 응답자에 비해 6.9%(100%-93.1%) 낮지만 이는 앞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대답한 두 명의 응답이기에 역시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탈북자들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래 표5에서 보듯이 이들은 그 피해가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표5. 분단으로 인한 민족발전의 저해요소와 상처에 대한 응답.(단위:%)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보는가?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체)		(전체)
그렇다	92.7	이산의 고통	64.2
아니다	7.3	외세에 의한 민족자존의 손상	4.6
		민주주의의 왜곡과 발전저해	8.3
		경제발전의 저해	6.4
		남북의 적대와 긴장	16.5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중 92.7%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불과 7.3%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⁵⁾ 이에 성별, 남한 입국연도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단이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높은 비율로 긍정했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이 분단을 현재적인 어떤 문제점과 고통 혹은 상처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생각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탈북자들은 ‘이산의 고통’을 가장 많이 분단이 남긴 가장 큰 상처로 꼽았다. 표4에서 보듯이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수인 64.2%가 ‘이산의 고통’을, 그 뒤를 이어 16.5%가 ‘남북의 적대와 긴장’을 선택하였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의 왜곡과 발전저해’(8.3%), ‘경제발전의 저해’(6.4%), ‘외세에 의한 민족자존의 손상’(4.6)의 선택비율은 아주 낮다.

탈북자들이 ‘이산의 고통’, ‘남북의 적대와 긴장’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이들이 분단이 야기하고 있는 발전의 저해요소로 사회-경제적 측면보다는 현재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를 묻는 앞선 표2에서 탈북자들은 ‘우리민족의 세계 각지로의 이산’(14.7%, 3위)을 그리 많이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표5의 물음에서 이들이 ‘이산의 고통’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과는 일관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역시 표2에서 이들은 ‘일제식민 지배가 남긴 가장 큰 문제’로 ‘남북 분단’(36.7%, 1위)을 가장 많이 꼽으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가 역사적으로 남북 분단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산’의 대상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앞선 표2에서의 ‘이산’은 해외 코리언디아스포라까지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표5에서의 ‘이산’은 한(조선)반도에 국한한 코리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이 ‘이산의 고통’, ‘남북의 적대와 긴장’을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한(조선)한반도 내에서 같은 민족 다른 국가 간의 적대성으로부터 (재)생산되는 ‘분단 트라우마’⁶⁾가 현실적인 그들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본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탈북자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 주민들의 차별과 무관심으로 인해 한국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것은 그들이 ‘국가=민족’이라는 민족적 리비도를 좌절시킨 원죄를 가진 타자의 공간으로부터 건너온, 푸코의 설명방식으로는 항해하는 자⁷⁾로서

5) 본 조사에 따르면 이 물음에 대해 ‘그렇다’는 탈북자의 응답률이 다른 코리언디아스포라보다 높게 나왔다. 중국조선족, 고려인, 재일조선인 응답자 중 각각 82.2%, 81.0%, 83.1%가 한(조선)반도의 분단 상황이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6)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는 김성민·박영균, 「분단의 트라우마에 관한 이론적 성찰」, 『시대와 철학』 21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을 참조하라.
 7) 미셸 푸코 저, 김부용 역, 『광기의 역사』, 인가사랑, 1999 참조. 푸코에 따르면 “타자성의 형태는 광기와 이성을 각각 한 편에 두고서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타자성으로, 즉 일체의 고통의 밖에 있는 사물로, 서로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

남과 북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민족 내부의 적대적인 타자’⁸⁾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된 국가는 비로소 자신이 정박할 수 있는 민족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는 통일이 민족의 상처와 민족의 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 상처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요컨대, 탈북자들은 분단이 코리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그 피해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현재까지도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분단은 이산의 고통과 같은 민족의 상처뿐만 아니라 분단의 상처로 인한 상호 적대성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기에 분단은 민족의 발전 도모와 상처 치유라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통일의 국제적 중요성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표6.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단위:%)

		남한 입국연도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전체)	(29)	(77)	(3)
매우 그렇다.	48.6	65.5	42.9	33.3
그렇다.	46.8	31.0	51.9	66.7
그렇지 않다.	4.6	3.4	5.2	

표6에서 보듯이 탈북자들은 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중요시한다.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중 95.4%(매우 그렇다 48.6%, 그렇다 46.8%)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남한 입국연도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이전’과 ‘2006년 이후’는 각각 96.5%, 94.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2006년 이전’(65.5%)이 ‘2006년 이후’보다 22.6%의 차이를 보이며 훨씬 높게 나타난다. 즉, 한국에 더 오래 산 응답자일수록 강한 긍정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거주기간에 따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표7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살펴보겠다.

표7.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단위:%)

		남한 입국연도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전체)	(29)	(77)	(3)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2.8	3.4	2.6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	39.4	37.9	39.0	66.7
미국이 한국(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8.3	3.4	10.4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11.9	20.7	9.1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37.6	34.5	39.0	33.3

표7에서 보듯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적

라서 이성은 비이성을 ‘광기’로 규정하고 경계 밖으로 추방한다. 그런데 이때의 추방은 ‘순화’, ‘치유’의 의미를 가진 격리로서 ‘항해’의 시작이다. 이러한 푸코의 설명에 기대어 보자면 탈북자이 경험하는 남 주민으로부터의 차별과 소외 등은 광인의 정박에 대한 경계어린 시선인 것이다.

8)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142쪽.

타자로 규정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까지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지목한 것 같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답변은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37.6%)인데, 한(조선)반도의 분단/대립에 대한 응답과 불과 1.8%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위협의 책임을 조선으로 많이 돌린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남한 입국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둘 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조선(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1,2 순위로 선택하지만, ‘2006년 이전’이 ‘2006년 이후’에 비해 두 응답에서 모두 응답비율이 낮다. 그러나 미국의 대동북아시아정책(‘미국이 한국(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2006년 이전’이 24.1%로 ‘2006년 이후’의 19.5%보다 5%가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에 더 오래 거주할수록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위협책임을 북으로 돌리는 경향이 낮아지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남한),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대한 답변에 있어 2006년 전후 입국자 간에는 무게중심이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2006년 이전 입국자는 3.4%인 반면 2006년 이후 입국자는 이보다 6% 높은 10.4%의 선택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2006년 이전 입국자는 20.7%인 반면 2006년 이후 입국자는 이보다 11.6% 낮은 9.1%의 선택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짧을수록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더 오래 살았을수록 미국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견제를 더 많이 지목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과 중국이 정치적 맥락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동북아 정세를 보다가, 한국에서 살면서 점차 경제적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읽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6년 이전 입국자들은 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2006년 이후 입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치-군사적 대립을 한(조선)반도 내부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표6에서 ‘2006년 이전’이 더 강한 긍정을 보이는 것은 통일이 남북관계를 명분으로 내세운 주변국 간의 분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탈북자들은 남북의 적대적 분단이 남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평화의 위협요소를 대체적으로 한(조선)반도의 내부에서 찾으면서 북으로 돌리지만 주변강대국의 책임도 일부는 묻고 있다. 셋째, 남북의 통일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이와 같은 평화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공존을 가능케 할 것이라 보고 있다.

3. 통일의 장애와 분단 지속에 대한 인식

1) 분단 지속의 외부적 요인 : 중국

표8.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단위:%)

		남한 입국연도			남북 호감도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남한	북한	둘 다 똑 같다
	(전체)	(29)	(77)	(3)	(65)	(7)	(37)
남한	2.8	3.4	1.3	33.3	4.6		
북한	33.9	27.6	36.4	33.3	44.6	28.6	16.2
미국	12.8	6.9	14.3	33.3	10.8	28.6	13.5
중국	47.7	62.1	44.2		36.9	42.9	67.6
중복응답	2.8		3.9		3.1		2.7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를 물었을 때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인 47.7%가 ‘중국’을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33.9%), ‘미국’(12.8%), ‘남한’(2.8%) 순으로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탈북자들이 한국 보다 조선을 통일의 장애국가로 더 많이 지목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일본, 중국, 러시아의 코리엔디아스포라는 조선 혹은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1, 2순위로 높았으며 중국을 선택한 응답비율은 아주 낮는데 비해 탈북자들은 이와 다르게 중국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체험인 것으로 보인다.¹⁰⁾ 탈북자들이 북을 떠나 대다수가 체류하는 곳이 중국이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2000년대 이후 기획탈북이 증가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렇기에 탈북자들은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단속과 강제복송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은둔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국은 이들을 난민이 아닌 불(비)법월경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어떠한 보호 장치도 가지지 못했다. 이런 체험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크게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¹¹⁾

그런데 중국을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 선택하는 비율은 표8에서 보듯이 ‘2006년 이후’(44.2%)보다 ‘2006년 이전’(62.1%)의 응답자에서 17.9%로 많이 높아진다. 또한 ‘남한’을 선택하는 비율도 1.3%에서 3.4%로 소폭으로 높아진다. 반면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은 14.3%에서 6.9%로 7.4% 낮아지며, 마찬가지로 ‘북한’을 선택하는 비율은 ‘2006년 이후’는 36.4%였는데, ‘2006년 이전’은 27.6%로 약 10%가량 낮아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첫 번째는 한국에 오래 살수록 ‘남한’을 선택하는 비율은 높아지지만 ‘북한’을 선택하는 비율은 낮아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앞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위협요소를 논의할 때 ‘미국’의 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2006년 이전에 비해 2006년 이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아래 남북에 국한한 분단의 책임과 분단의 지속 원인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분단의 내부적 지속요인 : 조선

표9. 현재 분단이 지속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인가?(단위:%)

		남한 입국연도			남과 북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		
		2006년 이전 (전체)	2006년 이후	무응답	남한	북한	둘 다 똑 같다.
		(29)	(77)	(3)	(65)	(7)	(37)
남한	9.2	17.2	6.5		13.8	(7)	2.7
북한	89.9	82.8	92.2	100.0	86.2	100.0	94.6
무응답	0.9		1.3				2.7

‘현재 분단이 지속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남과 북 중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89.9%가 ‘북한’을 9.2%가 ‘남한’을 선택에 확연히 조선에 더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한 입국연도별로 보았을 때 북한을 선택한 비율이 ‘2006년 이후’(92.2%)에 비해 ‘2006년 이전’(82.8%)이 약10% 낮아졌으며, 한편으로 ‘남한’을 선택한 비율은 ‘2006년 이후’(6.5)에 비해 ‘2006년 이전’(17.2%)에서 오히려 높아졌다.

9) 중국 조선족은 미국(66.3%), 북한(18.2%)순으로, 러시아고려인은 북한(54.9%), 미국(26.1%)순으로, 재일조선인은 북한(31.8%), 미국(28.3%)순으로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선택했다.

10)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시켜왔으며 지난 2012년 2월 21일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11) 윤인진, 『북한이주민』, 집문당, 2009;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7; Marc Ziem다 엮음,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늘봄플러스, 2009 참조.

여기까지 보면 표8를 분석하면서 탈북자들이 전체적으로는 분단 지속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는 비율이 높지만, 한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에 대해서는 더 많이, 조선에 대해서는 분단책임을 더 적게 묻는다는 결론이 맞다. 이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도 어느 정도 분단의 지속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한국과 조선의 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조선 보다 한국의 체제를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단 지속의 원인을 물었을 때에 이에 답을 구할 수 있었다.

표10. 분단의 지속원인과 통일의 장애 국가 교차비교(단위:%)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남한 입국연도			통일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는?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전체)	(29)	(77)	(3)	(3)	(37)	(14)	(52)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28.4	13.8	33.8	33.3	66.7	37.8	35.7	19.2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31.2	34.5	31.2			16.2	57.1	34.6
남한이 미국편에서 북한을 봉쇄하기 때문	3.7	3.4	3.9			5.4	7.1	1.9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36.7	48.3	31.2	66.7	33.3	40.5		44.2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36.7%),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31.2%),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28.4%), ‘남한이 미국편에서 북한을 봉쇄하기 때문’(3.7%)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선의 폐쇄성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답변이 매우 낮은 것은 탈북자들이 한국 체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에 서서 분단 지속의 책임을 조선으로 더 많이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통일의 장애 국가에 대한 응답과 교차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을 통일 장애 국가로 선택한 사람들 둘 다 1순위(각각 40.5%, 44.2%)로 조선의 폐쇄성을 분단 지속의 원인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 입국연도와 교차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이전’은 ‘2006년 이후’에 비해 분단지속의 원인에 대한 답변에 있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31.2%→48.3%)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보다는 한국 체제를 우위에 놓고 분단의 문제를 본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다음의 물음을 통해서도 더 확실해진다. 이들에게 ‘남과 북 중에서 어디에 더 호감이 가는가?’라고 물었을 때 59.6%가 ‘남한’을 선택한 반면 ‘북한’을 선택한 비율은 6.4%밖에 안 되었으며, ‘살고 싶은 나라’를 묻는 질문에 64.2%가 ‘남한’을 선택했지만, ‘북한’을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분단지속의 책임과 분단지속의 원인을 묻는 물음 간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은 북에 대한 양가적인 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호감도’에 있어 33.9%가 ‘남북 동일’을 선택했으며, ‘살고 싶은 나라’와 교차 비교하였을 때 ‘살고 싶은 나라’로 ‘남한’을 선택한 25.7%가 ‘남북 동일’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한국의 체제는 인정하지만 남에서의 정서-문화적 이질감으로부터 오는 북에 대한 정서-문화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은 2006년 이후 입국자들이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13.8%)는 적게 선택하면서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34.5%)는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과 통일의 장애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사람의 34.6%가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를 두 번째로 많이 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앞서 제기한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중국을 통일 장애국가로 가장 많이 꼽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보았듯이 2006년 이전 입국자는 북한의 폐쇄성과 아울러 분단 지속의 책임을 주변국의 문제로도 많이 본다. 또한 북한의 폐쇄성을 분단지속의 원인으로 꼽고는 비율이 증가하며 또한 가장 중요요인으로 보고 있다.

며, 중국을 통일의 장애 국가로 선택한 사람들이 1순위로 선택하고 있는 분단지속의 원인이 바로 조선의 폐쇄성이다. 종합하자면 이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조선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그것이 분단극복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위협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분단을 지속하는 더 큰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겪은 고통, 공포, 상처로 인해 중국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통일의 장애국가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이들은 한국의 체제를 우위에 두고 평가하면서 분단지속의 책임을 조선과 중국을 포함한 외세열강으로 많이 돌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조선에게 책임을 묻는 비율은 낮아진다. 따라서 셋째, 탈북자들은 조선에 대해 체제 비판적이지만 반면에 정서-문화적 지향성을 더 많이 가진다는 점에서 남과 북을 양가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분단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4. 통일과 분단극복을 위한 과제

1) 한국의 대북정책 : 대북경제지원과 대북봉쇄지원에 대한 비일관적 응답

표11. 대북경제지원과 대북봉쇄지원의 통일을 위한 필요성(단위:%)

대북경제지원의 필요성		성별			대북봉쇄정책의 필요성		성별		
		남	여	무응답			남	여	무응답
	(전체)	(54)	(53)	(2)		(전체)	(54)	(53)	(2)
매우 그렇다	22.9	18.5	26.4	50.0	매우 그렇다	18.3	18.5	18.9	
그렇다	44.0	40.7	47.2	50.0	그렇다	31.2	24.1	37.7	50.0
그렇지 않다	32.1	38.9	26.4		그렇지 않다	41.3	50.0	32.1	50.0
무응답	0.9	1.9			매우 그렇지 않다	9.2	7.4	11.3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이 66.9%(매우 그렇다 22.9%, 그렇다 44.0%)로 ‘그렇지 않다’(32.1%)보다 34.8%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탈북자들이 현재 조선이 심각한 경제적 난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이 응답률은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긍정이 59.2% 부정이 38.9%인데, 여성은 각각 73.6%, 26.4%로 여성에 남성에 비해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14.4% 더 높다. 종합하자면 전체적으로는 대북경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은 응답자들이 긍정의사를 보이지만 여성일수록 대북경제지원이 남북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물음에서는 이와 일관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현재 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 통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49.5%(매우 그렇다18.3%, 그렇다31.2%)이며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50.5%(그렇지 않다41.3%, 매우 그렇지 않다9.2%)로 불과 1%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에 비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반대율이 낮게 나오고 있다.(66.9% 대 50.5%) 성별에 따라서 보자면, 남성의 경우 긍정이 42.6%, 부정이 57.4%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각각 56.6%, 43.4%이었다. 여성의 경우 대북경제지원 찬성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반대율도 높은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남성보다 반대율이 13% 낮게 나온 반면 오히려 찬성률이 남성보다 14% 높게 나왔다. 남성은 대북경제지원과 대북봉쇄정책의 찬반 비율(59.2% 대 57.4%)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반면 여성은 대북경제지

원에 대한 찬성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반대 비율보다 훨씬 높게(73.6% 대 43.4%) 나온다.

이로부터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조사대상자의 전체응답에서 대북경제지원을 찬성하는 비율보다 대북봉쇄정책을 반대하는 비율이 16%가량 낮다는 점이며, 둘째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북경제지원을 더 많이 찬성하면서도 대북봉쇄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더 많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결과는 특히 여성의 응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유를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묻는 물음을 바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

2) 분단극복을 위한 현재적 과제 : 남북 간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표12.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하는가?(단위:%)

		성별		
		남	여	무응답
	(전체)	(54)	(53)	(2)
남북 간 민간 교류	32.1	31.5	34.0	
경제 협력	32.1	37.0	26.4	50.0
남북정상회담	20.2	13.0	26.4	50.0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6.4	5.6	7.5	
남북 간 문화 교류	8.3	13.0	3.8	
무응답	0.9		1.9	

‘남북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남북 간 민간교류’(32.1%), ‘경제 협력’(32.1%)을 동일한 비율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남북정상회담’(20.2%), ‘남북 간 문화 교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6.4%) 순으로 대답했다. 이들은 정치-군사적 노력(26.6%) 보다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민간교류(64.2%)를 분단 극복을 위해 현재 필요한 노력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앞선 분석에서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전체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가 설명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성은 각각 18.6%, 68.5%인 반면에 여성은 34.9%, 60.4%의 선택율을 보여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여성의 찬성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이 일관되지 않아 보인다. 특히 대북경제지원과 직접 관련이 된다는 ‘경제협력’에 대한 응답률이 여성(26.4%)에 비해 남성(37.0%)이 약 11% 더 높게 나온다. 더구나 ‘남북 간 민간 교류’에 대한 답변에서는 여성(34.0%)이 남성(31.5%)보다 불과 2.5% 차이로 높을 뿐이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북 분단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가? 이는 여성의 한국의 입국형태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 같다. 본 조사에서는 이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기존 조사¹²⁾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단신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비율이 높으며, 북에 가족을 남겨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이들은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을 늘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대북경제지원은 남겨진 그들의 가족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여성 탈북자가 대북경제지원의 필요성을 남성에 비해 더 많이 느끼리라 보인다. 이는 여성 탈북자들이 대북경제지원을 북에 대한 정서적 지향성에 기초하여 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여성의 찬성률이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여성이 대북봉쇄정책을 앞선 대북경제지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조선 보다 한국을 체제 우위적으로 평가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 이에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JPI 정책포럼 자료집』, 제주평화연구원, 2010 참조.

3) 분단극복을 위한 필수적 과제 :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과 상호 신뢰성 회복

표13.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단위:%)

	(전체)	성별		
		남 (54)	여 (53)	무응답 (2)
상호 신뢰성 회복	31.2	35.2	28.3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32.1	25.9	39.6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18.3	18.5	18.9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정착 노력	7.3	9.3	3.8	50.0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10.1	9.3	9.4	50.0
중복응답	0.9	1.9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의 물음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32.1%), ‘상호 신뢰성 회복’(31.2%), ‘정기적인 남북 대화 정착’(18.3%),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 정착 노력’(7.3%) 순으로 대답하였다. 여기서 ‘상호 신뢰성 회복’과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의 응답률이 1,2 위로 탈북자들은 상호 적대성 극복과 협력(63.3%)을 분단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과제로 우선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이 대북경제지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성별로 보자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적으로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의 적대성을 극복하고 공동의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성의 39.6%가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을, 28.3%가 ‘상호 신뢰성의 회복’을 선택하는데 비해 남성은 35.2%가 ‘상호 신뢰성의 회복’, 25.9%가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방식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는 앞선 표12에서 분단의 현재적 과제로 여성이 ‘남북 정상회담’을 남성보다 13.4% 더 많이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본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중 81.1%가 ‘살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선택해 남성과 40%의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국 체제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그 만큼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남의 체제에 더 많이 적응된 여성이 조선의 체제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전체로 봤을 때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찬성비율(66.9%)이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찬성비율(42.6%)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북봉쇄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할 순 없다. 오히려 이들은 고향으로서의 북에 대한 정서적 지향성과 조선 체제에 대한 반감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기에 이러한 일관적이지 못한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해야겠다.

이상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점은,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대북경제지원에 찬성하지만 한편으로 대북봉쇄지원에 대해서 동일비율 만큼 반대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첫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찬성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과 둘째, 오히려 대북봉쇄지원에 대한 반대율이 남성보다 낮은 데 그 이유가 있었다. 이는 탈북자들이 북에 대한 정서적 지향성과 조선 체제에 대한 환멸감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5. 분단극복을 위한 소통적 가치와 통일한반도의 가치 지향성

1) 통일을 위해 극복해야 할 소통적 가치 : 북 체제의 폐쇄성과 남의 정서-문화적 부정성

표14.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단위:%)

	(전체)	성별		
		남	여	무응답
	(전체)	(54)	(53)	(2)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26.6	25.9	28.3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	13.8	18.5	7.5	50.0
외세 의존적 태도	22.9	25.9	20.8	
대북 퍼주기 사업(북한에 식량, 비료 등의 지원)	22.0	18.5	26.4	
대북봉쇄정책(북한과 교류를 일절 끊는 것)	12.8	11.1	13.2	50.0
무응답	1.8		3.8%	

‘통일을 위해 남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으로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26.6%), ‘외세 의존적 태도’(22.9%), ‘대북 퍼주기 사업’(22%),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13.8%), ‘대북봉쇄정책’(12.8%) 순으로 선택하였다.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선택한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남 주민으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당해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앞선 분석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것은 자신들의 삶의 처지가 반영되어 한국에서 느끼는 정서-문화에 대한 반감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선택한 비율이 3%정도 높긴 하지만 둘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남한 입국시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이들이 남녀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남 주민들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은 ‘외세 의존적 태도’(22.9%)이다. 이에 대해 남성과 여성 간에 5%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추측컨대, 이것은 성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탈북자들이 보기에 한국의 외교 정책이 미, 중, 일, 러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에 응답률은 높는데 반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응답률이 13.8%로 비교적 낮게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7.5%)이 남성(18.5%)에 비해 11% 낮게 나오며, 여성이 선택한 응답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9명 중 무응답 37명과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를 빼면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은 전체응답자의 65.1%에 해당하는 71명이다. 그 중에서도 월 20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6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6.8%에 해당한다. 탈북자의 실업률이 높은 편이며 소득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기존의 조사를 감안해서 무응답까지 고려한다면 응답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장경제체제를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것은 북에서 생활에 비해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의 분열상을 이들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한사회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안정적인 취업보장’(38.5%)을 가장 많이 답했다. 이는 자유 시장경제 내에서 대단히 불안정하고 고단한 삶을 지속해가지만 그것을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표현하지

13) 고지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0 참조. 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8 참조.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들은 아래 표15에서 북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으로 ‘경제 개방과 개혁’을 가장 많이 꼽으며 북이 남의 그러한 자유 시장체제를 받아들일길 바란다.

표15.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단위:%)

		성별			남한 입국연도		
		남	여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전체)	(54)	(53)	(2)	(29)	(77)	(3)
경제 개방과 발전	49.5	50.0	49.1	50.0	65.5	45.5	
남북 교류 활성화	38.5	37.0	39.6	50.0	17.2	45.5	66.7
국제 규범 질서 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	11.9	13.0	11.3		17.2	9.1	33.3

‘통일을 위해 북쪽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으로 ‘경제 개방과 발전’(49.5%), ‘남북 교류 활성화’(38.5%), ‘국제규범질서준수와 대외신뢰도 향상’(11.9%)순으로 선택하였다. 여기서 이들이 북의 개방과 관련이 있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은 ‘분단지속의 원인’과 ‘북에 대한 인상’을 묻는 물음에서의 응답경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분단지속의 원인’을 묻는 물음에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36.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북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도 ‘폐쇄적인 나라다’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성별 간 차이는 거의 없지만, 2006년 이전 입국자는 ‘경제개방과 발전’(65.5%)을 2006년 이후 입국자 보다 20%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반면 2006년 이후 입국자는 ‘남북 교류 활성화’(45.5%)를 2006년 이전 입국자에 비해 30%가량 더 많이 선택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한국의 상당한 경제력을 경험하고도 그것의 요인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요인이 대외 무역과 같은 경제 교류에 있다는 것을 북의 폐쇄성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의 응답은 남북에 대한 비교평가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이 고쳐야 할 점으로 이들이 지목한 것들이 상호간에 배워야 할 점으로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남과 북이 서로에게 배워야 할 가치 : 민족적 동포애, 집단주의 그리고 개방성, 자유경쟁

표16.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단위:%)

		성별			남한 입국연도		
		남	여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전체)	(54)	(53)	(2)	(29)	(77)	(3)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태도	14.7	20.4	7.5	50.0	10.3	16.9	
민족적 동포애	23.9	29.6	17.0	50.0	31.0	20.8	33.3
평등 사회 건설 의지	9.2	7.4	11.3		6.9	10.4	
집단주의	23.9	20.4	28.3		24.1	23.4	33.3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22.9	18.5	28.3		17.2	24.7	33.3
무응답	5.5	3.7	7.5		10.3	3.9	

‘남쪽이 북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민족적 동포애’(23.9%), ‘집단주의’(23.9%)가 같은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22.9%)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여기서 ‘민족적 동포애’, ‘집단주의로’가 동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표14에서 한국이 고쳐야 할 점으로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도 연관된다. 앞의 논의에서 말하였듯이, 이들은 남 주민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다. 그것은 이들이 보기에 남 주민들이 같은 민족인데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실망감 혹은 괴리감을 상당히 느낀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가 ‘민족적 동포애’를 가장 많이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과는 다른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타인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남 주민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곧 집단주의의 상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민족적 동포애’(29.6%)를 가장 많이 선택하면서 여성보다 13% 가량 많았다. 반면 여성은 ‘집단주의’(28.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남성보다 8%가량 많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그들이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반감을 가지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들에게 ‘한국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민족도’를 물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을 합한 선택율은 24.1% 대 18.9%로 남성이 더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 주민으로부터 차별, 소외 무관심 경험에서 받은 상처’를 물었을 때 남성과 여성이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26.7% 23.5%이었으며,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이 26.7%인 반면에 여성은 그 보다 훨씬 높은 41.2%였다. 이는 남성이 민족 혹은 정부에게서 느끼는 불만에 더 민감한 반면, 여성은 그 보다는 개별적으로 받는 상처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17.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단위:%)

	(전체)	남한 입국연도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사례수	(109)	(29)	(77)	(3)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13.8	6.9	15.6	33.3
개방적인 사회	39.4	34.5	42.9	
자유경쟁	27.5	34.5	23.4	66.7
개인주의	2.8	3.4	2.6	
세계화	14.7	17.2	14.3	
중복응답	1.8	3.4	1.3	

반면 ‘북쪽이 남쪽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개방적인 사회’(39.4%)가 가장 많았으며, ‘자유경쟁’(27.5%)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다.

2006년 이후 입국자 중 42.9%가 ‘개방적인 사회’를 선택하는 반면, 2006년 이전 입국자는 34.5%로 약 11%가량 선택율이 낮아진다. 반면 2006년 이전 입국자의 34.5%가 ‘자유경쟁’을 선택하지만 2006년 이후 입국자는 이보다 11%가량 적은 23.4%의 선택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한국 입후 얼마동안 가장 먼저 체감하는 남한에 대한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자유로운 나라다’라는 대답이 68.8%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2006년 이전 입국자(58.6%) 보다 이후 입국자(71.4%)에서 더 높게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개방적인 사회’라는 것은 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06년 이전 입국자에서 이것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은 표 16과 연관지어보면 2006년 이전 입국자(31.0%)는 2006년 이후 입국자(20.8%)보다 더 ‘민족적 동포애’를 남이 북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표16에서 더 오래 살수록 ‘개방적인 사회’에 대한 선택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들이 차별, 배제를 경험하면서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자신들에게는 ‘닫힌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후자에서 ‘자유경쟁’을 많이 선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라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이를 표14에서 남한이 고쳐야 할 점으로 시장체제의 문제점을 아주 낮

게 선택한 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즉, 오래 살수록 ‘자유경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국의 체제 우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한국의 시장체제를 그 만큼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요컨대, 탈북자들은 정서-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남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특히 같은 민족으로서 대우받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좌절되면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체제를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의 비교우위를 인정한다. 한편 남에서 경험하는 정서-문화적 이질감은 그것에 대하여 비판적이게 하지만 탈북자들은 그들의 탈북계기가 그러한 것처럼 북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경제적 낙후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3) 통일한반도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방향 : 남의 체제와 북의 정서-문화적 긍정성

표18.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방향(단위:%)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체)		(전체)
생태 친화적인 삶	5.5	경제 강국의 건설	52.3
정치적 자유	36.7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	14.7
민족 주체성	12.8	문화 선진국의 건설	10.1
경제적 평등	30.3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19.3
보편적 인권	13.8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	2.8
무응답	0.9	무응답	0.9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정치적 자유’(36.7%), ‘경제적 평등’(30.3%)을 1, 2순위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보편적 인권’(13.8%), ‘민족 주체성’(12.8%), ‘생태 친화적 삶’(5.5%) 순으로 응답했다. 여기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에 대한 선택율이 높은 것은 각각 남과 북이 각각 극복하거나 배워야 하는 할 가치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들이 ‘경제적 평등’보다 ‘정치적 자유’를 좀 더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북한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시장체제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는 좀 더 밀고나가서 보자면 이들이 한국 주도형 통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 선택율 간에 차이(6.4%)가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303.3%나 된다는 점에서 정서-문화적인 가치마저 현재 그들이 느끼는 남의 형태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와 북의 정서-문화적 가치의 통합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봐야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통일한반도의 방향성은 어떠한가?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이들은 ‘경제 강국의 건설’(52.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주변국과의 협력-공존’(19.3%),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14.7%), ‘문화 선진국의 건설’(10.1%) 순으로 10%대 안에서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는 2.8%로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경제 강국의 건설’이 가장 많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그들의 현재 처지가 북의 경제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력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은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이며 둘째는 한(조선)반도의 통일의 경제적 성장은 자신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미래의 통일한반도를 분단이 (재)생산하는 억압과 강제로부터 자유로우며 그러면서도 민족의 성원들이 서로 간에 우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러한 형태로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상적 관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두 국가를 체험하면서 나름의 긍정적 가치들을 통합한 결과이다.

7. 나가며 : 남과 북의 통합적 가치의 생산과 탈북자들의 통일한반도에서의 역할 가능성

탈북자들은 북을 떠나 제3국에서 상당 기간을 체류하고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고단한 여정을 체험한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지를 배정받고 남 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적 체험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의 통일 분단 의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통일이 자신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 믿으며, 일제 식민의 극복과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과 그 성원으로서의 자신들의 상처가 치유되리라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통일이 남북의 적대성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들은 한국 체제 우위성을 인정하며 조선의 폐쇄성과 그러한 조선에 대해 중국이 친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며 이는 곧 분단의 지속원인을 중국과 조선으로 돌리게 한다. 하지만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한국도 분단 지속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남 주민들로부터 받는 무시와 편견으로 생겨나는 자신들의 고향인 북에 대한 정서적 지향성의 강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남의 정서-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지만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선과의 비교평가 속에서 우위성을 인정하며 한편으로 그것이 가진 부정성이 있지만 자신 삶의 전략적 측면에서 긍정적 가치로 인정한다. 이는 탈북자들이 분열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열성은 대북경제지원과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은 전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강하지만 기이하게도 후자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분석 결과,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찬성은 북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친지와 이웃이 겪고 있을지 모르는 고통에 대한 동조적 감정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으며,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찬성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표현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작 북을 괴멸하기 위한 대북봉쇄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남북 간 신뢰성의 회복을 통한 민간 교류 및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열성은 남과 북에 대한 양가적 평가를 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들은 통일을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남과 북의 부정적 가치들이 극복되길 바라며 나아가 통일한반도는 남과 북의 긍정적 가치들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렇기에 이들은 통일의 전망을 밝게 보는 것 같다.

표19. 반도(북, 조선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단위:%)

	전체	성별			남한 입국연도		
		남	여	무응답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무응답
		(54)	(53)	(2)	(29)	(77)	(3)
밝다	62.4	70.4	54.7	50.0	72.4	61.0	
어둡다	34.9	25.9	43.4	50.0	24.1	37.7	66.7
무응답	2.8				3.4	1.3	33.3

위의 표에서 보듯이 탈북자들에게 ‘한반도(북, 조선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62.4%가 ‘밝다’, 34.9%가 ‘어둡다’라고 응답해 통일을 낙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별에서도 남한입국연도에서 ‘밝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보기에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조선의 폐쇄성과 외세열강의 개입에 있지만 ‘남북 간 민간교류’, ‘경제협력’, ‘상호 신뢰성 회복’,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간다면 통일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 같다.

이점은 오늘날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분단 지속의 원인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만남과 소통을 통해 남과 북이 한(조선)반도에서 서로 우애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 이들이 서로에게 배워야 할 점으로 남은 '민족적 동포애', '집단주의' 북은 '개방적인 사회', '자유경쟁'을 지적하였듯이, 남과 북은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기에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로 간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통과 교류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과 북이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가치를 생산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편으로 탈북자들이 지니고 있는 분열성은 남과 북이 서로의 특유한 '가치체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내면적 형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시사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남과 다르게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가치지향성은 치유와 정상화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¹⁴⁾ 그런 측면에서 탈북자는 “먼저 온 미래”¹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통일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주민이 가진 이질성 사이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때 ‘완충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번 탈북자 조사를 통해 이러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 조사의 한계로 인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지 못한 점도 있다. 그것은 우선 조사대상자의 표본수가 109명으로 너무 적었다는 점에 있다. 또한 2012년 2월 기준 남한 입국 여성 탈북자는 약 1,600여명 정도로 남성의 2.5배¹⁶⁾ 가량 되는데 본 조사에서는 남성 54명, 여성 53명으로 거의 동수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점과 학력과 직업, 소득, 남한 입국시기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점은 본 조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결과물을 토대로 한 대면을 통한 질적 조사 분석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대상으로 100문항의 설문을 실시하여 현재 이들이 가진 통일-분단 의식을 조망했다는 점에서 또한 이들의 남과 북에 대한 양가적 평가로부터 현재 통일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과 통일한반도에서의 탈북자들의 역할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이러한 맥락에서 장선하는 하나원의 교육과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하나원의 교육을 “국민만들기”라 지칭하고 탈북자들은 하나원의 교육과정 속에서 ‘순화’와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며 북한체제 내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강요받는다고 비판한다. (장선하, 「한국사회의 탈북이주민 국민 만들기」, 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15) 오원환, 같은 논문, 5쪽.

16)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